



11

주제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11호

(루계 제817호)

차 례

어머니, 어머니없이 못살아(편시) 김 선 화(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단편소설 미곡벌의 가을 변 월 녀(6)

그래서 병사라네(시) 김 남 수(15)

우리의 하루(가사) 리 진 협(15)

주체문학의 대강 (15)

나는 세포전역에서 당원이 되었다(시초) 리 명 철(30)

하늘에는 배부른 보름달이...(외 1편) 최 련(32)

☆ 준공레프 곽 명 철(33)

시 내 한생 강철로 우리 당 받들리(가사) 심 재 훈(42)

☆ 고향과 어머니(시초) 김 진 주(43)

선천의 엄마들 원 영 옥(45)

어머니는 집을 나선다 리 명 학(50)

어머니에 대한 단상들(수필) 김 은 희(46)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세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라!

— 공동구호에서 —

단
편
소
설

어머니는 동구밖에 서계신다 변 영 건(16)

어느 평범한 날들에 탁 숙 본(34)

세대의 임무 홍 남 수(55)

정에 대한 이야기 (실화문학) 안 명 국(68)

영원히 잊지 않을 전쟁 3년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서정 (평론) 김 학(51)

발전소의 코스모스꽃길에서 (수필) 변 영 옥(66)

◇ 시 ◇

전승기념탑 여기서는 (가사) 김 명 성(50)

청춘언제는 어떻게 일떠서는가 김 경 석(54)

우리 집 배 선 복(67)

예쁜이 리 득 하(80)

삼 식 (49), (65)

련 시

어머니, 어머니없이 못살아

김 선 화

무수히 흐르는 날과 달들에
기쁜 날이 어이 없으랴만
말 못할 피로움에 자리를 내어주던
광산마을 자그마한 집 한채

그 작은 집, 그 아픈 마음들에
새삶의 밝은 빛 뿌려준 어머니!
어머니시여, 그대를 노래하노라!

어이 알수 있었으랴

우연히도 선생님 책상우에서
첫 분단열성자명단을 보게 된
나의 가슴은
아기새의 그것마냥 호드득거렸다

렁 비어있었다
그 자리가
커다란 수직갱아구리마냥
렁 비여 나를 올려다보고있었다

일곱명밖에 안되는
그 명단에는
아버지 어머니들 이름옆에
《당별》이라는 크지 않은 자리가 있었다

핑 서려도는
아, 이것은 무엇?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가슴에
아아, 아버지진?

순화, 창숙이, 련희
그다음 네번째 나를 건너
명월이, 경숙이, 명애
그 애들모두의 아버지이름옆엔

...
허나 알지 못했다
구울러 떨어지는 방울방울 눈물에
핑 젖어드는 그 빈자리를
나보다도 더 아피 어루쓰는 눈빛

적혀있었다 포박포박
로동당!
하지만 일곱명중 맨 가운데
학습담당위원인 내 명단에만은

아,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빛이
나도 아버지도 지켜주고있는줄
알지 못했다 어이 알수 있었으랴
그때 나는 아홉살 소녀였다

눈물의 속삭임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아버지의 시를
성스러운 대오에서 떨어졌던
이름없는 광부의 시를
몸소 보아주셨다

강인한 아버지의 얼굴에서
난생처음으로 본
숫구쳐 고향지어 흐르는 눈물
다섯남매 우리를 꼭 그러안고
어깨를 떠는 어머니얼굴에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눈물...

쫄쫄쫄 피방울같은 뉘을
한자 또 한자 새겨안아보시며
굽이굽이 곡절많은 인생길도 헤아려보시며
그이 베풀어주신 은정
아, 꿈만 같은 그 은정에
동지달 그밤은 어떻게 섰던가

눈물은 말없이도 오가는 속삭임인가
아, 친애하는 그이 정겨운 시선이
자자구구 뜨겁게 어리여있는
활달하신 그이 필치 력력한 흰 종이우에
후두둑후두둑 떨어지며
금선처럼 울리던 눈물의 속삭임

그럼 아버지?
그이께서 아시는 광부?
아니, 그이께서 아시는 시인이란 말인가?!
그럼 그이는?
그이는 아버지의?
아아, 친애하는 그이는 정녕 우리 온 가정의?!

오, 눈물은 심장의 뜨거운 속삭임인가
멀리 평양하늘 우리르며
섬광처럼 번쩍이는 아버지의 눈물에서
나는 그밤 들었어라
버럭처럼 문힐번 한 생명이
새삶의 은인께 삼가 드리는 송가의 태동을

나도 이제는 조선로동당원의 딸이다

—기뻐하거라 내 딸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으로
아버지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녔구나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열아홉살의 가슴에 지녔던 붉은 당원증
이렇게 다시 받아안았구나

전보문처럼 짧은 편지였지만
참다운 인생의 진리를 터득하며
뼈를 깎고 피를 태워온 아버지의 긴긴 세월을
순간에 떠올려준 편지였다
대를 이어 가야 할 보답의 먼먼길에
소중히 안고갈 편지였다

그 글발에 어려왔다
쓰고 지우고 지우고 다시 쓰며
성에불린 창가에서 시와 함께 새날 맞던 아버지
홀려내린 숨웃을 씩씩드리려
발끝걸음 다가서는 이 딸을 돌아보며
서둘러 감추시던 축축한 눈빛
아, 그 밤과 밤들에 꺼질줄 모르던 불빛

젖어드는 가슴속에 울려왔다
눈보라 세차도 비바람 몰아쳐도
엄마를 찾아가는 어린애마냥
허겁지겁 문밖을 나서던 아버지
따라서며 바래주며 눈곱찢던 어머니

아, 그 무슨 신비스런 부름이었던가
—광산당위원회에서 찾습니다

안겨왔다 그 부름에서
왈칵 눈물을 쏟으며
입속말로 속삭이며 목메어 웨치며
아기처럼, 엄마품을 파고드는 아기처럼
기폭에 얼굴묻고 흐느끼는 아버지
아, 그 눈물, 그 속삭임, 목메임, 흐느낌
따뜻이 뒹싸안아주는 붉은 기폭이

그 불빛, 그 부름, 그 붉은 기폭
그것은 짙그리 당이어 그대의것이였다
진정 아버지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한사람한사람 우리모두에게 있어
당이어, 그대 준 생명—조선로동당원!
이 영예 떼뺏이 지닐수만 있다면
이 세상 더 바랄것 있었던가

하늘이 높지 않았다
세상천지도 넓어보이지 않았다
아, 일찌기 어린 가슴에 뚫려
아물줄 모르던 그 아픈 빈자리에
가득차오르는 환희와 긍지, 고마움이어
—우리 아버지도 조선로동당원이다!
나도 이제는 조선로동당원의 딸이다!

영 생

한생 노래를 안고산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노래를 남겨놓고, 만민이 사랑하는 노래를 남
기고
영생의 언덕에 오른 시인은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해를 두고 더해만 가는
사랑과 믿음 영광에
미처 따라서지 못하는 시인의 삶을 두고
피로워하셨지요 아버지는
깊은 밤 이른새벽 초불처럼 태우시며
다하지 못한 보답의 노래를 엮고엮으셨지요

허나 분분초초 쪼개가도
따라서지 못했던
생의 시간표
끝내 끝끝내 더 부르고싶은 노래
다 부르지 못한채 식어가던 심장
어느분이 으스스리게 안아깨워주셨습니까

빨리 병을 고치여
보람찬 우리 시대를 더욱 빛내여가자고 하신
아
위대한 장군님 사랑의 친필서한이어!
죽음을 돌려세워주신 태양의 빛발이어!

그 빛발에 싸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형권삼촌은 체포된후 얼마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후 함흥감옥에 다시 이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였을것이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 가고 없는셈이었다.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은채 고국의 이름모를 언덕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삼촌의 원수를 갚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소생의 불사약 홀러들고 사랑의 비행기 날고
그래서 더 자주 계산해보곤 하셨지요 아버지는
병상을 전장으로 삼고 자신과 싸우며
보답으로 이어가야 할 전사의 생명한계표를

정녕 살필히도 안아주고 지켜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빛내주신
영원한 삶의 품, 어머니당이 없었더라면
버럭처럼 영영 묻혀버릴뻔 한 운명 아니었습니까

태어나지조차 못했을 송가가 아니었습니까

아, 노래가 영생하여 삶이 영생합니까
삶이 영생하여 노래가 영생하는것입니까
술숯푸른 여기 신미리언덕에서
붉은기에 휩싸안겨 오늘도 속삭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나의 작은 목소리도 합칩니다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당이어 나에게 그대는

당이어 그대는
아홉살 어린 눈망울에
이 세상 아름다움을 다 담아주었건만

미처 몰랐다
학기마다 내 안고오는 최우등성적증을
말없이 쓸어보며 피로워하시던 아버지의 눈빛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도
내 얼굴을 마주보기 서슴어하던
그 눈빛의 의미를 나는 알수가 없었다

미처 다 몰랐다
당이어 그대의 붉은 기폭이
광부사택 성에불린 창문가에도
새삶의 밝은 빛 따듯이 뿌려주며
눈부신 아침노을 펼쳐주었고
잠 못들며 모대기던 피로운 밤들을
날이 새도록 어루쓸며 다독여준줄

순탄치 않은 아버지의 인생길을
함께 따라걸으며 함께 헤쳐넘으며
일찌기 동심과 작별한 소녀의 머리에
누가 펼쳐주었던가 창창 무지개하늘을
아, 당이어 어머니이시여
그대 품에 와락 안겨
서러있던 눈물을 다 쏟아버린 가슴은
얼마나 거뽏했던가 새 희망에 넘쳤던가

신비스럽기만 했다
광산초급당위원회뿐이라
련합당, 도당, 당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고
옷매무시 바로하며 열차에 오르던 아버지
아, 그 얼굴에 비친
형언키 어려운 송구함, 감사의 마음...
하루밤새 거인이 되었는데가
휙휙 날아오르던 그 모습

아, 당이어 정녕 나에게 그대는
이 세상 가장 고마운 운명의 하늘로 안겨왔나니
천길 수직갱 동발나무아래서
아버지가 목매여 터친 송가의 후렴구를
심장으로 따라부르며 나는 알았어라
그대의 붉은 기폭아래선
막돌로 버림받을 인생이 없고
눈물속에 시들어버릴 인생이 없음을

오, 사랑으로 천만을 묶어세운 당
믿음으로 천만을 이끄시는 당
경애하는 원수님 대를 이어 펼쳐시는
인간사랑, 인간믿음의 따뜻한 기폭아래
당이어 나에게 그대는
어제도 오늘도 어머니!
천만년 흐른대도 영원한 어머니!
그 품에 운명을 맡긴 이 나라 천만사람들
심장을 합쳐 웨치나니
이 어머니없이 우린 못살아!



미곡별의 가을

변 월 녀

(전호에서 이음)

4

그날도 이런 가을날 이른새벽이었다. 우유빛안개를 먼사포처럼 두른 미곡별의 벼바다가 소슬바람에 조용히 일렁이고있었다.

송현심은 논판에서 돌피잡이를 하고있었다. 농장원들이 참빗질하듯 훑은 논이지만 그래도 벼이삭들 속에서 숨박꼭질을 하는 돌피들이 더러 있었다. 이른새벽 포전을 돌아보는것으로부터 하루일을 시작하군 하는 현심으로서 그 돌피 하나라도 그냥 보아넘길수가 없었다.

그가 새벽이슬에 더더욱 무거워진 벼이삭들을 헤가르며 또 한대의 돌피를 뽑는데 문득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 저 논판에 사람이 있구만.》

《?...》

이른새벽에 무슨 사람들일가싶어 고개를 돌려 안개속을 살피던 그는 깜짝 놀랐다. 벼이삭들을 잠재우듯 내려앉았던 짙은 안개가 바람에 굴뚝며 흩어지는데 햇빛이 내리는듯 환해지는 논머리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아, 어버이수령님!》

송현심은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달음박질치다가 함께 가자고 휘감기는듯 한 벼이삭과 두렁콩줄기에 걸쳐어 하마트면 어푸러질뻔 했다. 그렇게 덤벼치

면서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아 손등으로 연신 눈을 비비며 논머리만 쳐다보았다.

《아, 천천히... 그러다 다치겠소.》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마주오시는데 한발 앞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벼대들과 콩대들이 엉킨 논두렁에 길을 내고계시었다.

송현심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격정이 마구 솟구쳐 올랐다. 지금껏 농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전 관리위원장들이 못내 부러웠던 그였다. 그런데 오늘은 다름아닌 바로 자기에게 그런 영광이 차례지게 된것이다.

수령님과 장군님앞에 이른 그는 어깨에 멘 다래끼를 벗어놓을 생각도 못하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어버이수령님, 제가 여기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현심입니다.》

그러고나서야 그는 이슬에 화락하니 젖은 자기 옷주체와 다래끼를 메고있는 차림새를 의식하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확 붉혔다. 수령님께서 그때까지도 돌피를 쥐고있는 송현심에게 웃으며 이르시었다.

《그 돌피를 어서 다래끼에 넣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포전에 나와 돌피잡이를 하는 관리위원장을 만나니 반갑소.》

《어버이수령님, 온 나라 인민들이 오로지

수령님께서 건강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찬이슬을 맞으시며... 포전에까지 나오십니까. 우리 농장원들은 아직 출근도 안했는데... 수령님께서 언제 떠나시었으면 그 먼길을 벌써...

송현심은 걱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끝내 이어내지 못했다. 대신 흐흑- 하는 흐느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얼른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장군님께서 젖은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서해안지구 농사작황을 보러 가시다 미곡부터 먼저 둘러보자고 하시었소. 어서 수령님께 농사실태를 말씀드리시오.》

그제야 송현심이 손을 내리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령님께서 만족하신 눈길로 논벌을 둘러보시었다.

《농사를 잘 지었구만. 이게 〈평원2〉호가 맞지?》

《그렇습니다.》

송현심은 수령님께서 대번에 벼의 품종까지 가려 보시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몇발자국 떨어져 세워져있는 표말둑앞에까지 가시어 주의깊게 들여다보시었다.

《음, 모내기도 제때에 했고 비료주기도 품종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했구만. 이곳 토양의 특성에도 맞게 했소. 〈평원2〉호는 우리 시험포전에서 수확이 높은편이었지.》

수령님께서 허리를 펴시고 장군님을 돌아보시었다. 장군님께서 공정을 표시하시었다.

《그렇습니다. 〈평원2〉호는 수확량은 꽤 많은데 대신 땅에 대한 낫가림이 심하고 비료흡수율이 좀 약합니다.》

《웁소. 〈평원2〉호는 파악이 있는 품종이요.》

고개를 끄덕이신 수령님께서 옷자락에 휘감기는 벼이삭들가운데서 한이삭을 뽑아드시었다.

《〈평원2〉호가 우리 관리위원장이 가꾼 미곡벌에서는 몇알 달렸는가 보자구.》

송현심의 가슴속에서는 또다시 뜨거운것이 왁작 솟구쳐올랐다.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분들께서 몸소 저택시험포전에서 벼를 재배해보시며 쌀생산을 두고 것처럼 마음쓰신다는 한없는 감동에서였다.

송현심은 어쩐지 자기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있는것 같은 자책감을 느끼며 조심히 말씀드렸다.

《올해에 이 〈평원2〉호는 이삭당 305알부터 312알까지 달렸습니다. 무게는 30그램부터 32그램까지 나갑니다.》

《그래?》

수령님께서 대견한 눈길로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었다.

《우리 미곡벌이 어떤 주인을 만났는가 보시오. 이 동무는 한이삭에 벼알이 몇알이며 몇그램 나가는가 하는것까지 다 알고있소. 좋은 일이요... 그럼 이 이삭을 좀 볼가.》

수령님께서 벼이삭을 한알 또 한알 세여보시다가 도리를 저으시었다.

《안되겠소. 잘 보이지 않누만. 관리위원장이 세여보라구.》

벼이삭을 받아든 송현심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한알 두알 벼알을 세느라니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내기 위해 봄내 여름내 들판에 사는 농장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그 궁지와 보람을 가슴뿌듯이 맛보게 하시려는 다심한 사랑이 파도처럼 안겨온것이였다.

이윽해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 이 이삭엔 벼알이 314알 달렸습니다.》

《저런, 관리위원장이 먼저 말한 312알보다 두알이나 더 많구만. 응? 장해. 이만하면 정보당 8톤을 넘어서겠구만.》

《예, 예상수확고를 판정해보니 8톤 255키로그램이 나갔습니다.》

《대단해. 관리위원장이 농사를 잘 지었어.》

수령님께서 못내 만족해하시며 또다시 송현심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었다.

《수령님!》

송현심은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것이 너무도 행복하여 자꾸만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닦다가 그만 손을 흠칫 멈추었다. 수령님의 밤색구두에 얼룩진 흙탕물을 보았던것이다. 가슴이 찢어질듯 송현심은 그 흙탕물을 닦아드리려고 얼른 목수건을 풀었다. 그가 막 허리를 굽히려는데 어느새 아시고 수령님께서 그의 팔을 잡아일으키시었다.

《일없소. 동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절 다니며 가꾸는 포전의 흙인데 좀 묻으면 뭐라나. 허, 우리 관리위원장이 일만 잘하는줄 알았는데 울기도 잘하누만. 그렇지?》

송현심이 부끄러움을 못이겨 얼굴을 붉히자 수령님께서서는 정겨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미곡협동농장은 여러번 다녀갔지만 오면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면 그리워지는 정이 드는 고장이요. 몇해전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소련대표단 단장과 함께 여기 미곡협동농장을 참관하면서 저 과수원에 올라갔댔소. 그는 미곡벌을 바라보면서 〈수령님,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에 집을 한채 짓고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소.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은 나도 간절하오. 이 고장에 와보는 사람마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 미곡땅은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요라고 말해줬지.》

수령님께서서는 방금 솟아오르는 아침해빛에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미곡벌과 과일이 주렁진 과수원, 산기슭을 따라 오בות하게 둘러앉은 농장마을을 호숫해서 둘러보시었다.

《미곡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여 오늘 이렇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의 락원을 꾸려놓았소.》

《수령님.》

송현심은 이 모든것은 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목이 짹 메여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해방전만 해도 이 미곡땅은 사람못살 고장으로 소문이 났었다. 마실 물조차 없어 고인물을 독에 넣어 양금을 앓힌 다음 먹어야 했고 다음해농사를 위해 가으내 논판마다 물을 잡아놓아야 하니 아이들은 배 아닌 함지배를 타고서야 동네방네 나다닐수 있었다. 그 《수중촌》이 바로 미곡벌이었고 토질병에 신고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미곡사람들이었다. 그러던 미곡벌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신 1960년대부터 소리치며 일떠서기 시작했다.

해방전 정보당 논벼 1톤이 고작이었던 《수중촌》의 기막힌 농사형편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오래동안 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별가운데 있는 《수중촌》농가들을 산기슭에 옮겨 현대적인 문화주택마을로 꾸

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수도화도 실현하도록 해주셨으며 논벼농사방법까지 일일이 깨우쳐주시었다. 이 미곡땅을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비오는 날에도 오시었고 눈내리는 날에도 들리시였으며 봄에도 오시었고 가을에도 찾아오시었다. 모내는기계도 제일먼저 보내주시고 트랙토르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돌려주시었다. 그러시고도 이렇게 잘 꾸려놓은것이 미곡사람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치하해주시는것이였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선 안돼. 관리위원장, 미곡땅을 더 멋있고 훌륭하게 꾸려야 해. 농사도 더 잘 짓고... 미곡벌에서 정보당 10톤만 내면 통장훈을 부를수 있소. 예로부터 농민들이 잘살아야 온 나라가 잘산다는 말이 있소.》

《알겠습니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우리 미곡리를 더 잘 꾸리겠습니다. 농사도 더 잘 지어 정보당 10톤을 꼭 내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앞으로 미곡협동농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송현심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그랬다. 그때는 수령님과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샘물집로인이며 청년작업반 반장은 장군님께서 꼭 오실것만 같아 별찌가 내리는것을 보고서도, 세쌍무지개가 비낀것을 보고서도 그 경사를 고대하군 하는데 정작 그이께서 오시면...

송현심은 자기도 모르게 눈길을 떨구었다. 이제는 사회주의경쟁예비판정결과가 장군님께 보고되었을수도 있었다. 장군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경쟁이기때문이었다.

송현심은 가슴이 미여지는듯 한 아픔을 어찌할수가 없어 논두렁을 따라 처럭처럭 발길을 옮겼다. 단단히 문제를 세우겠다고 버르던 농업성일군의 표표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섭섭해하셨을가. 그토록 일 잘하라고 하셨는데...

송현심의 두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이 무슨 죄되는 일인가. 왜 여태 우리 미곡땅에 맞는 종자를 육종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두벌농사를 팡팡 지

어 우리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을까?

어느덧 세쌍무지개가 비졌던 하늘에 아침해가 떠오르며 눈부신 빛을 누리며 뿌리기 시작했다. 비물에 씻겨 한껏 청신해진 비이삭들은 더욱 진한 색조를 띠고 해빛에 번쩍거렸다.

이제는 빨리 가서 하루사업조직을 해야 했다. 송현심은 관리위원회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다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예감에 뺨 머리를 돌렸다. 순간 평양으로 이어진 별판 한가운데길로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해빛에 차체를 번쩍거리며 달려오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보통차들이 아니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꿈이 아닌가싶어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그것은 틀림없었다.

《아!》

송현심은 갑자기 심장이 쿵쿵 세차게 뛰는것을 느끼며 두손을 포개어 가슴우에 얹었다.

5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용차에서 내리시자 급히 달려와 인사드리며 송현심을 비롯한 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잘들 있었소? 관리위원장, 전번엔 겨울에 왔다고 서운해했었지. 내 그래서 오늘은 품을 놓고 미곡벌의 가을을 보러 왔소.》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송현심은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목멘 소리를 했다.

장군님께서는 흐뭇한 눈길로 농장건물들과 마을살림집들 그리고 황금들판을 둘러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리도 정을 기울이시던 미곡땅이었다. 태양의 그 미소가 오늘도 해빛처럼 비치는 이 풍년벌, 귀기울이면 수령님께서 하셨던, 오면 떠나고싶지 않고 떠나면 그리워지는 정이 드는 고장이라고 하시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올듯싶으시었다.

바로 그토록 뜨거운 사연이 깃든 이 미곡땅을 가꾸느라 저 송현심이네는 또 얼마나 많은 땀을 바쳐왔을것인가. 아련해보이지만 손탁이 세고 승벽심이 강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송현심. 어느 농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것을 알면 밤중에라

도 백리고 천리고 달려가 그 방법을 배워와서는 자기 농장 실정에 맞게 적용하군 하였고 붉은눈알기생벌이 병해충구제에 좋다는것을 알자 또 수백리길을 오가며 기어이 그것을 구해다 미곡벌농사에 도입했다고 한다. 벼농사는 물론이고 남새농사에서조차 산에서도 새롭고 실리가 나는것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다고 했다.

이런 그가 이번에 두벌농사때문에 문제가 서게 되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미곡땅으로 오신 그이이시었다.

《미곡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올해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과 벼섯종균배양장을 새로 건설하고 대형양수기를 설치하여 큰장마에도 고인물피해를 받지 않게 했다니 정말 일을 많이 했소. 그런데 이 미곡벌의 가을풍경은 어디서부터 보아야 하오?》

송현심은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장군님을 모시고 온 정영섭을 얼핏 쳐다보기까지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분명 이 송현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것을 알고오셨겠는데 조금도 내색을 앓으시고 오히려 칭찬만 하시기때문이었다.

송현심은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어서 안내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신다. 송현심은 가슴이 확 달아올랐다. 제기된 문제 때문에 남몰래 속을 썩였을 이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다심하신 아버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얼른 훔치고나서 생각을 굴렸다. 어디서부터 보여드릴까? 새로 꾸린 문화후생시설부터 보여드릴까? 도마도, 수박, 참외에 부루, 썩갯, 오이들이 주렁진 태양열온실 아니면 새로 개건한 상점?... 이미전부터 장군님께서 오시면 어떤 로정을 잡을것인가를 많이 생각해왔지만 정작 몇몇치 못한 처지에서 그이를 모시고보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송현심의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신듯 장군님께서 크게 웃으시었다.

《오늘은 우리 미곡관리위원장 자랑주머니가 터지게 다 보지요. 관리위원장, 앞서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송현심은 친정아버지를 새로 꾸린 자기 집에 모시는 딸처럼 신바람이 나서 한걸음 나섰다. 장군님께서는 활기에 넘쳐 안내하는 송현심이와 나란히 걸으시며 은근히 물으시었다.

《딸은 언제 제대되요?》

《예?》

송현심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걸음까지 멈추었다. 관리위원장으로 사임한지 이제는 2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이렇게 자기 가정사에 관심을 두는이는 없었던것이다. 보다는 그이께서 자기 딸이 군사복무를 한다는것까지 알고계시는것이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송현심은 그이의 다심하신 어조에서 풍기는 따뜻한 육친의 정을 온몸이 후덥도록 받아안으며 무릅없이 말씀드렸다.

《래년봄이면 제대됩니다.》

《음, 관리위원장은 곁에 딸이 있어야 해. 농사 때문에 뛰여다니다가 저녁늦게야 집에 들어가곤 하겠는데... 썰렁한 빈집에 들어가 혼자 저녁밥을 해먹기가 싫을거란 말이요. 그냥 끼니를 번질 때가 많았지?》

송현심은 그만 가슴이 몽클해졌다. 장군님께서 이 평범한 녀성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다 헤아려주시길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그는 울음섞인 어조로 겨우 말씀드렸다.

《장군님, 전... 하나도 일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넘려해주시는데 전... 전... 두벌 농사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저를 처벌해주시시오.》

장군님께서는 헉헉하게 웃으시었다.

《제멋대로 두벌농사면적을 줄였다는것 말이지. 어떤 처벌을 주겠는가는 두고보자구. 그건 그렇구... 저 상점부터 들러보자구. 언제인가 수령님을 모시고 들렀던 생각이 나는데 멋있게 개건하였구만.》

푸른 가을배추가 소담하게 자라고있는 남새밭을 지나 현대적인 2층짜리 미곡상점에 먼저 들리신 장군님께서는 애어린 처녀판매원의 인사를 받으시며 해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리는 매장과 진렬해놓은 상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었다.

《인민들의 생활용품이 얼마나 되요?》

장군님께서는 50종이 넘는다는 판매원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된장과 간장, 소금 등 기초식품들의 공급정형을 알아보시고 손수 《정방산》상표를 붙인 병졸임통을 들어보기도 하시었다. 그러시다가 매장에 놓여있는 장화를 가리키시었다.

《저 장화목이 유별나게 높구만.》

송현심이 또박또박 그 사연을 말씀드렸다.

《우리 미곡별은 논판이 깊기때문에 장화목이 높지 못하면 물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공장에 따로 주문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하고있습니다. 목이 긴 장화는 물관리공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목이 낮은 장화는 처녀들의 외출장화입니다.》

그이께서는 낮낮이와 색깔이 서로 다른 장화들을 손에 들어보시고 매장에 놓았다가 목이 긴 장화를 다시 들어 정영섭에게 넘겨주시었다.

《동무도 좀 들어보오.》

정영섭은 장화를 들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서도 말씀의 뜻을 알수가 없는듯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 장화를 부판에게 주시며 신어보라고 이르시었다.

《이 문수가 동무 발에도 맞을게요.》

부판은 장화를 신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목에 바지가랭이를 밀어넣었다. 그다음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모아 차렷자세를 취했다.

《그럼 한번 걸어보오.》

장군님께서는 얇은 얼음장을 밟고가듯 조심히 걸음을 옮기는 부판에게 물으시었다.

《어떻소, 장화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소?》

《좀 무거운것 같습니다.》

《무거운것 같은게 아니라 무겁소. 비를 맞으며 이 장화를 신은 우에 비옷까지 입고 논판에서 일할 농장원들을 생각해보시오. 발이 푹푹 빠져드는 논판에서 얼마나 일하기 불편하겠소. 공장에 말해서 대책을 세워야겠소.》

이윽고 비옷을 펼쳐드신 장군님께서는 팔소매를 들어보시고 단추까지 벗겨보시었다.

《비옷의 겨드랑이에는 꼭 공기구멍을 내야 하오. 무더운 여름철에 비옷속의 습기가 제때에 빠지지 못하면 건강에 해롭소. 관리위원장, 장화와 비옷은 농장원들에게 다 골고루 차례지오?》

송현심은 농장원들에게 필요한 비옷과 신발을 호수별, 문수별로 받아오기때문에 다 골고루 차례진다고 말씀드렸다.

《관리위원장은 신발의 문수별 수자를 다 알고있소?》

《알고있습니다.》

송현심이 문수별 수자를 자신있게 말씀드리자 그의 존안에는 대견해하는 미소가 가득넘쳤다.

《음, 농장원들의 신발문수까지 다 알고… 대단 하오.》

3년전 겨울 다락집을 돌아보실 때 한 일군이 관리위원장은 농장원들의 한마디한마디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있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시였다. 그리고 군대에 간 미곡밭의 새 세대 청년들과 맺고있는 관계도… 그러니 송현심은 홀로 살면서도 한 가정의 생활의 향취를 이 미곡밭의 대가정으로 이어놓고 살고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점안을 둘러보시며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예로부터 밀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정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 좋은 상품들이 상점들에 꽂차고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 미곡상점엔 우리 나라 상품만 꽂차있고 다른 나라 상품이 없는것이 마음에 듭니다. 미곡상점은 만점짜리 상점입니다.》

그이께서는 이어 살구동네를 돌아보시고나서 청년작업반포전으로 향하시였다.

송현심은 가슴이 철렁해지고 얼굴이 뻘뻘 달아올랐다. 끝내 그 불미스러운 포전을 장군님께 보여드리게 된것이다.

죄스러운 표정으로 안내하고있는 송현심을 따라 포전머리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채 여물지 못한 연푸른색벼이삭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눈으로 가까이 다가가 벼알을 하나 밟아보시고는 송현심에게 은근히 물으시였다.

《관리위원장, 눈물깨나 흘렸지?》

송현심은 두손을 앞에 모두어쥔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먹울먹거렸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윽도록 송현심을 바라보시다가 이 포전의 주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어제 밤 포전에 나와 비설것이를 하느라 껌박 새웠기때문에 오전에 휴식을 주었는데 그들은 아침식사를 하고 지금 과학기술선전실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을 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더 말씀을 얹으시고 다음포전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여기는 농사가 잘되었구만.》

송현심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정영섭을 얼핏 스쳐보고나서 송구스레 말씀드렸다.

《이 포전엔 앞그루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정당수확고는 얼마요?》

송현심의 구체적인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손수 벼이삭들을 만져보시였다. 깔끄러운 벼이삭들이었지만 여기에 깃든 송현심이네들의 수고와 지성이 헤아려져서인지 손맛이 포근하고 부드럽게까지 느껴지시였다.

《〈서해찰2〉 호로구만.》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길을 드시였다. 논판이 꺼지도록 무겁게 실린 벼이삭들이 가을바람에 굼실대며 어리광치듯 옷자락에 감겨들었다. 그이께서는 이윽도록 흐뭇한 심정으로 그 정경을 관망하신 다음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였다.

《자, 이젠 미곡협동농장의 두벌농사문제를 토의해봅시다. 관리위원장은 두벌농사계획수행률을 미달한것때문에 이번 정경총화에서 자기비판을 하게 되었는지?》

송현심은 얼굴이 질려서 자책어린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가 우리 농장토양의 특성에 맞는 두벌농사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해서 그만…》

장군님께서는 해별과 들바람에 마르고 튼 송현심의 입술과 별에 타 감실감실해진 얼굴을 그윽한 눈길로 보시다가 정영섭에게 물으시였다.

《정동무는 여기 미곡별토양의 특성을 알고있소?》

정영섭이 조심스럽게 대답올렸다.

《예, 여기는 대부분이 해하성충적지입니다.》

《웁소. 재령강의 밀물과 썰물이 수수만년을 나들면서 이루어놓은 해하성충적지요.》

송현심은 다시금 놀랐다. 장군님께서 어느 누구도 귀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던 이 미곡밭의 토양특성을 이처럼 중시하시는것이다. 이 미곡밭이 태어나게 된 그 력사까지 알고계신다.

장군님의 안광이 번쩍 빛났다.

《관리위원장, 여기 어디 삽이 없소?》

한 농장일군이 뛰어가 삽을 가져왔다. 장군님께서는 삽을 드시고 논두렁으로 오가시며 무엇인가를 가늠

하시다가 눈물을 뿜느라 도랑을 만들었던 자리에
삽을 박으시었다.

《제가 파겠습니다.》

부판이 얼른 삽을 받아들었다. 그다음 팔소매를
건어붙이고 헹헹 입김을 불며 논흙을 파제졌다.

장군님께서 정영섭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
시고는 벌써 물이 질벽하게 고이기 시작하는 구멍
이를 가리키시었다.

《보시오, 물층이 얼마나 높은가. 가을철에도 이
렇게 물층이 높는데 장마철이면 더 불어날게 아니
겠소.》

송현심은 그만 눈곱이 달아올랐다. 장군님께서
두벌농사포전의 벼이삭들이 왜 아직 머물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계시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힘을 주
어 말씀을 이으시었다.

《물층이 높아지면 7~8월 장마철에는 뿌리에 산
소공급이 잘 안되어 뿌리썩음병에 걸릴수 있소. 그
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미곡벌에서는 벼꽃이
필 때 중간물말리기를 해보라고 하시였소. 3일간
논판의 물을 말리었다가 다시 물을 대는 방법으로
환원장애를 극복하라고 말ियो. 이런 땅이여서 앞
그루로 밀보리를 심으면 기껏해서 1~2톤밖에 내지
 못하고 그 앞그루때문에 모내기가 늦어지면 저 부
흥틀처럼 여물물이 떨어져서 오히려 정보당수확고
는 손해를 보게 되오. 그렇지, 관리위원장?》

아, 어쩌면 장군님께서는 것처럼 속속들이...

《장군님!》

송현심은 겨우 이렇게만 뇌이고는 두손으로 급기
야 얼굴을 가리웠다. 눈물이 견잡을새 없이 흘러내
렸다. 왕왕 소리라도 내어 울고싶었다.

장군님께서 정영섭에게 근엄한 어조로 말씀하
시었다.

《미곡벌과 같이 비옥도가 높은 해하성충적지는
심중히 타산해보고 알곡생산계획을 주어야 하오.
이 땅에 알맞는 종자와 농사방법이 아직 서지 않았
는데 무작정 두벌농사면적을 늘이라고 하면 어떻
게 하는가? 두벌농사도 쌀을 많이 내자고 하는것인
데... 미곡에서는 새로운 두벌농사방법부터 찾아내
야 하는거요.》

송현심은 장군님앞에서 울지 말자고, 울어서는
안된다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자꾸만 쏟아

아지는 눈물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지금껏 홀로 속
을 썩이며 참고참았던 눈물이 동을 터뜨리며 한꺼
번에 다 쏟아져나오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좀처럼 진정을 못하는 송현심을 이
윅히 쳐다보시다가 정영섭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정영섭은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일을
적으로...》

《잘못했지, 잘못했소. 무엇을 잘못했는가?》

장군님의 음성은 저으기 격하게 울리시었다.

《동무네는 저 관리위원장이 동무네 말을 잘 듣
지 않는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왜 안 듣는지 그걸 생
각했어야 했소. 농장원들의 말은 스쳐지나가는 한
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는 관리위원장이 왜 동무네
말은 〈코대〉가 높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안 들
었는가.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요.

하다면... 동무네 왜 이 관리위원장의 말을 안 들
었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때문에?

농사는 농사를 하는 농장원들이 주인이요. 자기
가 다루는 땅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농민입니다.
그런데 동무네는 밑에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려 내려가는것이 아니라 동무네가 책상머
리에서 작성한 그 계획을 내려먹이려 내려가고있단
말ियो. 그들의 진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실정에 맞든 안 맞든 순수 행정실무적으로 내려먹
이기만 했소. 자기들만 당의 의도를 더 잘 아는듯
이... 생각해보시오, 이 관리위원장이 동무네 말을
고분고분 들으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였다면 비판무
대에 올라서지 않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 한
알이라도 더 내야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
다. 이 미곡땅에 알맞는 종자와 농사방법이 아직 없
기때문에 따지고 또 따져보다가 부득이하게 그 길을
택했습니다.

너성이 비판받을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다니 혼
자 눈물은 얼마나 많이 흘렸겠고 속은 또 얼마나
앓았겠습니까. 결국은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기때문에 나라쌀독을 채우는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당 10톤이상을 내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였습니다. 자, 그럼
진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장군님, 제가... 제가 비판을 받겠습니다.》

정영섭은 죄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

었다.

자기가 아래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방법론을 세우지도 못한채 두벌농사가 중요하다면서 일률적으로만 내민탓이었다. 언제나 앞선 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글타글 뛰어다니는 송현심을 너무도 잘 알기에 단단히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두벌농사도 능히 될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바로 그런 송현심이가 두벌농사면적을 조절해달라고까지 할 때에는 그럴만한 조건이 있어서라는것을 생각 못했다. 결국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만 당의 의도를 잘 아는듯이, 자기만 원칙이 있는듯이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아픈 눈길로 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명심하시오, 동무들이 당의 의도라면서 그렇게 무턱대고 내려먹이기 시작하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떨어뜨리게 된다는걸 말ियो.

협동농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에서는 두벌농사 계획수행률과 알곡생산장성률을 기본으로 평가할것이 아니라 정보당수확고를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령님식계산방법입니다.》

그러시고는 몇걸음 거니시다가 안타까우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정동무야 이 관리위원장을 잘 알지 않소. 그러니 이 동무의 마음속 고충도 잘 알고있었을게 아닌가. 남편도 없이 아들딸을 다 군대에 내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오직 농장만을 위해 아글타글 뛰어다니는데 그걸 봐서도… 그래서야 안되지.》

송현심은 더는 참을수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장군님을 목매여 부르며 그이의 품에 안겼는지 알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세차게 들먹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갈린 어조로 뇌이시었다.

《두벌농사방법은… 우리 함께 찾아내자구. 그래야 정보당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어.》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 꼭… 꼭 두벌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겠습니다.》

장군님을 우러러 맹세를 다지는 그의 음성은 눈물에 푹 젖어있었다.

×

…쌓이고쌓인 그리움을 터치며 달려오는 미곡벌 농민들의 마음인듯 좌— 하고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황금파도가 물결친다, 물결쳐온다. 파도치는 황금빛벼바다우에 백학들이 너울너울 날아연다. 파일향기 풍겨나는 파원엔 가지가 휘도록 열매들이 주렁지고 미라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문화주택들은 두루미떼가 내려앉은듯 눈이 부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살구동네등성이에 있는, 울긋불긋코스모스가 만발한 휴식터에서 미곡벌의 풍만한 가을풍경을 부감하시며 정말 멋있다고, 이런 풍경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보시오, 오곡백과 무르익은 협동전야와 파수밭들, 아담한 살림집들,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후생시설들과 공공건물들을… 저 풍경은 다름아닌 선군시대의 창조물이고 상징입니다. 선군시대는 바로 사람들뿐아니라 산천과 마을, 협동전야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회한한 풍경으로 천지개벽을 하는 아름다운 시대, 위대한 변혁의 시대입니다. 지금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선군9경으로 불리우고있는데 이 농장의 풍요한 가을풍경까지 포함시켜 선군10경으로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

송현심은 자꾸만 숫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이 미곡벌의 가을은 바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꾸어주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겨운 눈길로 송현심을 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관리위원장이 수고했지. 이 미곡사람들이 수고했고… 정말 볼수록 그림처럼 아름다운 가을풍경이요. 자, 그럼 우리 풍년든 미곡벌을 배경으로 다같이 사진을 찍자구.》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송현심은 너무도 기뻐 아이들처럼 손벽까지 마주쳤다. 장군님께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송현심을 옆에 불러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러시고도 아직 무엇인가 부족한듯싶어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관리위원장을 바라보시었다.

《내 이제 관리위원장에게 무엇을 더 해주면 좋을가?》

《장군님, 저는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송현심이 눈물이 함뿍 고여오르는 얼굴을 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도리를 혼드시었다.

《아니야, 관리위원장은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참, 이제 함께 도예술극장개관식에 가서 좋은 공연을 보는게 어떻나?》

송현심은 놀라서 그이를 우러르다가 결의 일군들을 결눈질하며 수줍게 얼굴을 붉혔다.

《그 개관식에야... 중앙에서 온 간부들이 가겠는데 제가 어떻게...》

《그럼 관리위원장도 중앙기관 일군이라고 하자구.》

《예?》

현심의 눈이 휘둥그레지자 장군님께서서는 정영섭을 돌아보며 짐짓 심각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어떻소, 정동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가?》

순간 정영섭은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며 두눈을 습벅거렸다. 이번 문제로 서로 야속하게까지 생각했던 자기와 송현심이와의 관계마저 헤아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는것이 뜨겁게 안겨왔던것이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정영섭이 가슴을 짝 펴며 큰소리로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즐겁게 웃으시었다.

《정동무가 제일 좋아하누만. 하긴 정동무는 항상 저 관리위원장을 내세우지 못해 몸살을 앓는 사람이니까.》

그러시고는 송현심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관리위원장, 사실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송현심이 일 잘하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중앙농업지도기관에서 쓰게 해달라는걸 내가 안된다고 했댔소. 여기 미곡엔 송현심이가 꼭 있어야 하기때문이요. 어때 현심이, 섭섭하지 않아?》

송현심은 가슴에 불덩이를 안은듯 온몸이 화끈달아오름을 느끼며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전 이 미곡벌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농사를 짓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시여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고맙소, 고마와. 그렇지만 오늘만은 관리위원장이 아니라 중앙기관 일군이라고 하자구. 어떻소, 동무들?》

《좋습니다!》

일군들이 즐겁게 웃으며 힘껏 박수를 쳤다. 장군님께서서는 송현심의 팔을 가볍게 툭 치시며 속삭이듯 말씀하시었다.

《어려워말라구, 나하고 같이 가면 돼. 난 늘쌍 농사걱정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동무에게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고싶소. 미곡벌의 가을과 같은

풍만한 생활을 맡이요.》

잠시후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도예술극장으로 향하는 송현심의 눈에서는 눈물이 견잡을새 없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모두 초소에 떠나보낸 한 녀성일군의 생활적공간을 것처럼 다심히 헤아려보시고 마음속 고충까지 다 풀어주시면서 노래를 주고 웃음을 주고 생활의 단점을 아니,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주고싶어하시는 친어버이사랑이 늘 들에서 살아온 그를 그토록 울리고있었던것이다.

×

그때로부터 2년하고 녀달이 흘러갔다. 그사이 송현심이네는 정영섭을 비롯한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끝끝내 미곡벌의 특성에 맞는 두벌 농사방법을 찾아내어 통장훈을 부르고야말았다. 하지만... 너무도 뜻밖에 당한 억이 막힌 민족의 대국상 앞에서 뼈아픈 슬픔과 눈물로, 사무치게 간절한 그리움으로 날과 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때, 어버이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이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로 이 풍경화를 내려보내주신것이다. 장군님께서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하시며 선군10경으로 불러주신 미곡벌의 가을풍경...

연혁소개실에 전시한 《미곡벌의 가을》을 보고 또 보던 송현심이 옆에 서있는 정영섭에게 목멘 어조로 속삭였다.

《어버이수령님들께서 무르익히신 가을이예요. 저 풍요한 가을속엔 바로 저의 복된 삶도 있어요.》

정영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관리위원장동무뿐이겠소. 이 정영섭이도 마찬가지지. 아니, 우리 인민모두의 삶을 저 가을처럼 한껏 무르익혀주신 장군님의 한생의 로고마저 그림속에 깃들어있는것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풍경화앞에서 떠날줄 몰랐다. 깊은 추억과 뜨거운 감회속에 잠겨있는 그들가운데는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청년작업반 반장도 그리고 살구동네 조로인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풍경화 《미곡벌의 가을》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이 땅우에 영원할 가을풍경을 베풀려 흥분속에 바라보고있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로동계급은 자본의 철쇄를 마스기 위한 투쟁에 나선 첫시기부터 시를 전장에 올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 와도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한 전투적무기로 삼아왔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문학의 창작방향은 명백하다. 문제는 시인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감을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심장을 불태우는가 하는데 있다.》

그래서 병사라네

김 남 수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다
불붙는 집에 뛰어들라고
했어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인민의 생명재산을 건져내었다
그래서 병사라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다
사뭇치는 강물에 뛰어들라고
했어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어린 아이를 안아내왔다
그래서 병사라네

병사!
그도 인간일진대
어이 생에 대해 생각지 않으랴
했어도 인민을 위해 바쳐야 하는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이기예
그 길에 생명도 아낌없이 내뒀다
그것은

가 사

명령보다도 강렬한것이기예

군대 아니면 어찌랴
군대없인 못살아
걱정에 젖은 인민의 목소리
여기저기서 울리는데
병사의 얼굴엔 홍조가 피네
마치 남이 받아야 할 칭찬을
받기라도 한듯

부디 이름이라도 대라고
줄라대며 잡은 손목 못 놓는 인민앞에
빙그레 웃으며 나선 병사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입니다!
시원스레 경례하고 돌아서네
그것은 영예이기 전에 병사의 의무이기예
손저어 웃으며 떠나가네
그래서 병사라네

우리의 하루

리 진 협

아침마다 이 가슴에 안기여오는
태양처럼 눈부신 원수님모습
하늘도 밝아라 마음도 밝아라
일터에로 가는 길 걸음도 훨훨
해종일 일손도 흥겹습니다 흥겹습니다

힘이 나는 원수님의 소식 들으면
눈비와도 즐거운 인민의 마음
행복은 넘쳐라 앞길은 밝아라

래일에도 이 기쁨 오려니 훨훨
그 언제나 삶의 희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우리 삶의 날과 달은 희망넘쳐라
해빛으로 눈부신 우리의 하루
광휘로워라 창창하여라
밝은 미래 마중와 마음도 훨훨
만복의 소원이 꽃피납니다 꽃피납니다



어머님은 동구밖에서 계신다

변영건
그림 함준혁

1

허연 안개에 묻힌 초가을의 풍만한 대지가 아직
군잠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이른새벽이었다.

《이랴!》

짜증섞인 고향소리가 어데선가 들려온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런속 소잔등을 때리는 회초리소리도
또렷이 안개속을 파고든다. 그 등성이를 끼고 돈
길에 승용차 한대가 떴어있었다.

차문이 열리자 기다렸던듯 서리서리 안개발이 엉
켜드는 속에 회색양복을 입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뚱 나서시었다.

《이 전달동이! 네가 찌를 부린다구 이 벼바리를
안 끝상싶으나!》

수령논에서 뒤편 용을 쓰다가 빠져드는 달구지바
퀴를 가늠하고는 멍에를 벗어던지려고 요령을 부려
보는듯싶은 애황소에게 회초리와 욱을 안기는 농민
의 목소리가 길 가까운 곳에서 그냥 들려왔다. 안
개너머 그 소리난쪽을 가늠해보시는 **김일성**동지의
존안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어 그이께서는
중절모를 벗어 허리를 굽혀 차 안좌석에 놓으시며
양복의 단추 두개를 풀어놓으시었다.

《저러다 소를 잡겠구만.》

그이께서는 어느새 걸음을 놓으시며 팔소매를 거
두어올리시었다. 두 일군이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땅이 내뿜는것 같은 안개발이 그이의 걸음을 멈추

어보고싶은듯 앞으로도 다가들고 바지가랭이로도
막 물어들었다. 그이께서 물기축축한 눈에 들어서
시려는 순간 일군들이 막아섰다.

《장군님, 수령논엔...》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어질새가 없었다. 미처 말릴
사이없이 그이께서는 거무스레한 눈에 발자국을 쥔
으시었다. 그러자 긴 장화목을 푹 잡아끌며 우뚱
저들어간 감탕에서 공기방울들이 부그그 피어올랐
다. 저벽저벽 옮겨짚는 걸음마다 흙색은내가 서려
오른다. 드디어 그이의 시야에 소달구지의 멍에를
누르며 기운을 쓰느라 검붉은 힘줄이 땡땡히 살아오
른 농민의 목이며 자세가 안겨들었다. 그이께서는
말리는 일군들을 만류하시며 끝내 흙물이 푹푹 떨어
지는 달구지바퀴에 어깨를 들이미시었다.

일군들도 황황히 어깨를 갖다대었다. 그이께서
힘껏 떠미는 순간 뿔을 숙이려들던 황소가 멍에에
느껴지는 힘을 순순히 감당하며 용케도 감탕에 빠
져드는 발통을 내짚었다. 소가 혈한만큼 그이의 장
화목이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그이의 어깨에서는
검은 감탕물이 옷자락을 적시며 푹푹 떨어져내렸
다. 힘겹게 길에 올라서서야 《와, 와.》하고 소를
멈추며 농민이 고마운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이거 정말 고맙수다.》

서러도는 안개발을 헤집듯 다가들던 농민의 밝
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감탕물은 두손을 마주
비비는 양복입은분의 젊고 웅건한 모습에 농민은
두눈만 껌벅거렸다. 꼭 어디서 뵈온것 같은분이었

다. 아니, 그는 그분이 뉘심을 모르지 않는듯 했으나 새벽도 첫 새벽 달구지를 밀어주신분이 그분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농민들에게 소원이었던 땅을 안겨주신분, 그 땅을 뺏으러 달려든 미제놈들을 쳐부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아니?! **김일성장군님**!—》

농민은 꿈속에서런듯 한마디 더듬듯 웨치다싶이 하고는 황황히 뒤걸음 다가들며 그이 옷섶에 묻은 흙탕을 저고리팔꿈으로 닦아드리려 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현현히 웃으시며 농민의 그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아직 벼단을 거두어들이긴 이른것 같은데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게 아닙니까?》

농민의 고동색얼굴이 벌거우리해졌다.

《예, 저—어…》

그리곤 말을 갑자르며 손을 들어 벌개진 목덜미를 슬슬 어루쓸었다. 말하기 어려운듯 입귀만 실룩거리는 푸수해비는 농민의 꾸밈없는 표정에 장군님께서 저절로 정이 풀리는 감을 느끼시였다.

《저— 실은… 지난밤에 너편네가 몸풀이를…》

도간도간 이어지는 소리에 그이께서는 밝은 기색을 띄우시였다.

《그러니 얼른 쥘어 산모에게 대접하려구 이 새벽걸음을 하셨군요.》

그이께서 달구지우의 벼단에 손을 얹으시였다. 그리고 벼단의 벼이삭을 손으로 헤넘기시며 찬찬히 들여다보시였다. 마치도 벼알의 무게라도 가늠하시려는듯…

문득 그분의 시야에 고개를 뺏뺏이 쳐든 벼이삭 몇개가 띄어들었다. 장군님께서 손을 들어 총총히 머물지 못한 이삭들을 다시 만져보시였다. 그러시다 쪽정이벼알들을 두손가락으로 비벼도 보시였다. 도글도글하지 못한 희뿌연 쌀알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빛에 어두운 그늘이 비껴들었다. 그이께서 또 다른 벼단들도 보시였다. 그속에도 섞여진 쪽정이, 쪽정이…

그이께서는 몸을 돌려 달구지가 빠져나온 논벌을 바라보시였다.

《이곳 벼가 모두 이렇습니까?》

농민은 당황해났다. 그분께서 금시 논벌로 다시 들어서실듯만 싶었던것이다.

《아니, 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 이제…》

그리곤 그분 먼저 논벌로 달리다싶이 걸음을 내 걸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곁에 선 일군들을 이끄시며 논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 몇걸음도 걸으시기 전에 농민이 큼직한 벼단을 옆구리에 끼고 마주 달려왔다. 알알이 영글은 벼이삭이 농민의 허리춤에서 철썹철썹 소리를 내며 출렁이는 모양에 그분께서 웃음을 지으시였다.

《어디 좀 봅시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허리를 굽혀 그 벼단을 받아드시였다. 하나같이 잘 익은 벼이삭이 안겨들었다. 농민이 죄라도 지은듯 두손을 모두어잡고 황송한 자세로 아뢰었다.

《첫 바심인데… 그건 나라에 바칠려구…》

더듬더듬 뇌이며 말끝도 채 맺지 못하는 그 소리에 그이의 마음이 몽클하니 젖어드시였다. 재난의 3년간 제집농량보다 전선원호미보탬에 더 허리끈을 조이며 산 농민들.

해산을 한 안해를 위해서건만 그 잘된 논배미들의 벼만은 차마 먼저 다칠수 없어 수렁논의 잘 안된 벼를 실어들인단다. 분명 제땅에서 제 손으로 지은 낱알이건만 영근 낱알로 먼저 나라를 받들지 않는가. 그러고도 그 쪽정이벼를 보여드리게 된것 때문에 도리어 제가 송구해한다.

그런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에서 만나게 되시는 그이이시였다.

그래서 그이의 심중엔 더없는 행복감과 함께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해주고싶은 감정이 늘 함께 갈마들고계셨다.

그이께서 한걸음두걸음 논두렁길을 걸으신다.

벼단을 받아안은 농민이 종내 그분의 앞을 막아나섰다.

《장군님, 이러시면 전…》

농민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피어오른 그 무엇이 목구멍으로 쭉 밀려올라와 그만 말문을 툭 막아버렸다.

저벅저벅… **김일성장군님**께서 끝내 그 수렁논을 다시 뚫으시였다.

여기서도 알찬 벼이삭이 나왔더라면…

그이께서는 웃으며 물어주시였다.

《그래 산모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딸을 낳았습니까?》

그 물음에 농민은 더 몸둘바를 몰라 찢찢매였다.

새빠진 아낙네가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주려니 고대하던 지난밤이 떠올랐다. 토방에 돛자리를 깔고 꺼벅꺼벅 줄다가 계집애를 낳았다는 옆집녀인의 말에 그만 화가 나 남은 밤을 건넌집 마실방에서

보낸 그였다. 그러다 새벽골에야 집에 오니 옷목으로 돌아누워 꼴짝거리는 너편네의 정상이 하도 가궁해 편뜻 정신이 들었다. 쌀독에 키도 잘 안 차는 맏딸년이 그래도 동자질을 한다고 부엌에서 쌀을 퍼내느라 바가지 굵는 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그 박-박 하는 소리가 그의 어진 마음을 재촉했다.

그래서 날 푸름녘에 벼바리에 나선 길이었다.

논에 와선 처음 주춤거리기도 했다. 길옆의 잘된 벼 몇동가리를 훑령 신고올수도 있었다. 엽초를 말며 생각을 굴리던 그는 그냥 소를 몰아 수령논으로 갔다.

그런데 이렇게 **김일성**장군님의 귀한 옷자락과 곁에 흙탕칠까지 해드리고 또 근심까지 끼쳐드린 생각을 하니 태어난 셋째딸년이 밭광스럽게만 여겨졌다.

그래 겨우 대답을 올렸다.

《변변치 않은 딸년을 또 낳았나봅니다.》

춤춤이 꽃힌 벼그루를 바라보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눈길을 드시었다. 이어 그의 청청한 웃음소리가 안개발을 가벼이 훑날리며 새벽하늘가에 울려 퍼졌다.

《딸이라, 종군요. 폭풍우속에서 품어 자래운 딸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보시오. 불비를 걷어낸 이 땅에 꽃씨앗이 움텄습니다.》

그이께서 멀리 동편하늘을 바라보고계시었다.

《그 애가 자랄 이 땅, 그 애가 바라볼 이 하늘, 그 애를 품어줄 이 조국을 우리모두가 더 아름다운 새 나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튼튼케, … 높으게, … 빛나게! 이런 좋은 시구절처럼 말입니다. 그 땅에서 한송이 꽃으로 피여날 애의 앞날을 우리가 축복해줍시다.》

(어쩌면 저리도…)

농민은 눈귀로 축축히 흘러내리는것을 그냥 손으로 문지르며 눈부신 태양을 마주하듯 그이를 우러렸다.

그이앞에 농촌의 새 모습이 다가드는듯 안개가 걷히며 은빛으로 번쩍이는 해살이 비쳐들었다.

장군님께서 나라의 주인이 태어났다고, 어서 집으로 소를 몰아가자고 등성이길로 달구지를 또 밀어주실 때… 영문을 모르는 소의 귀박죽에 더운 눈물이 푹푹 떨어져내렸다.

그이의 손엔 그 쪽정이벼이삭이 그대로 들려있었다.

장군님께서 이제 나라가 허리를 펴면 프락포르도 보내주겠으니 그때 가서 오늘 일을 옛말로 하자

고도 하시었다.

농민은 그날 그이께서 이 동해지구의 농사형편을 보아주시려 온 하루 그 드넓은 백리벌에 계신 줄은 알수 없었다. 소문도 없이 이곳 억기벌 농사일을 의논해주신 그의 옷설에 제 집 수령논 감탕얼룩이 그대로 온종일 남아있을줄은 더우기 알수 없었다.

농민은 장군님과 헤어질 때 손에 드신 쪽정이 벼이삭때문에 심중에 그 수령논을 그대로 담고가실가 보아 마지막으로 그분께 간청드렸다.

《장군님… 그 쪽정이 벼이삭만이라도 제발… 내년엔 꼭 영근 이삭을…》

농민의 두볼로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지라 그이께서 더 그 벼이삭을 쥐고계시지 못하셨다. 농민의 마음을 풀어주시려 그 벼이삭을 그의 손에 쥐여주시며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윽고 그이께서 타신 차는 떠나갔다.

그것은 전쟁을 이긴 1953년 10월초의 어느날 새벽에 있던 일이었다.

농사군의 셋째딸을 낳은 산모를 위해 수령논에서 벼달구지를 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 쌀이 달디단 젖이 되어 아기의 몸을 살찌웠다. 그 못 잇을 축복을 보내주신 동구밖 수령논이 그 애에게 일생의 꿈을 엮어주었다.

2

1977년 그해 정초에 한 처녀가 3작업반 1분조장으로 선거되었다.

쌍태머리의 스물세살처녀 리분녀. 작년에 도농업기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여태 그 누구를 큰소리로 욕해본적도 없고 일을 시켜본적도 없는 어질고 순한 처녀였다.

처녀는 분조장을 임명하는 작업반모임에서조차 수줍음으로 감빚처럼 익어든 얼굴을 겨우 들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자기를 지켜보는 술한 농장원들에게 실개울 흘러가는것 같은 가는 목소리로 한 마디만 말했을뿐이었다.

《그저 많이 도와들 주십시오.》

농장원들은 작자그르르 처녀에게 믿음이 어린 박수를 보내주었다. 열일곱꽃나이 그 시절부터 별바람에 얼굴이 그슬린 처녀, 눈보라치는 첫새벽에 산같은 두엄달구지를 이악스레 동구밖별 수레를논까지 물고온 처녀, 장마칠 물고로 떨어지는 비에 논

뚝이 패이는게 가슴아파 제 입었던 비웃을 벗어 놓고에 깔아주던 처녀였다.

말보다 먼저 일이 앞서는 고향의 마음착한 처녀 리분녀를 농장원들은 잘 알고있었다.

분녀는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한사람한사람 다시 익혀보았다. 문득 분녀의 눈가에 선전실가운데 올방자를 틀고앉아 천정을 바라보며 두손바닥을 맞대고있는 청년이 비껴들었다.

그는 기관지천식으로 앓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분녀네 뒤마을에서 사는 정명도였다.

그는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앓으면서도 손에서 농사일을 놓지 않는 어머니를 대신하고저 상급학교도 안 가고 농촌에 자원한 청년이다.

남편없이 사는 내인들이라 분녀의 어머니도 명도 어머니와 가깝게 지냈다.

분녀는 지금도 어머니에게서 들은 명도 어머니가 했다는 말을 잊지 않고있다.

어릴적 동네아이들과 싸우다 울며 들어온 명도를 그의 어머니가 일으켜세웠다.

《벽으로 돌아서거라. 벽을 보며 혼자 소리없이 우는게 사내야. 네 손으로 다릴 거두거라.》

그리곤 집앞의 버들가지를 꺾어들고 종아리에 매를 안겼다.

또 농촌에 자원했을 때에는 교훈적이고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다고 했다.

《순간에 열두 마음 지어먹기보다 단 일년이라도 한가지 마음으로 살기가 힘든 법이다. 네가 정한 앞길을 가다 후회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이 어미가 네 명을 다시 안고살아야겠지...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네 맘대로 날개를 퍼거라.》

분녀에게 그 말을 들려주며 어머니가 말했다.

《쉽지 않은 어머니에 쉽지 않은 아들이더라.》

헌데 나이도 아래인 분녀가 바로 그렇게 자라온 명도의 분조장으로 된것이였다.

분녀는 마치 네가 꽤 분조장을 해내겠니? 하는 명도의 속대사가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그대로 내비쳐진것만 같아 속이 떨려 인츰 눈길을 내려깔았다....

분녀는 분조장 첫 사업으로 수레틀논들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고향동구밖 길옆에 수레바퀴모양으로 둥그렇게 들어앉은 수레틀에 가슴젖은 사연을 안은 그 수렁논이 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발자취가 스민 땅이여서 고향사

람들은 그 한줄 흙조차 조심히 밟고 소중히 다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해 자연개조5대방침관철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분녀는 자기를 자책했다. 그 언제 어느때 우리 수령님께서 문득 이 벌에 들리시여 그전날 자신께서 감탕에 빠져드는 달구지를 밀어주셨던 그 수렁논이 흔적을 찾을수 없는 규격포전으로 변한것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온 농장이 달라붙어 수레틀 토지정리를 깨끗이 끝낸 3월의 어느날 저녁노을 질무렵 분녀는 모닥불가에 둘러앉은 분조원들앞에서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분녀는 올해 분조에서 받은 국가계획의 20톤의 벼를 더 생산하자고 했다.

그 말에 스물한명이나 되는 분조원들의 태반이 외나무다리에서 발맞추라고나 한듯이 아연해했다.

분녀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분조가 맡은 수레틀, 달가지더... 두엄은 이제 어느만큼 더 내고 멀리 늪바닥의 감탕흙도 퍼올리고... 동해안 중부지대의 특성, 벼의 생태학적특성에 따르는 논벼생육관리...

《문제는 누구나가 다 분조농사의 주인이 되여 주체농법의 요구를 잘 알고 무조건 해낸다는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는거라고 생각해요.》

분녀는 웃논에 물실어놓은것만큼이나 장담하는 투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분조가 20톤, 또 다른 분조가 그만큼... 그러면 농장의 수확고만도 수백톤... 그렇게 되면 800만톤 알곡고지점령도 먼 꿈이 아닐것이다. 그 말에 분조원들은 항 하니 입들만 벌리였다.

명도가 불쑥시던 꼬챙이를 불가에 던졌다. 빨간 불씨가 몇개 튀겨올랐다.

《용하군. 작은 쌀단지 안고 큰 독에 쌀 넘길 궁리한다는게 참 기특하구만.》

명도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은 분녀의 흥분된 살갓을 지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분녀의 속눈섭보다 마음속이 먼저 바르르 떨려났다.

명도가 움쭉 일어섰다.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것 같구만... 하늘도 한귀퉁이부터 개인다는 말이 있소. 그러구 여기 주인이 아닌 사람은 한명도 없지.》

분명 명도의 말에는 아직 손끝이 말랑말랑한 헛

농군에 불과한 분녀가 땅을 가꾸려면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지 알고나 그러느냐 하는 속심이 깔려있었다.

분녀는 탈싸닥 주저앉고싶었다. 믿고 기대고싶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주저되기는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생각해보기도 했던 명도였다.

분녀는 그밤 꿈에 아버지를 만났다. 그 동구밖 수레틀에서였다.

아버지가 울먹울먹하며 오르내리는 딸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마음은 말로 주는게 아니니라. 사람들 마음이 합쳐져 난알이 나는거란다.》...

그러나 분녀는 분조원들의 마음을 합쳐 하나의 영근 난알처럼 익히려면 어떤 가뭄, 장마를 겪어야 하는지 아직 다는 알수 없었다.

씨뿌리기가 한창인 어느날 명도는 난데없이 기타를 들고 작업현장에 나타났다.

휴식참엔 모판쪽에 나래를 깔고앉아 아이들 악보집을 펴놓고 기타를 튕기며 무슨 곡을 짓느라 꿈꿨다.

모판굴대를 손질하면서도 그 무슨 알지 못할 《미미라》를 오른손가락으로 짚어보고있었다.

포전방송에서는 흥겨운 경음악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분녀는 보다못해 꼬집었다.

《경음악을 좋아해요?》

그 말에 명도의 코가 먼저 벌췌 웃었다. 분녀의 그 말이 명도는 바쁜 씨뿌리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에두른 힐난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챈것이였다. 분녀는 남은 입술이 초들초들 말라 뛰어다니는데 작업에 지장은 안 준다더라도 한가한 맘먹고 그러는것만 같아 속이 새침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감상속에 또 다른 곡상이 련상되게 될 때 경음악을 진짜로 좋아하게 될거요.》

차각차각 울리는 씨앗떨구는 기계의 고르로운 소리만 아니였어도 분녀는 처녀의 자존심을 짹짹하게 시위했을지도 모른다.

저녁에 분녀는 명도가 유치원 악보집에 정신이 팔린 내막을 알게 되였다.

은희 엄마가 분녀에게 말해주었다.

《유치원교양원 옥희네가 전국축전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명도가 무슨 편곡이란걸 해준다나.》

옥희는 분녀의 동창생이였다.

농장에술공연때마다 옥희의 독창에 명도가 기타반주를 하곤 하였다. 사실 명도는 재간둥이였다. 기계속내에도 밝았고 노래도 잘 불렀을뿐아니라 기타 타는것도 전문가 못지 않은 수준이였다. 그래서 공연때마다 뽐히워다니더니 결국은 기타와 노래가 둘사이를 가깝게 만든셈이라고 분녀는 생각했다.

땅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처녀, 깨끗하고 소박하며 열정적인 목소리에 젖어들 때면 분녀의 가슴속에도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저도 모르게 축축히 스며들곤 하였다.

저녁작업총화후면 작업복을 갈아입고 주름이 선 바지에 덧잠바까지 걸치고 자전거를 몰아가는 명도의 모든 행동이 처녀에 대한 사랑으로 귀착된다는것이 분녀에게는 놀랍게만 여겨졌다.

분녀는 그런 눈으로 명도라는 청년을 다시 바라보았다.

낮이건 밤이건 작업장에 나갈 때는 늘 작업복을 따로 가지고다니는 청년. 언제봐야 땀을 들여 일하면서도 다림발이 퍼질줄 모르는 그의 옷차림이였다.

하긴 이제 얼마나 일하기 험해졌는가.

농장 한가운데 번듯한 문화회관이 있고 몇쟁이리 밭이나 미용을 하러 읍으로 가지 않아도 될 새 편의시설건물도 울봄에 일떠섰다. 길가엔 버들과 은행잎이 푸르르다. 도시 못지 않은 농촌의 현실이 계절이 다르게 이 땅에 다가오고있었다.

《문명한 도시의 현실을 우리 손으로 당겨와야 합니다.》 명도가 자주 하는 말이였다.

명도는 마치도 제 먼저 그 생활을 마주 가듯 계절에 맞는 옷을 꼭꼭 입고다닌다.

저뿐아니라 요즘은 분조의 아주머니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은근히 원심을 쓰고있는게 알렸다.

언제봐야 학교에 다니는 세 딸들의 치닥거리를 하느라 화장도 못하고 늘 종종걸음으로 출근하곤 하는 은희 엄마에게 명도는 하루아침 모두의 앞에서 멋있게 포장된 인삼분크림팩을 척 내밀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더 환해지지요. 매년엔 파란 봄가을뜨개옷을 기념으로 드리지요.》

모두가 웃었다. 총각이 어느 아이엄마에게 생일 기념품을 준다는것도 우스웠지만 그 말이 더 분조원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던것이다. 아마 명도에게서 짹짹이 기타를 배우는 은희가 엄마의 생일이

라고 속살거린 모양이라고 은희 엄마가 어색해서 말했지만 그후부터 진짜 그의 차림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분크림덕에 뽀아니 흰해진 얼굴에 꼭 작업복을 갈아입고서야 일손을 잡군 하여 이제 분조원들 거의가 출근복을 따로 입고 다니게 되었다.

그 한개의 인삼분크림이 마침내 분조원들모두의 얼굴과 옷차림을 흰하게 치장질해준셈이 되었다.

처음 분너는 어딘가 섬찍한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런다고 그들이 분조일에 무슨 큰 지장을 준적은 없지만 사달이란 언제나 한곳에 집중하지 못한 분산된 사고에서 번져지게 되는것이다. 틈난 돌이 터지고 금간 독이 깨어진다고 그러다 사람들이 그 어느때 농사일에 다림발 선 옷이 구겨질가봐 선뜻 발디밀기 주저하게 된다면...

오죽하면 관리위원장이 초급일군 10일총화때 분너네 작업반장에게 이런 말까지 했겠는가.

《이보오 3반장, 그 잘난 수닭이 왜 새벽부터 회대에 올라 소릴 지르는줄 아오?》

모두가 관리위원장이 던진 영문모를 소리에 어안이 병병해있었다.

《그건 알낱는 일을 못하기때문이요, 알낱는 일을...》

그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옷 잘 입고 기타를 절저덩거리는게 아니라 일이 곱단 말이요, 일이...》

분너는 목을 움츠렸다.

관리위원장은 분명 분너네 분조를 녀두에 두었고 명도를 꼭 찍어 질시한것이였다.

분너는 속이 후두둑거렸다.

그러나 거방지게 앉아 회의실 창문으로 씨뿌리기 경쟁순위를 알리는 작업반별 기발을 내다보는 반장의 얼굴에는 쓰다달다 아무런 표정도 비끼지 않았다. 삼각모양의 표식기들중에서 3이라는 수자가 달린 기발이 맨밑 여덟번째에 붙어 파르륵거리고 있었던것이다.

그 경쟁순위가 반장의 부아통을 자극하고있던지라 직통배기로 맞대답을 하고말았다.

《웬걸요. 그래도 수닭없이 병아리가 되는 알을 낱는 암닭을 못 봤수다.》

반장의 그 통명스런 소리가 회의실안을 더 흔들어놓았다.

농장축구팀의 최종방어수인 반장은 명도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우였지만 공격수인 명도와 각근한

사이였던것이다. 또 그보다는 작업반의 명예를 지키고픈 승벽이 앞선것임을 분너는 모르지 않았다.

여하튼 분너는 떡가루 날반죽하듯 분조원들을 흐물떡흐물떡 빚어대려는것 같은 명도라는 존재가 두렵게 느껴지였다.

물론 그의 사고와 행동속에는 농촌사람들도 도시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질게 깔려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분너는 그것만으로는 무엇인가가 부족한것 같았다. 제 손으로 가꾸지 않고, 제 손으로 풍족하고 번듯하게 차려놓지 않고 옷이나 잘 입고 노래나 청قم게 부른다면... 그것이 가물에 바닥이 드러나는 내물과 무엇이 다르랴.

분너는 우리의 생활은 푸른 강물처럼 호심이 깊고 또 아름다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3

도소재지의 기계공장에서 나온 지원자들과 하루 모내기를 끝낸 분너는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따준 울추리가 든 광주리를 들고 파수원 건넌마을로 향했다.

초저녁부터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그속에 들성들성 짹을 부르는 틈부기의 소리도 섞여돈다.

분너는 명도네 집으로 가고있었다. 그가 오후작업에 결근하였다. 그래 다른 사람이 모내는기계를 몰다나니 기계가 말을 잘 듣지 않아 모내기실적인 한심하였다.

분너는 모내기를 하면서도 자주 명도가 나타날벼모판 길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깃들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밤길을 걷는것이였다.

걸으며 왜 명도가 못 나왔을가고 생각해보는 분너의 눈앞에는 요즈음 몰라보게 달라져가는 명도의 모습이 마음쓰리게 밝혀왔다.

모내기를 시작하여 20여일이 흐르며 명도가 어딘가 우울해있는것 같은 감이 눈에 띄게 알렸다.

어떤 날은 언제 별로 나왔는지 분조원들이 나올때면 벌써 모판에 앉아 모를 뜯 때도 있었다.

온갖을 모내는기계를 몰며 보낸 벌에서 간밤도 말짱 보낸듯 그의 옆이며 뒤에 한벌 쭉 깔린 모춤들, 먼도날이 닿지 않아 거칠어진 턱, 꺼져든 눈확

속에 초롱불이 달린것 같은 눈동자가 어둑새벽에 별로 나온 분녀를 당황케 했다.

《언제 나왔어요?》라는 말이 입밖으로 튀어나 오려다 쑥 기여들었다.

명도가 말없이 모내는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버리 고마는것이였다.

또 어떤 날은 안타깝게 기다려서야 허둥지둥 별로 자전거를 몰아온다. 장화목엔 어디선가 묻은 감탕자국이 그대로 붙어있다. 가쁜 숨을 쉬는 땀흐르는 목을 보면 집이 아닌 어딘가 먼곳에서부터 달려 온것만 같았다.

그래도 변함없는것은 파란 물방울무늬가 다문다 문 박힌 와이샤쓰에 주름이 간 바지였다.

유치원꼬마들이 포전에 공연하러 나온 날에야 분녀는 명도가 침울해져가는 사연을 알수 있었다.

북이며 발풍금, 목금과 기타까지 가지고온 애들의 차림에 모두가 놀랄 지경이였다.

눈인사를 하는 옥희가 요즘 무척 더 예뻐졌다는 생각이 분녀에게 새삼스러웠다.

분녀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기악곡종목이 다름아닌 명도의 재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바로 명도가 그 자리에 없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던 분녀는 금방 기계가 돈 논 귀재비사이에 허리를 굽히고있는 명도를 보았다.

손을 쳐들어 아이들의 박자를 맞추어주는 옥희의 희박은 얼굴과 대조되게 느껴지는 명도의 모습에서 분녀는 그 어떤 불길한 조짐을 느꼈다.

공연도중에 일어난 분녀는 명도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았다.

분녀는 모춤을 들고 켄 숨씨로 명도를 마주향해 모를 쫓았다.

그러자 명도의 허리가 펴졌다.

분녀도 일어섰다.

《왜 공연을 보지 않아요?》

《마음에 없으니까.》

명도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마음에도 없는 곡은 왜 아이들에게 지어주었 나요?》

《천만에, 그건 내 곡이 아니요.》

명도가 허리를 굽혔다.

《나의 선물은 이 땅밑에 있지.》

그 저녁 은희 엄마가 분녀에게 옥희네 얘기를 해주었다.

유치원 앞집에 든 기계공장 지원자청년이 손풍금

을 멋있게 랠다고 한다. 아마 밤마다 은은하고 물동적인 선물로 못사람들의 이목을 끈 모양이였다.

명도와 옥희는 그때까지도 아이들의 악보편곡이 잘되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하고있었다고 한다.

그칠나 옥희의 시야에 기계공장 손풍금수가 뛰어들었다.

유정한 농촌의 여름밤을 흔드는 정서깊은 손풍금 소리... 옥희는 재고 쯤즈리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이들의 합주곡편곡을 해줄수 없느냐고 물었다. 농촌의 무대만이 아닌 전국의 유치원무대에도 꼭 나가보고싶노라고 했다.

청년은 그 마음에 감동되어 닻새도 못되어 곡을 지어주었다. 옥희는 대뜸 좋다고 했단다. 옥희는 청년과 함께 애들의 공연을 진척시켜나갔다. 그것이 둘사이애 단비가 되었다고 한다.

덜컹하고 흰한 도시청년, 게다가 손풍금수에 기계대학 졸업생이란다.

청년이 수고한다고 옥희네 집에서 몇번 푸짐한 대접을 했다.

하루는 옥희 아버지가 청년에게 마음에 든 처녀가 있는가, 없다면 우리 옥희가 어떤가고 직방 물었다. 그런 청년을 놔주고싶지 않을 부모들의 욕심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비치게 했을것이다. 둘의 장래는 그렇게 너무도 쉽게 한 그네에 태워지게 되었다.

일은 이미 가마에 든 쌀이나 다름이 없어 모내기 총화 휴식일이 둘의 약혼식날로 정해졌다.

분녀는 억이 막혔다. 그래서 요즘 명도의 눈빛이 방향속을 헤매고있었던것이다.

분녀는 옥희를 탓하고싶었다. 그러나 누가 옥희네를 타매한다고 써놓은 죽이 밥될리는 만무한 일이었다. 물에 떠밀려간 흙은 다시 그대로 모아오지 못하는 법이였다....

추리팡주리를 안고가며 분녀는 긴숨을 내쉬였다.

누구나 좋은 대상자를 선택하려는것은 두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대상자에 앞서 좋은 대상지를 먼저 고르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손으로 가꾸어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땅, 곡식을 심어가꾸는 이 땅엔 들어서기 저어하고 아빠트가 선 땅은 찾아가고싶어한다. 그 땅이 귀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세대에는 없던 일이다. 지금은 왜서 그런가. 생활이 펴이고 조금 잘살아지니 같은 땀도 곡식을 가꾸며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농촌에서 사는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들이 생겨났다.

분너는 그것이 가슴아팠다.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농민들이 살아야 할 땅이다. 그런 농민들이 가꿔가야 할 이 농촌에 주인들의 마음을 허비는 가짜주인들이 생겨났다. 물론 사람은 고향을 떠나 그 어데건 가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나서자란 땅—고향을 사랑해야 할 의무, 그 땅에 땀을 바쳐야 할 의무는 있다. 어떻게 얼마나 바치고 사랑했는가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 안다는것 자체가 위선으로 된다. 왜냐면 사랑은 어디까지 어느만큼 바치거나 덜어주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며 또 기준을 정하고 하는 수량적인 개념도 아니기때문이다. 고향을 떠나 갈수는 있되 고향에 대한 사랑을 안고가야 한다.

분너는 그가 누구든 자기 고향을 한생토록 무한히 열렬히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래서 명도도 고민하고 가슴아파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싶었다.

과수원둔덕에 올라서니 반디벌레가 날아에는 앞에서 허청허청 걸어오는 사람형체가 보였다.

구름속에서 빠져져나온 달빛에 피곳 비치는 물방울무늬와이샤쯔...

분너의 코앞에서 술내가 확 풍겨왔다.

분너는 대뜸 걸음을 멈추었다.

《아하, 분조장... 일어나지 않아서... 내 우리 아이들 악보를... 아니, 아니야.》

명도가 손을 뻗 내저었다. 팔꼭질이 울러미는 가슴을 두드리며 명도가 말한다.

《술을 마시느라 안 나왔소.》

명도가 비칠거렸다.

분너는 그가 속이 빈 소리를 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꼭 자기가 지은 곡을 바치고싶어하는 마음...

분너는 물었다.

《어딜 가던 길이에요?》

《일하러...》

《그만두세요. 피곤할텐데.》

분너는 그가 측은해보였다.

명도가 소리내어 웃었다.

《왜, 내가 취했다는거요?》

그의 언성이 높아졌다.

분너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싶었다. 배고픔이

쑥 물러들어 다리뭉이 매시시 풀렸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요, 내가 배고프고 막 피곤해서 그래요.》

분너는 그에게 광주리의 추리 한알을 쥐여주고 저도 한알 들어 베어물었다.

명도도 말없이 옆에 앉더니 추리를 와삭와삭 씹었다. 달빛에 그가 씹 웃는게 알렸다.

《걸은 퍼런데 속은 익었군.》

분너가 말했다.

《우리 집 추리나무에서 딴거예요.》

명도가 씨를 입귀로 뱉아버렸다.

《장이 붉다고 꼭 달지는 않지.》

분너는 속이 발끈했다.

명도의 그 말은 아버지처럼 분너가 살수 있겠는지 아니, 분너자기도 옥희처럼 보인다는 소리같이 들렸다.

분너는 달아오른 가마속에서 송송송 올리숫구는 더워진 물방울처럼 입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뽕죽한 말마디들을 고르느라 또 추리 한알을 들어 소리내어 씹었다. 시큼하고 짭한 맛이 혀바닥에 느껴지며 배안에서 쪼르륵소리가 보챤을 했다.

분너는 명도의 손에도 추리 한알을 또 쥐여주었다.

어느결에 분너는 어찌자고 씨까지 꿀떡 넘겨버렸다. 그러자 반발심이 바삭 킴을 숫구었다.

《땅은 넓어도 나무는 뿌리를 떠들고 옮겨살지 않는 법이에요.》

명도가 추리를 도로 광주리에 넣었다. 그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분너에게 또렷이 들렸다.

분너는 그러는 명도의 배허벅에 추리광주리를 확 내밀었다.

영겁결에 명도가 손으로 광주리를 잡았다.

분너는 썩하니 돌아서 몇걸음 내짚었다.

《가서 추리를 들어요.》

분너는 몇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섰다.

《추리값은 첫 새벽 논에서 치르세요.》

분너는 멍하니 바라보는 명도를 뒤에 남기고 막 뛰어갔다.

삼일후에 농장적인 모내기가 끝났다. 다음날 휴식이 선포된 속에 지원자측에서 농장과의 축구경기를 제기해왔다.

농장 관리위원회가 동의하고 축구선수들을 모이게 했다.

해마다 공화국창건 기념일이면 군적인 경기에서 언제나 순위권에 들곤 하는 축구팀이 농장에 있었던 것이다.

명도가 9번이었다.

초급일군총화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분녀를 반장이 명도네 집으로 이끌었다.

명도는 포도넝쿨 그늘 밑에 앉아 기타를 타고 있었다.

《종구만, 헌데 애들 노래갈구만.》

성미가 걸걸한 반장이 토방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들어보라요. 이진 풍금으로 타는 〈도미썰〉이야요.…”》

명도가 다시 대조를 바꾸어 다른 《도 미 썰》을 켰었다.

《이진 목금소리…》

분녀는 의아한 눈길로 명도를 바라보았다.

명도가 반주로 화음을 짚어나갔다.

《봄들판에 꽃이 피는 소리지요.… 우리 애들의 웃음꽃이 피는 소리란 말입니다.… 철따라 안겨지는 고운 옷, 꽃신…》

분녀는 명도가 아이들의 합주곡편곡을 타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장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줄을 튕기는 명도에게 못마땅한 눈길을 던지었다.

《그만두라구.》

반장이 손을 내저었다.

명도가 말없이 기타를 무릎우에 세웠다.

《씩 잇게.… 운동장에서 땀을 쏟으며 잡념을 털어버리라구.》

반장이 일어섰으나 명도는 다시 기타를 잡았다.

《난 안 차겠어요. 도와준 사람들을 이긴다는 건 도리가 안될테니까요.》

반장의 눈이 대뜸 커졌다.

《차보지도 앓구 이겨? 뭘루 담보해?》

《우리 마당이니까요.》

반장이 코웃음을 쳤다.

《유명한 브라질선수들두 제 마당에서 지는 경기를 하던데?》

분녀는 우스워 입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긴 브라질이 아니지요.… 내 고향이지요.》

명도가 줄을 튕기던 손을 멈췄다.

《그래, 이 마당이 수치를 당하는걸 좋아하지 않지.》

그 말은 실눈을 지은 반장이 했다.

기타를 토방벽에 세운 명도가 벌떡 일어섰다.

《차겠소. 갑시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축구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명도는 경기가 시작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학교운동장을 짹 뒹고 북과 썰과리를 두드리며 응원을 했다.

주석단 밑에 시상으로 마련한 100키로는 실히 될 돼지와 옥쌀기름짜는 기계가 있었다.

어디가 이기고 지던간에 시상을 교환하는 친선경기였다. 그래서 응원도 이편저편이 없이 공이 상대측 문전에만 가면 다같이 와와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는 경기여서 전반전 30분도 되기 전에 농장팀이 거퍼 두알을 먹자 농장원들속에서 자기 선수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분녀는 분조원들과 함께 앉아 응원을 하고 있었다.

분녀는 경기가 명도가 장담하던 것과는 달리 기계공장팀의 승리로 쉽게 끝날 것만 같았다.

반장이 연방 공을 막아내느라 땀으로 미역을 감는 것이 알렸다.

명도는 전반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대기선수석에 나타났다.

휴식시간에 농장선수들은 새 전술안을 짰다.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들렸다.

교대해들어간 명도가 경기장에서 공을 잡았다. 그러자 온 운동장의 응원을 누르며 분조원들이 일제히 《잘한다.》하는 함성을 터쳤다.

분녀는 어느결에 일어나 저도 목소리를 합쳤는지 몰랐다.

공이 서로 오고가는 속에 경기는 더 치열해졌다.

농장팀이 점점 발을 맞추며 짜인 전략으로 맴짠 공격을 해댔다.

명도가 공을 몰아 중앙선으로 바람같이 돌진했다. 오른쪽으로 갈라준 공이 다시 왼쪽으로 길게 넘었다. 그러다 돌입하는 명도에게 왼쪽측면에서 넘겨준 공이 머리받기로 그물에 걸리는 순간 응원 은 고조를 이루었다.

30분이 넘어서 농장선수들이 또 한풀을 넣었다.

2:2 동점이 된 가운데 량팀의 공격이 교차되었다.

경기마감 10분전 기계공장선수가 찬 공이 농장팀 방어수의 손에 맞아 벌차기가 차례졌다.

분녀의 꼭 그려진 손안에 땀이 질벽했다.

직접차넣기로는 불가능한 위치여서 문전앞에서 두 팀선수들이 공이 넘어오기를 기다리며 가벼운 몸싸움을 벌렸다.

호각소리와 함께 기계공장선수의 오른발안쪽으로 깎이운 낮고 빠른 회전공이 포물선을 그으며 문앞으로 날아왔다.

기계공장선수와 반장이 함께 미끄러지며 머리받기를 한 순간 공은 그 머리우를 지났다.

그옆에 명도가 있었다.

공은 명도의 가슴앞으로 날아왔다.

분녀는 명도앞에 공이 날아드는 순간을 숨가쁘게 지켜보았다.

명도가 막으면! 그러면 승리는 농장팀의 것이었다. 그런데...

명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공은 순조로이 농장꼴문안에 드르륵 굴러들어 그 물에 칠썩덕 걸렸다.

(아니?!)

분녀는 벌떡 일어섰다. 분녀뿐이 아니었다. 잠시 후 분조원들이며 농장원들이 와슬렁와슬렁대기 시작했다.

《아니, 명도 저치가?!...》

《왜 살려보내? 공은...》

특점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이윽고 명도가 걸음을 떼었다. 그가 머리를 수그리고 경기장밖으로 나가있었다.

분녀는 자기의 숨죽인 가슴을 딛고 명도의 걸음이 비척비척 옮겨지는것처럼 느껴졌다.

(아, 명도동무!...)

그 무엇인가가 분녀의 마음속을 아프게 헤집고 있었다.

분녀는 분하고 마음이 아파나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분녀의 뿌예진 눈앞에 처음엔 명도가, 다음엔 하얀 수건을 날리는 옥희가 서있는 환영이 떠올랐다.

분조원들이 수군거렸다.

《시시해요.》

《사내가 아니지요.》

분녀는 그 걸음으로 옥희를 찾아갔다.

하얀 레스로 단추선을 장식한 여름옷을 입은 옥희가 분녀와 마주섰다.

《아침에 그가 왔더구나. 애들한테 진 빛이라며

악보를 주고 가더라.》

분녀는 격해지려는 가슴을 누착히었다.

그러니 명도가 옥희를 만나고 경기장에서 그런 심리반응을 일으킨 것이었다.

《하나 묻자꾸나. 넌 정말 그 동물...》

《짐작하지 마. 넌 마치 내가 누구의 가슴에 못이라도 박은것처럼 그러누나. 우린 아무 관계도 없어. 그 동무도 그랬어. 사랑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왜?... 리상이 다르지 않니?》

분녀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옥희의 말에 점점 속이 더 저려났다.

《그럼 넌 정말 농촌이 싫어서 간다는거니?》

《숨기지 않아. 농촌이 도시보다 못한건 사실아니니. 난 명도동무에게도 숨기지 않았어. 생각해봐, 누군들 마다하겠어. 갈수 있다면 그 동무도 가게 될게구 분녀 너도 그렇지 않아? 선택앞에 진실하다면 아마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거다.》

분녀는 빈혈증이 오듯 머리가 어질어질해났다. 다리맥이 쑥 풀렸다. 푸른 하늘이 머리우에서 빙빙 돌고있었다.

분녀는 식은 땀이 내뿜은 이마를 손으로 문질렀다.

분녀의 눈길이 옥희의 까만 비닐구두며 치마를 훑어 옥희의 얼굴에 멎었다.

《어차피 갈 길인데 어서 가주렴. 가되 이 땅에 두었던 너의 사랑, 너의 노래 다 안고가라. 예서 네가 태어나 처녀로 커서 이 땅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배반하고 떠났다는걸 이 땅이 영영 기억하지 않게 어서 떠나거라.》

분녀는 돌아섰다.

분녀는 저녁녘 작업반선전실앞에서 명도의 목을 거머잡은 반장을 보았다.

《왜 배반했어, 왜?》

명도의 두손도 반장의 어깨를 잡고있었다.

《어쨌단 말이요? 날 괴롭히지 말란 말이요!》

반장의 주먹이 명도의 가슴벽을 쳤다.

《정신차려, 이 자식아.》

그밤 분녀는 한그루 소나무가 있는 잊지 못할 동구밖으로 갔다.

밀둥이 굵어진 소나무밑에 앉아 하늘을 우러르며 아버지 생각을 하염없이 퍼냈다.

첫 협동조합의 종곡창고에 불을 지르려던 반동놈들과 싸우다 희생된 분녀의 아버지였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리진구는 안해와 딸들을 바라보며 이런 유언을 남겼다.

《가문이 대를 두고 쏘고 닦아도 수령님 옷자락에 묻었던 저 수령님 감탕을 못 지워드릴줄 내 안다만…

지워다오.

…죄스런 농군이 산 이 땅이 맨 선참 수령님 바라시는 농촌이 되게 피땀을 쏟아다오, 피땀을…》

분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버지, 분녀예요. 우리 수령님 저 수령님에 들어서시게 한 그 못난 분녀…》

분녀의 마음속에 눈물이 끓었다.

《나 힘들어요. 사람들 마음 합치기가 빠르네요.》

리진구가 딸에게 고무를 준다.

《사느라면 더러 제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만 다 걸어안아 이 땅의 충실한 씨앗으로 만들어야 한다.

…썩정이가 없어야 해, 썩정이가…》

못 잇을 그날 우리 수령님 마음속에 안고가신 썩정이…

분녀는 껍껍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 리진구가 분녀의 마음을 쓰다듬듯 한자한 자 또박또박 말한다.

《진심을 바쳐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네 먹을 것이 잘 나라고만 베풀구질 밀어주신게 아니야.

이 억기벌을 밀어주셨어. 저기 보이는 사회주의 언덕으로 우리 농민들모두 함께 가라구 말이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마음까지 합쳐 수령님 바라시는 농촌으로 만들겠어요.》

그날 밤 분녀가 아버지와 속삭이며 흐느끼는 모양을 지켜보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것을 분녀는 알 수 없었다.

4

…분녀는 땅에 온 정을 쏟았다.

그날 한점 없는 땡볕속에 세벌김을 매고 삼복이 숙어드니 어느새 벼대가 이삭을 품기 시작했다.

푸른 벼이삭이 한밤이 다르게 울리듯었다. 때를 알아차린 가을바람이 슬슬 불어 벼포기들을 어루만지니 하루가 다르게 논이 익어갔다.

어느새 가을이 왔던것이다.

분녀는 예상수확고를 판정할 때마다 속이 좁안에

든듯 좋아들곤 했다.

달가지터 몇군데나 좀 팬찮고 수레들은 수확이 좋지 못했다.

분녀는 실망했다. 막 맥을 놓고 주저앉고싶었다.

그러나 그럴수가 없었다. 건듯 들린 가을하늘아래 처녀분조장얼굴이 밝지 못하면 분조원들의 얼굴에 구름이 끼 그 높은 하늘이 뭉청 낮아져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그리고 가을이란 걷이와 털기를 거쳐 실수확고를 잡고 기준수매와 분배에 이르기까지 한그람, 한그람의 난알을 세어서 해야 한다. 분조장이 예상수확고에 락심천만해하면 분조원들의 손으로는 난알 한알한알이 무겁지 않게 흘러지게 된다.

그래서 분녀는 저 혼자서 가슴만 허뻐다. 그리고 분조원들앞에서는 웃었다.

분녀가 그러거나말거나 분조원들이 웃고 작업반장이 논머리에서 콩국을 들이키며 롱을 한다.

《어— 여기 콩국맛이 제일이군. 처녀가 분조장을 하니 이 달가지터가 제일 흰하군.》

그러자 은희 엄마가 맞대꾸를 한다.

《처녀가 반장을 하면 어떨가요?》

《그땐 이 반장이 관리위원장을 하지.》

온 가을이 웃고있었다.

유독 한사람, 명도만이 웃지 않고 수격수격 낫질만 했다.

웃지 않는 대신 그렇게 무섭게 일만 해뻐다.

마음속 시련을 이겨가는 청년, 그만이 이 가을벌에서 웃지 않았다.

분녀는 그런 명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렸다. 그가 기타의 줄을 늦춰 주머니에 꼭 넣어두었다는 말을 들었다.

분녀는 그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노래부르며 이 땅과 어울리게 하고싶었다.

…달가지터 벼단철수를 하던 날 오후였다.

반장이 전한 뜻밖의 소식에 분녀는 그만 들었던 벼단을 떨구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글썽 아침 첫새벽 이웃군 동주벌을 찾으셨다는것이였다. 해뜨기 전에 바다가에서 울려진 물안개로 자욱한 곳, 이맘때 이른아침이면 비라도 맞은듯 옷이 축축히 젖어드는 곳이다.

어쩌면 선기도는 그 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막사리 달라붙는 논두렁길을 걸으신다.

무릎을 굽히시고 고개숙인 벼단도 들어보시고 이

삭의 알수도 세여보신다. 논머리에선 농민들의 살림형편도 물어주신다....

분녀의 눈가에 그냥그냥 그 인자하신 모습이 삼삼히 안겨왔다.

벼단을 실은 달구지를 몰고가는 분녀는 이웃군으로 이어지는 동구박길로 자주 눈길을 보냈다.

문득 우리 수령님께서 이 억기벌을 찾아주실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이를 이 벌 저 수레틀에 모신다면...

분녀는 머리가 핑 돌았다.

넓게 밀어버려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수령논,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그날의 자취를 더듬듯 벌을 이윽히 바라보시는 수령님...

분녀는 생시런듯 수령님앞에 서보는 자기를 상상해보았다.

그러다 편똥 계획량을 못한 수레틀수확고에 신경이 미쳤다.

안색을 흐리실 수령님...

그 순간 분녀의 머리속에서 수레틀은 다시 수령논으로 바뀌어졌다.

《이랴!-》

분녀는 소를 때려몰았다. 입을 옥물고 속으로 자꾸만 외워보았다.

(안돼, 안돼, 그럴수 없어!)

분녀는 일을 마치고 동구박으로 내달렸다.

수령님께서 제발 이 수레틀에 들리지 말아주셨으면...

오신다면 어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잘못을 벌며 그이앞을 막 막아드릴 용단도 내려보았다. 그리고 꼭 이담 그 언제 오서도 기뻐하시게 농사도 잘 짓고 번듯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릴 결심도 속으로 아뢰어보았다.

그렇게 날이 어두울 때까지 분녀는 동구박 길가에 서있었다.

분녀가 멀리 도로에서 언뜻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차불빛들을 바라보고있을 때 앞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다.

오후에 어머니약을 구하러 읍에 갔다오겠다고 떠난 명도였다. 그가 분녀옆에서 내려섰다.

분녀는 명도에게 말을 하기가 주저되었다.

용케 명도가 먼저 말을 걸었다.

《누굴 마중하던 길이요?》

분녀는 동주벌소리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직 소식을 모를 명도에게 그때문에 여기로 왔다는 말

을 하기가 어쩐지 부끄러웠다.

그래서 다른 말을 했다. 언제부터 하고싶었던 말이였다.

《저 한가지 부탁해도 될가요?》

명도는 침묵을 지켰다.

《그전처럼 사람들과 말도 하고 좀 웃기도 해줘요.》

《리유가 뭐요?》

명도의 물음엔 억양이 없었다.

《모두가 보기 민망스러워들 하는데 물론...》

《그만두오. 그런걸 두고 뭐라는지 아오? 콩나물에 낫걸이라구 하지.》

분명 그는 그전날의 명도가 아니였다.

《난 누구처럼 이 땅을 버리진 않아. 내 량심껏 살테니까.》

명도가 분녀를 외면한채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섰다.

《그러니 이대로 살든 웃으며 살든 속쓰지 말란 말이요.》

명도는 조용하나 그루를 박아 말하고 돌아섰다.

분녀는 분했다. 분녀의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올랐다. 명도의 일로 아팠던 가슴에서 드레박으로 퍼올린 더운 눈물이 분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날 아침 분녀는 다른 내색없이 별로 나왔다.

명도가 먼저 나와 논둑에 앉아있었다.

은희 엄마가 분녀의 뒤를 따라 나왔다. 그가 명도앞에서 접었던 분홍머리수건을 팔락팔락 소리가 나게 펼쳤다.

작은 인삼크림팩을 든 은희 엄마의 손이 명도의 얼굴앞에 내밀려졌다.

《자, 받아요.》

명도가 뚫어지게 크림팩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전것보담 못한건 사실이에요... 좋은건 많은 사람이 썼구 이젠 한사람 얼굴 틈에 쓸거니 값은 치면야 이게 비싸다고 말해야지요.》

난 삼촌이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맑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래년엔 새 기타를 선물하지요.》

은희 엄마가 웃었다.

명도가 눈을 감고 크림팩을 받아들였다.

분녀는 속으로 정말 저 사람도 웃게 될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드디어 명도가 웃는 그런 날이 왔다.

분녀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 저녁 분조녀인들이 분녀를 은희 엄마네 집으로 이끌어갔다. 분조가을총화를 한다며 은희 엄마가 소관리공아바이까지 남정들모두를 제 집으로 데려갔다.

명도는 그들속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돌아서는 명도를 반장이 불러세웠다.

《사람 작은건 탈 없어도 사람 속이 작은건 쓰란데 없단 말 알지?》

반장은 은희 엄마가 부탁한대로 때맞춰 와주었던 것이다.

명도는 반장의 손에 이끌려 은희네 집으로 들어섰다.

음식을 차린 상에 모두가 둘러앉았다.

은희가 언제 명도의 집에 갔었는지 벽에 세워둔 기타를 손짓해보였다.

명도는 그냥 머리를 수그렸다.

모두들 상앞에 덩덤히 앉아있자 반장이 먼저 선고를 뻗다.

《거 은희 엄마네가 주최자측이니 뭐 비슷이 한마디 하시우. 그래야 손과 입이 할 일을 할게 아니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분녀는 꼭 남의 상에 앉은것 같아 두무릎을 세우고 달아오르는 고개를 숙인채 그 누구도 마주보지 못했다.

은희 엄마가 일어섰다. 행주치마를 벗어 괜히 두손과 걷어올린 팔뚝을 문지른다.

《에그, 뭐 별게 아니예요. 실은 우리 분조장을 위해 마련한 상이에요.》

처녀가 이 가을날에두 얼굴이 까칠해가지구 저혼자만 속이 알알해 돌아가구... 우리보구는 수고했다구 내내 웃어주었어요.

우리가 분조장의 그 마음을 믿지 못했더라면... 제 마음에 다진, 우리 수령님앞에 다진 맹세루 사느걸 말이에요.

그날두 동구밖에 밤깊도록 홀로 서있으느걸 다 안다우...

자꾸자꾸 거길 가고싶어하는걸 다 안다우...》

은희 엄마가 눈이 아픈듯 행주치마를 들어 눈굽을 문지른다.

그러다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우리 아낙네들이 속을 좀 췌다우.

이 가을날 우리네 치마끈이 길어져 차린 상이

니 어서들 드시우. 그리구 래년엔 꼭 200톤을 하자요.

분조장, 오늘은 진짜루 웃으라구.》

분녀는 숨을 쉴것 같지 못했다. 마음은 눈보다 먼저 눈물을 쏟고있었다.

함께 애써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이 모여 이 땅을 받들고있다. 이런 사람들 마음이 거름되어 땅을 걸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쌀 한알한알이 되었다.

분녀가 일어섰다. 누가 그러라고 눈짓하거나 떠밀지 않았다. 그래도 분녀는 일어서고싶었다. 마음속에서 고평치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싶었다.

《우리 수령님의 딸...》

꼭꼭 씹어 그렇게 말을 떼었는데 그만 목이 짹 메여들었다.

분녀는 여적 누가 고향땅을 가꾸는지 모르고 살아왔다.

이 순간 불쑥 제가 가꾼다고 생각했던 그 땅, 그 수레를에 바지가랭이를 거두어올리신 수령님께서 들어서시여 모를 내시고 김도 잡으시는 모습이 우렷이 살아오르며 눈앞이 더 뿌연게 젖어들었다. 그래서 분녀는 말을 할수 없었다.

다시는 그 귀한 옷자락에 감탕흙이 묻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해야겠는데 목구멍이 꽉 닫겨 열리지 않았다.

분녀는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이 땅의 딸로 살겠습니다.》

분녀는 겨우 그렇게 말하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명도가 허리를 굽혀 벽의 기타를 끄당졌다. 천천히 기타주머니를 벗겨냈다. 그의 오른손엄지손가락이 훑어보는 줄에는 아직 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명도가 머리를 들었다.

그가 웃고있었다.

《이런 날에야 웃어야지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지요.》

명도는 보지 않고 선조이개를 돌리며 선들의 음을 맞추었다.

그리고 은은한 곡의 전주를 탔다.

선률에 실려 노래가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노래에 실려 기타소리가 울려나오는지 누구도 알념을 하지 않았다.

뼈꼭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로동으로 꽃이 피는 곳
...

명도의 맑고 부드러운 소리에 열기에 싸인 목소리들이 합쳐지었다.

아 언제나 좋은 곳일세
아 내 고향 어머니품아

반장은 소관리공아바이와 어깨를 부여안고 노래 불렀다.

그들모두의 얼굴도 구리빛으로 번들거렸다.

분녀는 그밤에 벌써 200톤의 벼넝가리를 보았다. 그밤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분녀를 목마에 떠받들 어 보름달과 가까와진 그 넝가리우에 앉혀주었다.

5

이듬해 가을 분조는 꼭 207톤의 수확을 내었다. 관리위원장이 년로보장을 받으면서 직통배기반장이 관리위원장이 되었다.

분녀는 반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기뻐했다.

명도는 트랙트르양성소에 가고싶어했다. 그런걸 관리위원장이 부결을 놓았다.

분녀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수레틀에 나온 관리위원장에게 졸랐다.

《그녀석은 안돼. 마음에 들어야 할 처녀도 어찌지 못하는게 트랙트르는 어떻게 휘여잡아?》

은희 엄마가 관리위원장의 그 말에 참기름을 덧발랐다.

《관리위원장두 참, 어디 이 짧은 팔루 저 먼데 걸 잡아내나요.》

은희 엄마가 관리위원장의 옆구리를 치며 손시늬를 해보인다.

《처녀반장이 팬히 등달아 그러지 않으니 처녀총각원망 안 사겠거든 얼른...》

결에 선 분녀의 얼굴이 금시 익어들었다.

사랑, 분녀는 아직 그것의 의미를 다 알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고향, 어머니 이 땅을 사랑하듯 하고싶었다. 성실하게... 변함없이... 한생토록...

고향 동구밖의 수레틀이, 푸른 소나무가 그리고 그 등성이길이 저녁노을빛으로 곱게 물들여졌다.

×

그들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고향사람들이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세월의 년대기마다 고향땅을 풍작으로 가꿔온 성실한분들이다.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가꿔온분들이다.

지난해부터 나는 고향 솔리의 관리위원장으로 일한다.

아버지는 여적 농장기계화작업반 정비공으로 있다. 이제는 예순다섯살이다.

젊은 운전수들이 공을 칠 때면 아직도 함께 어울리곤 하는 아버지의 근력을 다들 부러워한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예겐 기타를 배워준다.

우스운 말이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거나해지면 하는 말이 있다.

《분녀... 내가 참 잘 만났어.》

어머니는 20여년간이나 관리위원장으로 일하였다. 년로보장나이가 된 후에도 2년간이나 더 일하다가 사업을 인계했다. 그런 후에도 어머니는 늘 별에 나가 산다. 무릎이 쿡쿡 쏘고 허리가 아프다면서도 손에 흙을 만졌다.

《이 땅이 내 설짬을 안 주는구나.》

내가 그런 어머니의 허리를 부축해준다.

《이젠 어머니의 년세가 예순을 지났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허를 끝끝 차며 나를 핀잔한다.

《관리위원장이라는게 언제 험이 들겠니? 봐라, 이 땅에 년로보장이 있다더냐? 땅은 그냥 일한다, 그냥...》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해안의 곳곳을 찾으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어머니는 고향 동구밖에 나가 보곤 하였다.

그리고 별에 나가 모 한포기라도 더 쏴고싶어했다. 김 한줌을 잡고 흘린 벼 한이삭이라도 더 줏고싶어했다.

오늘은 그 길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찾아 가고가신다.

한그루 푸른 소나무가 설레는 동구밖, 그 길이 평양에 닿아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도 그 동구밖에 서계신다.

시 초

나는 세로권역에서 당원이 되었다

리 명 철

잊지 못할 눈빛들

세포등판의 나지막한 천막에서
나의 입당심의를 하던 날
스물한명 당원들앞에 섰을 때
나에게 쏠린 그들의 시선
어찌하여 그리도 어려웠던가

송진내 향긋한 통나무의자에 앉은
중대당원들의 뜨거운 눈빛
불빛보다 더 밝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 어이하여 그리도 두근거렸던가

두텁게 언 땅에 첫삽을 박던 그날부터
수년세월 한식술로 고락을 함께 한 동지들
오직 땀과 피로 진실만을 말하던
그들의 눈빛 나를 지켜볼 때

나는 그들앞에서
그 시각 입당심의만을 받지 않았다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동지로 품어주는 그 심장들앞에서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할
심장의 맹세도 함께 다졌다

그날
한빛으로 빛나던 그 눈빛들은
당을 따라
끝까지 함께 갈
정깊은 동지들의
량심과 의리의 약속이 아니었던가

그 눈빛속에
언손을 녹여주던 후더운 정이
내 몸에 다시 흘러들어
그것은 이 세상 제일 뜨거운
동지들의 정이고 억센 신념임을
내 그날 온넛에 깊이 새겼거니

그날 나를 바라보던
평범한 동지들의 그 뜨거운 눈빛 안고
내 언제나 곧바로 억세게 걸으리라

아, 원수님 받들어갈
나의 인생길에
삶의 등불처럼 파라설
고마운 눈빛들이여

세포군당청사앞에서

당원증을 받던 날
세포군당청사의 문앞에서
내 잠시 섰느라니
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다

태어나 오늘까지 당의 사랑속에
조국이 열어준
얼마나 많은 행복의 문으로
내 험하게 들어섰던가

엄마손 잡고 들어서던
배움의 첫 꽃대문도
재능의 싹을 불러 활짝 열렸던
소년궁전의 희망찬 문도
과학의 꿈을 안고 들어서던
대학의 넓은 교문도

순간 군당청사앞에 서니
나에게 조용히 묻는듯
너 살면서 오늘까지
조국이 열어준 그 문들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언제나 열려진 그 문들에
행복의 권리로만 들어서던 이 몸
이제는 더 큰 보답의 자욱 새겨가라고
말없이 나를 깨우쳐 주누나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뒤집혀도
보답의 길에서
한치도 빗서지 말라고

내 심장을 세차게 흔들어주나니
아
나의 운명을 보살피
가장 빛나는 절정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품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내 언제나 그 품에 안긴 당원답게
나의 삶을 끝까지 빛내여가리라!

아버진 당원이나요?

당원의 영예 안고 집에 들어서는 날
풍당풍당 뛰쳐나오는 귀여운 딸애
무슨 새 소식이라도 엿들었는지
참새마냥 들까불며 물었네
—아버진 당원이나요?

빙그레 웃으며 머리 끄덕이는 나를 보고
손벽치며 까르르 웃음터치는 딸애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지 알기라도 하는듯
춤추며 돌아가는 그 모습앞에
내 눈시울 뜨겁게 젖어든다

호기심어린 맑은 눈동자
알고싶어도 다 알수 없는
당원의 세계 그 모든것
너는 이 아버지에게 묻고있는듯

숫구치는 기쁨을 진정 못하는
귀여운 딸애야 너는 이제 알리라
누구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선참 걷는 사람이 당원임을
그 길에서 누구도 꽃피우지 못한것을

기어이 피워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원임을

이 땅의 논비를 달게 맞으며
당원들이 앞장서 헤쳐가는
그 길에 다 펼쳐진단다
너희들이 만복을 누리갈
무릉도원 낙원의 새 거리도
너희들이 들어설
행복이 마중오는 눈부신 래일도...

정녕 티없이 맑고 깨끗한
너의 밝은 얼굴앞에
한줄기 웃음빛이라도 더해주지 못한다면
내 어이 당원이라 땃땃이 말하랴

아, 사랑하는 귀여운 내 딸아
이 아버지의 머리에 흰서리 내리고
내가 커서 어른이 된 그때에도
지금처럼 지금처럼
나에게 주저없이 자주 물어보아라
—아버진 당원이나요?

나의 당세포

기쁜 일이 생겨도
성큼 달려가 자랑하고싶고
어려운 일이 막어나서도
어머니처럼 의지하고싶은
나의 당세포

가는 길 폭풍이 사나울수록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악처럼
따르는 믿음 커만 가고
뜨거운 가슴 열정으로 불탈 때면
거세찬 파도처럼 나를 이끌어
이 심장 더 높뛰게 하는
아, 세포전역 돌격대 나의 당세포

추억깊이 돌이켜본다
중대당세포의 한 당원으로
어깨가 빠근하도록 무거운 임무 받아안고
비약하는 시대의 격랑속에서

홀려간 나의 첫 당생활이

험치 않았어라
중대당원들의 높은 요구성에
나의 걸음걸음을 따라세우는것은
그들의 숨결에 나의 박동 맞춘다는것은

나의 첫 당적분공을 두고
마음 기울여준 로당원들
그들은 나의 입당보증인만이 아니였다
그들의 높은 요구성에 사랑이 깔려있고
엄한 타이름속에 정이 숨배인
그들은 내 인생의 고마운 스승들이였다

비탈길에 홀린 한줄 거름도
난알마냥 소중히 모아 풀판에 뿌려주던
가물에 마르는 먹이풀을 살리려
한밤에도 남몰래 물지게를 지던
불같은 심장들에 싸여

나는 빨리도 성장했거니

이들과 함께 당생활을 같이하며
눈비세찬 등판에서 맞고보낸 그 모든것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내 한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가슴벅찬 투쟁의 나날
이들에게서 배운
당적량심

당원의 일본새...

그 모든것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재부이거니

아, 내 한생 잊지 못할
세포전역의 중대당세포
이는 나에게
참된 인간의 신발을 신겨준
정든 집이였고
혁명의 귀중한 학교였다

하늘에는 배부른 보름달이... 외 1편

최 련

하늘에는 배부른 보름달이
둥기둥기 헤엄쳐가는데
추너높은 새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살구동네 령감로친
이밤의 저 달처럼 마음 한껏 부풀었구려

—여보, 로친네!

장천땅이 오늘같이 천지개벽을 했은즉
이제 둘째 장가들일 땐
머느리취젤 호통치며 해야겠어
암, 이젠 여기가
꿈에나 그려보던 무릉도원 아닌가!
수도꼭질 살짝 틀면
하늘의 해가 끓여놓은 물이 막 쏟아지지
가스꼭질 슬쩍 돌리면
시퍼런 불이 가마에 펄펄 날아들지
앗따, 뒤마당에 구구대는 암닭 하나 목 비틀어
튀를 하고 구워내서 식탁에 척 얹히면야
이 시아버지입이 귀밑까지 돌아가
얼싸둥둥 머느리를 추어줄텐즉
반공수도 안 들이고 이런 대접 받으니
이 오죽 복받은 머느린고!
하루일을 끝내고 장천원에서
게 뭐라더라 그래, 미안을 하고
얼굴이 잘 익은 앵두처럼 탱탱해지고
문화회관무대에 척 나서서
사람들 부러워 바라보게
노래 한가락 멋지게 불러넘기면야
그게 선녀 아니고 뭐람
제아무리 뽐을 내는 도시녀인들도
우리 머느리 생활엔 모두 혀를 두를테니

아무튼 셈을 단단히 해서
우리네 꿈같은 살림에 어울릴
으뜸가는 미인을 얻어봅세!

—아하이구, 령감님두!

듣기만 해도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구려
헌데 그 욕심쟁이 그 버릇은 갈데 없수다
우리 집에야 미인보다 농사꾼이 기본이지
복받은 생활을 누리기 전에
눈물겹도록 고마운 우리 원수님을 받들어
그저 평생토록 땀흘려 일하는 그런 머느리
온실남새 포전마다 이랑마다에
바치는 진정을 흠썩흠썩 물어가는
그런 일 잘하고 성실한 머느리가 진짜
장천땅의 머느리자격 있지요
그렇잖수?

—웁아, 그 말이 참말루 웁아!

내 머느리감은
그저 로친네만 하면 합격이야!
그래두 로친네 젊었을적보단 더 고와야지
허허허!
—호호호!

하늘엔 배부른 보름달이
둥기둥기 헤엄쳐가는데
머느리욕심 일욕심에 부푼 마음도
이밤이 새도록
만복의 노를 힘껏 저어가오
더 밝고 아름다울 생활의 바다로!

위대한 시인

온 장천땅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이 희한한 새집을 받았다고
입사증과 집열쇠가 든
하얀 자그마한 봉투를 들고
저저마다 목이 메어 그저 울었다고...

아, 소박한 농장원의 흐느낌 속에
우리 눈시울 뜨겁게 적서라
《빈봉투농장》이라 수첩에 올리셨던
그날의 수령님의 아픔 지금껏 새기시고
오늘은 그 봉투마다
꿈에서나 그려보던 무릉도원
그 만복의 열쇠를 넣어주신 우리 원수님!

우리 어떤 시를 쓰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시어가 있으면
깊고깊은 그 사랑을 다 노래하고
이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운율이 있으면
전변의 그 경이로움을 다 담아내라

빈봉투...
만복의 열쇠가 든 봉투...

장천농장의 력사가 다 담겨있는
이 봉투는 분명 시였습니다
그이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시인도 쓸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를
아, 원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준공레프

과 명 첩

아직은 누구도 나란히 놓아본적 없다
준공레프와 아이들을
허나 우리 원수님 세워주신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의 그 준공레프는
다름아닌 바로 그 아이들이 끊었다

아직은 준공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희한한 이 현실
넋을 잃었다 세상사람들은
한생 오르고올라도 다 오르지 못할
행복의 그 절정에
밝게 웃으며 단숨에 올라선
우리 아이들을 부러웁게 바라보며

살오른 귀여운 손들에
정히 쥐여준 번쩍이는 은빛가위들은
진정 우리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친히 안겨주신
행복의 꽃대문을 열 열쇠였거늘

가위를 잡으면
기껏해야 색종이나 오려보았을 철부지들에게
전설속의 왕궁보다 더 으리으리한
큰집을 지어주시고
시작부터 주인의 권리를 통채로 안겨준
원수님의 고마운 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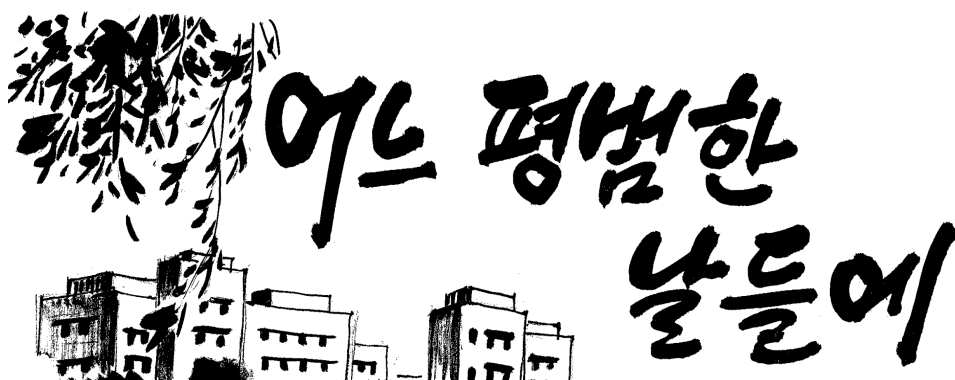
부모없는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설음의 실그늘이라도 질세라
온갖 심혈 다 기울이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 너무도 아름답게 안겨주시니
부러워한다
이제는 부모있는 애들조차
아침저녁 온종일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요람속의 이 아이들을

정녕 이 집의 준공레프는
시작도 시공도 완공도
모두 도맡아 보살펴주신
우리 원수님 선참으로 끊으셔야 했던만
그 거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하였구나
미래라는 그 하나의 자격으로

이제 세월은 흐르고
이제 아이들은 자라며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가지가지 추억들이
수없이 덧쌓이라
하지만 그 어떤 추억도
사랑의 준공레프를 끊던 이 추억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숭엄하지는 못하리라

오, 믿어의심치 않노라
조국은 인민은
원수님 안겨주신 그 붉은 준공레프를
값높은 인생의 출발선으로 삼고 떠난 너희들
이제 자라고자라
이 땅위에 보답의 준공레프를
저마다 줄줄이 드리워
자식된 도리 충신의 도리를 다하리라는것을



락 속 본

인민사랑의 화원으로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최광철검사는 만수대에술극장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극장분수대앞에서 여러쌍의 신랑신부들이 사람들의 축복속에 앞을 다투어 결혼식사진을 찍고있는 행복한 모습이 보여왔던것이다. 그런데 그들속에 한쌍의 신랑신부결에서 둘러리로 서있는 젊은 부인이 너무도 낮은 모습이여서 다시금 눈여겨보았다.

옳았다. 몇해전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벌어진 심각한 문제로 하여 눈물속에 하늘가 저 멀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하던 처녀, 그 장영숙이었다.

집에 돌아온 최광철은 불밝은 거리를 내다보며 더욱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처녀를 알게 되던 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러갔지만 어제런듯 평범한 날들에 있었던 그 일들이 방불히 안겨왔다.

1

최광철이 출장길에서 돌아오니 책상우에 문건 하나가 기다리고있었다. 지난주에 자리를 뜬 사이에 리정수검사가 어느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을 취급하고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자료였다.

사건을 기록한 자료는 얼핏 훑어봐도 씻어놓은 팔알같이 미끈했다.

이름 장원철

직장직위 상무정밀기계종합공장 자재과장

안해 신금순 부양 (특기사항 심장병 협심증 3기)

아들 장룡은 조선인민군 군인(포병)

딸 장영숙 국가과학원 나노기술국 연구사(리과 대학졸업)

내용은 창고화재사건으로서 재산피해액이 엄청나다느것이였다.

자료에는 이상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본인이 누른 지장까지 있었다.

자료를 보고난 최광철의 마음은 착잡했다. 조금전에 책임검사가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광철검사동무, 책상우에 있는 자료는 리검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다보니 채 결속하지 못하고 간사건에 대한 자료요. 평소에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집단에서 선망의 눈길을 모으던 동무가 아니었소. 큰일을 할 동무였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런 불상사가 있는지 참 가슴아픈 일이요. 그래서 토론끝에 이 미결유고자료를 동무에게 맡기기로 했소. 이달중에 사건을 결속해야 하오. 오늘이 25일이니 날자가 긴장하오. 태달엔 다른 파업이 있소. 화재사건이니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을상싶소. 자료를 잘 결속하기 바라오.》

그는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다. 자료에는 전검사가 화재사건을 취급하면서 애쓴 노력이 력연하였다.

...화재로 손실된 창고는 본래 창고로 건설한 건물이 아니고 공장기능공학교 실습장으로 쓰던 건물이었다.

공장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실습장을 새로 꾸려주고 이 건물을 자재과에서 부족되는 창고로 쓰게 했다. 그러니 건물에는 전기조명장치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하루밤사이 그 창고가 불탔다. 화재의 원인이 처음에는 전기사고로 판정되였다. 이 사건은 창고장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창고에는 조명을 할수 없게 되었는데 창고장이 어째서 조명선을 철수하지 않았는가? 창고장은 그 책임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결국 창고장은 규정위반

으로 런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때 자재과장 장원철이 그것을 부정해나섰다.

《전기선은 화재발생 이틀전에 내가 전공에게 지시하여 절단했습니다. 창고장은 그걸 모르고있기때문에 변명을 못했을것입니다. 때문에 전기사고에 의한 화재발생요인은 성립될수 없습니다.

그날에 창고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는 바람에 날리는 지붕을 수리하면서 그우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고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사람이 없다면 담배불에 의한 화재사고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화재는 제가 창고지붕우를 내린지 여러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창고천정에 톱밥이 깔려있는 조건에서 모의시험을 해보면 그 진실여부를 증명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문 일꾼들은 놀랐다. 그의 말대로 톱밥에 담배불씨를 넣고 시험해보니 과연 6시간만에 정확히 불이 일어났다. 관계일꾼이 장원철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제재가 동무에게...》

《물론 각오하고있습니다.》

《이런 변이라구야!》

그는 놀라와 말을 맺지 못했다.

《죄없는 창고장이 법적책임을 지는것을 나는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

《정말 량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장원철이 화재사건의 주범으로 법앞에 나서게 되었다....

최광철은 곧 일에 착수했다. 광철은 장원철이 일하는 공장 지배인에게서 사건발생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금 듣게 되었다.

...

화재발생당일 퇴근무렵에 공장구내에 강풍이 들이닥치었다. 바람은 구내길바닥을 훑으며 건물벽체를 때렸고 지붕을 통채로 날려버릴듯 기승을 부렸다. 바람속을 뚫고 퇴근길에 올랐던 장원철은 문득 정문가까이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정문지붕에 씌웠던 아연도철판이 바람에 날려 와당랑거리며 발앞으로 굴러가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창고가 걱정되었다. 장원철은 즉시 발길을 돌려 창고로 달려갔다. 여러 동의 창고건물은 이상이 없었지만 동떨어져있는 하나의 창고(실습장으로 쓰던 건물)가 문제였다. 가까이 가보니 창고에 씌운 아연도철판들이 한쪽귀가 들려 당장 어디론가 날아가버릴 자세였다. 그는 발길을 돌려 사무실로 내뒀다. 망치와 못이 있어야 했던것이다. 얼마후 장원철이 창고지붕우로 나는데 올라갔을 때에도 바람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 그는 귀가 들린 철판들을 끌라 부지런히 아귀를 맞춰 못질을 했다. 웅웅 소리를 내며 기승을 부리던 바람이 잦아들자 그는 담배생각이

나 담배를 붙여물었다. 지붕작업이 끝나갈무렵 숨져가던 바람이 또다시 살아나 옷깃을 파고들었다. 순간 웅 하고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는 바람이 입에 물고있던 물주리를 날려보냈다. 담배불씨들이 반디 불마냥 날아갔다. 작업을 끝냈을 때 번덕스러운 바람은 잦아들었다. 구름이 밀려간 하늘에서는 쟁반 같은 달이 내려다보고있었다, 마치 좋은 일을 하고난 그를 칭찬하며 미소라도 짓듯이.

지붕을 내린 원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서성거리었다. 애용하던 물주리를 바람에 날려보낸것이 허전해왔던것이다. 달빛속에서 한동안 신고를 해서야 물주리를 찾아쥐었다. 물주리를 손에 쥐니 팔생각이 났다. 언젠가 등산기념이라며 딸이 선물한 생당쭈물주리였다. 기분이 좋아진 장원철은 그 자리에서 담배 두대를 런거퍼 피우고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식사를 하고난 원철은 피곤때문인지, 식곤증때문인지 인차 꿈나라에 빠졌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지붕우에서 피운 그 담배가 화단이 됐지요. 불이 났습니다. 그가 창고지붕에서 내려온지 6시간만에 말입니다. 창고는 밤사이에 재가루가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되어 그는 스스로 본 의아하게 화재사건의 장본인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냥 퇴근했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창고가 걱정되어 세찬 바람속에서 잘한다고 한 일이 그만에야 이런 결과가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참 생각할수록 유감스럽습니다. 법에서 이 점을 꼭 고려해주시 바랍니다. 그는 량심적이며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 말을 듣고 광철은 말없이 책상만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한참만에 지배인에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배인 동지.》 광철은 레절있게 말을 이었다.

《화재사건은 일반형사사건들중에서 가장 중히 처리되는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지배인동지도 아시겠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에 따르는 법적 제재에는 예누리가 없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더 파보겠습니다.》

검사의 말에 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 그만두고 입만 찹찹 다시다가 무겁게 몸을 돌려 가버리었다. 그후 광철의 마음에는 무죽한것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지배인이 장원철이 진실하고 량심적인 일꾼이라고 하던 목소리가 추처럼 마음속에 매달렸던것이다. 현재 그는 나이가 55살이다. 그의 가정에는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아들이 있고 리과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같은 연구사인 청년과 당장 결혼을 하게 되어있었다.

《참, 이런 집안에...》

광철은 생각이 깊었다. 그래서 전 검사도 생각이 많아 사건을 결속하지 못하고 간것 같았다.

출근길에 최광철은 정문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안원을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오? 어떻게 보안원동무가 첫시간부터 날 기다리고있소?》

《말씀드릴게 있어 왔습니다.》

보안원의 얼굴은 저즈기 긴장되어있었다.

《뭐요?》

《창고화재사건 말입니다. 다시 료해한데 의하면 창고의 크기며 내용물적재량에 비하면 화력이 굉장히 컸다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말하기를 한창 불붙을 때 뭐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까지 나면서 불길의 더 세차졌다는것입니다. 그 창고안에 다른 발화물질이 더 있지 않았는가 하는것이 의심됩니다.》

광철은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창고안에 다른 발화물질이 있었다면 결국 장원철이가 무엇을 숨기고있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지배인은 그가 랑심적이고 진실한 일군이라고 곱씹어 보증하지 않았는가.

보안원을 보내고난 광철은 잠시후 당사자인 장원철과 마주앉았다.

고개를 수그린 그는 검사가 묻는 말에 공손히 대답하였다. 약간 갈린 목소리이기는 했지만 비교적 논리가 명백하고 간결했다.

광철이 화재사건의 동기에 대해 묻자 원철은 《화재사건의 동기는 담배불에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의 말은 이미 전 검사가 다 확인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무엇때문에 그걸 묻는지 모르겠다는 투였다.

《원인은 담배불이 정확하오. 그런데... 하나 묻지요. 원철동무, 무얼 숨기고있는게 있지 않소?》

장원철은 흠칫 놀라는가싶더니 인차 낮색을 바꾸며 되물었다.

《숨긴다는건요? 이런저런 내 담배불에 의해 화재가 일어났고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데 무얼 숨기고 무얼 또 캐겠다는겁니까? 난 법적처벌을 받을 준비가 다되어있습니다.》

광철은 원철의 뻔뻔한 어조에 몹시 실망스러웠다.

《원철동무! 명심하시오. 우리 법일군들은 사람들에게 처벌이나 주고 판결이나 내리는 기계같은 사람들이 아니요. 시간을 줄테니 잘 생각해보고 정확히 대답하기 바라오.》

광철은 장원철을 내보내고나서 담배를 피워물며 생각에 잠겼다.

장원철은 지금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면 그만인데 하는 생각으로 태도가 뻔뻔한것 같은데 그에게

는 사회주의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그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우월성을 자기의것으로 체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창고화재사건을 실무적으로, 현상적으로 처리하면 안되겠다고 광철은 생각을 굳히었다.

광철은 움쭉 일어나 책임검사의 방으로 갔다.

책임검사는 광철의 세포비서이기도 하였던것이다.

다음날 광철은 승용차로 300여리가 넘는 먼길을 달렸다.

차는 밤새 먼지를 뒤집어쓰고 달려 아침해가 뜰 무렵에야 장원철의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 도착했다. 광철은 지휘관에게 사연을 말하고 원철의 아들 장룡은과 마주앉았다. 그들이 앉아있는 성산초소앞으로는 봉래호에서 시작된다는 역곡천이 흐르고있었다. 광철은 장룡은에게 아버지의 친구로서 철원 지방에 출장가는 길에 들렸노라고 말했다.

초소근무가 힘들지 않는가, 아픈데는 없는가, 집 생각이 나지 않는가 등 광철의 물음에 룡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집생각이 나군 합니다.》

초소근무를 마치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문득 집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고, 그럴 때면 학교에서 뛰놀던 동무들이 생각나고 도학생소년회관에서 미래를 꿈꾸며 학습에 힘쓰던 일들이 다 뜻깊게 돌이켜진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제일 어머니가 그리워진다고 회정을 터치였다.

《동무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던데... 그래도 어머니의 얼굴이 제일먼저 떠오른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머니 역시 나를 자신이 낳아키운 친자식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형제에게 정이 떠질가봐 친자식도 안 낳고 모든 정을 깡그리 기울여 우리를 키워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다 말하자면 몇밤을 새워가며 해도 못다할것입니다. 지금도 어머니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제일먼저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떠오르는 한가지 일이 있습니다. 중학시절 어느날 자연관찰을 간적이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에 싸준 밥은 아버지가 챙겨준것이여서 내놓기 쑥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집에 나들이를 갔었으니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먼발치에서 어푸러질듯 달려오며 나를 찾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싸들고오는 어머니는 미역을 감은듯 온몸이 땀으로 질벅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한테서 기별을 받고 음식을 꾸러가지고 30여리길을 한달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날 어머니의 출현으로 우리 학급의 분

위기는 참으로 즐거워졌습니다. 나보다도 선생님과 동무들이 더 기뻐했으니 말입니다. 동무들은 한결 같이 훌륭한 어머니라고 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어머니에 대해 가슴뿌듯한 감정을 느껴본 때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때때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난 말이에요, 어머니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진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정은 바로 자식들에게 바치는 영원한 사랑이며 자기희생이 아니겠나요. 자기희생을 긍지로,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무의 짬시간에 언제나 기억의 쪽문을 열고 제일먼저 비쳐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

최광철검사는 다음날 돌아오는 길로 장원철과 마주앉았다. 아들을 초소에서 만나본 사실을 이야기하고나서 광철은 말을 이었다.

《동무는 두 어린 자식에게 친어머니의 정을 그대로 안겨준 그 너인으로 하여 꽃피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것이 두렵지 않소?》

그런데도 법앞에 할 말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요?》

《...》

《여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나에겐 시간이 없소.》 하고나서 광철은 말을 이었다.

《동무는 담배 한대로 앞날을 포기한것 같은데 그러면 안되오. 나는 동무가 대바르고 하고싶은 말도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오.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동무는 이 검사가 놀랄 정도로 당당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왜 주눅이 들어 모든걸 포기해버린 사람같소? 나는 동무가 법앞에 하고싶은 말이 반드시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오. 사람은 파오를 범할수 있소. 그래서 법도 있고 법일군도 있는거요. 그들을 교양하기 위해서 말이요.》

장원철은 이때에도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광철이 힘을 주어 말했다.

《원철동무, 정말 법앞에 할 말이 없소? 좋소. 그러면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 동무에게 한가지만 똑똑히 말해주겠소. 화재사건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것은 명백하지만 나는 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는 재판장에 세울수 없다는거요.》

광철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원철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광철은 답답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창문을 활 열 어제끼었다.

바람이 확 얼굴에 끼쳐왔지만 마음은 시원치 않았다.

장원철을 만나고난 광철은 또다시 출장길에 올

랐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간에 걸치는 현치료해에서 그는 가방이 불룩하도록 자료를 건어쥐었다.

장원철이를 료해한 자료들가운데는 그때의 정황을 그대로 쓴 글줄도 있었다.

생산과 지령원 1996년 12월 20일에 있는 일.

...년간 생산결속을 앞두고 공장에서는 피아노선이 걸려 애를 먹고있었다.

협동품으로 받아쓰는 피아노선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있는것이다.

매일 생산참모회에서는 자재과장을 달구어댔다. 장원철이 자재공급소장에게 안타까운 소리를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생각던 끝에 장원철은 창고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창고안에는 여러 규격의 철선통구리들이 당반마다에 질서정연하게 놓여있었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장원철은 제일 마지막당반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 구석쪽으로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철선통구리가 보였기때문이다.

《창고원동무, 이 철선의 재질이 무엇이요? 왜 이 철선은 이렇게 보관하고있소?》

과장이 묻는 말에 그는 오래전에 들어온 피아노선으로 재질검사에서 규격이 맞지 않아 생산에 쓰지 못하고 묵고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창고원의 말을 들은 장원철은 속으로 옳구나— 하고 피아노선 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제품검사표를 찾아보았다. 한참만에 기름투성이가 된 검사표를 찾아냈지만 글자를 알아볼수 없었다. 창고원이 결례를 가지려갔지만 장원철은 그동안을 참지 못해 손수건을 꺼내 검사표를 말끔히 닦았다. 깨끗하던 손수건이 순간에 기름범벅이가 되었다. 규격이 초과되어 생산에 쓰지 못했던 피아노선이 틀림없었다.

이날 장원철은 피아노선을 분석실에서 재질검사를 다시 하게 하고 연선작업반에서 피아노선의 규격을 낮추어 생산에 쓰게 했다. 그리하여 연간 지표별계획수행에 그늘을 던졌던 피아노선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령원은 말했다.

《과장동무는 수백수천가지나 되는 생산제품부속품들과 자재종류를 손금처럼 알고있습니다. 피아노선 이야기도 창고원마저 모르고있었던것을 과장동무는 기억하고있었기때문에 연간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었던것입니다.》

자재과 계획원 2013년 10월 5일에 있는 일.

《우리가 가을철나무심기에 동원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담당구역에 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5년생 창성이깎나무였습니다. 나무를 심고 버팀대

까지 세우는데 해가 산정으로 넘어가고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버팀대가 모자랐습니다. 아직 버팀대를 세워주어야 할 나무가 여러대 남아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날도 저물어가는데 내려갔다가 래일 나무를 마저 심을 때 버팀대를 세워주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와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비바람이 산정을 휩쓸었습니다. 나무모가 걱정되어 버팀대를 안고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갈 때 어찌도 가을비가 세찬지 나무가지들은 태질을 당하고있었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가 심은 나무모에 버팀대를 대고 결박끈으로 간간히 고정시키고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랐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과장동무였기때문입니다. 나무심은 정형을 보고하러 갔던 그가 비바람이 치자 나무모가 걱정되어 현장으로 달려와 버팀대를 세워주고있었던것입니다. ...》

운수와 운전사 2013년 5월 3일에 있는 일.

...자재과사무실앞에서 차근차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동무에게 목적지까지 리정표에 따른 기름공급량을 적은 전표를 내보냈는데 전표를 고쳐달라구?》

《과장동진 내 차가 낡았다는걸 알지 않습니까?》

과장은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사리에 맞게 말했다.

《전달에도 난 동무가 낡은 차를 끄는 먼거리운전사라구 정량을 초과해서 휘발유를 공급했었지. 그때 동문 뭐라고 약속했던가. 다음번 장거리할 땐 새 차로 만들어가지고올테니 믿어달라구 하지 않았었나? 근데 그때 한 말은 어디다 뺄개치고 또 오늘도 그 본때요?》

《다음번엔 꼭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또 다음번엔가? 그러면 안되지. 그럼 이렇게 하가요. 소빨은 단김에 빼랬다구 내 출장길에 먼거리운전사들을 생각해서 덕천에서 신형부속 몇가지를 구해가지고온게 있네. 그속엔 새로 창안한 휘발유절약기도 있소. 그걸 가지고가서 당장 차정비를 잘해가지구 오라구. 그러면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주겠네.》

며칠후 차정비를 멋들어지게 해가지고온 운전사가 과장에게 말했다.

《과장동지, 고맙습니다.》

《명심하라구. 운전사들은 부속이 하나 나가면 돌을 가져다붙이는 심정으로 차를 관리해야 하오. 그래야 기름을 절약할수 있소. 살림살이를 물감장사하듯 간지게 하라는건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이 아닌가. 나는 운전사들중에서 먼거리운전사들을 중히 여기고있소. 먼거리운전사들이 실어오는 강재물동량에 공장생산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말이요.》 이

렇게 말하며 장원철과장은 그가 떠날 때 식비에 보테쓰라고 제 주머니를 털어 적지 않은 돈도 쥐여주었다.

《먼거리에 배푼지 말고 많이 먹고 힘껏 달리라구.》 인정미가 넘치는 과장의 배려움이였다.

최광철검사에게 운전사는 말했다.

《〈불비한 차로 먼거리를 떠나보내면 난 마음을 못 놓아. 차가 제 날자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디서 또 차가 고장났는지, 운전사가 때식이나 제대로 하고있는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거던. 고속하지 말고 음주하지 말라, 굶인돌이와 물매길을 주의하라, 밤에 정 졸리면 무조건 차를 세우고 한 20분 눈을 붙이라.〉 차가 달릴 땐 과장동지의 당부가 들려오는듯 하여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그런 일군이 어찌하여 사고를 쳤는지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

화재사건을 파고들수록 최광철검사는 이 사건은 진상이 명백하므로 사건을 빨리 결속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했던 자신의 애초의 생각이 경솔했다고 여겨졌다. 그것은 장원철의 첫 대면에서 받았던, 사람이 몹시 뻔뻔하고 까다롭고 지어 거만하게까지 느껴졌던 인상이 지금에 와선 매우 고지식하고 진실한 언행으로 안겨왔던것이다.

하지만 최광철검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범일군으로서 주권과 립장이 확고했다.

그날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자리를 뜨려던 광철은 현기증으로 하여 비칠거렸다. 의자등받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한 그는 푸름푸름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꼬박 이틀을 난알 한알 입에 넣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던 자신을 느끼였다.

이때였다.

갑자기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광철은 이 새벽에 누가 찾아왔을가 하는 생각에 한참만에야 대답하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장원철의 안해 신금순이였다. 광철은 놀랐다. 심장병이 심하다는 녀인은 전번에 만나 담화할 때보다 더욱 병색이 짙어보이였다. 눈부위가 부석부석한 녀인은 광철에게 두손으로 봉투를 넘겨주며 남편이 쓴 편지라고 했다. 결봉을 뜯어보니 과연 장원철이 자필로 쓴 짤막한 글이 적혀있었다. 내용인즉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꼭 만나 달라는것이였다.

최광철검사는 신금순을 보내고 서둘러 장원철을 불렀다. 얼마후 장원철이 터벅터벅 들어섰다.

그리고는 한동안 주뭉거리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검사동지, 저때문에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듣고 빨리 재판에 넘겨주기 바랍니다.》

《?!》

《요전번 검사동진 나에게 뭔가 숨기고있는게 있다고 했지요? 옳습니다. 제 오늘 지금까지 검사동지에게 말하지 않고있던 죄행을 털어놓겠습니다.》

광철은 눈을 찡뜨리고 지그시 원철을 바라보았다.

《그게 뭐요?》

《휘발유문제입니다.》

《휘발유?》

《그렇습니다. 휘발유절약장치를 도입하여 절약한 기름을 넣은 50키로짜리 비닐통 2개를 창고에 보관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만...》

《뭇때문에 그걸 건재창고에 보관했소?》

《비상용으로 가지고있으려고...》

광철은 그 말이 대뜸 리해되었다.

최근에 휘발유사정이 긴장해지면서 공장에서는 휘발유를 요구하는 단위가 많았다. 일꾼들도 그렇고 여러 생산직장들에서 이런저런 항목으로 때없이 자재과장에게 제기해오는것이 휘발유였던것이다. 그러니 장원철이 휘발유여유를 조성해놓고 그런 대목에 쓰려고 했을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그런데 그 휘발유가 창고화재를 가속화하는 불미스러운 촉매체로 리용되리라고 꿈엔들 생각했는가.

《그럼 그 사실을 왜 지금까지 숨기고있었소?》

《...》

《자재취급에서 규정과 질서를 어기고 그 휘발유로 하여 창고화재피해가 확대되었으니 겁이 나서 그랬겠지.》 하고 광철은 정통을 찔렀다.

《그게 다요?》

이 물음에 장원철은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에 최광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찡뜨리고있던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검사동지, 정말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장원철은 10년도 썩 이전에 있었던 일을 실토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의 일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장되어있던 통나무를 장사군에게 넘겨주고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것과 그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사취한 사실을 털어놓는것이였다.

광철은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광철의 입에서 처음으로 여보, 당신이라는 된소리가 나왔고 지어 손바닥으로 방안이 드르륵 울리도록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걸 왜 오늘에 와서 말하는가?》

《화재사건을 취급당하면서 저는 한생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까지 감추고있던 흑점이 시종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죄의식을 느낄수록 참기 힘든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이윽고 최광철은 흥분을 누잠하며 조용히 물었다.

《세월이 흘러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하필 화재사건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마당에서 굶어부스럼 만들듯 끄집어내면...》

광철의 말끝이 흐리마리해졌다.

《검사동지, 량심에는 시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심연속에서 흘러나오는 장원철의 말이였다.

이때 그는 울고있었다.

사정없이 불을 타고 내리는 원철의 눈물을 보는 순간 광철의 마음은 몹시 어리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때서는 안되겠지만 동정심은 괴로움으로 바뀌어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쓰리고 아팠다.

아, 어찌하여 량심적으로 일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였는지, 창고지붕수리, 휘발유사건, 통나무 불법처리, 이 모든것의 출발점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했던가.

규정된 질서와 제도, 원칙, 정녕 이것만이 법일 군들의 무기인가.

광철검사의 마음은 이 시각 점차 원철의 량심으로 쏠리고있었다.

장원철이 휘발유문제와 통나무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자백을 받은 최검사는 다음날 장원철의 집으로 갔다.

4

최광철이 장원철의 가정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의하면 당장 결혼식을 해야 할 그의 딸 영숙이와 약혼자 철우의 사랑이야기는 꽤 긴 역사를 가지고있었다.

어려서 한마을에서 자라며 신동으로 소문났던 그들은 중학교시절에 등산야영으로 묘향산에 갔었다.

등산야영의 즐거움은 이들에게 깊은 추억을 남기였다.

10월이였지만 산은 산대로, 골은 골대로 단풍의 그 밝은 여광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양지바른 인호대는 단풍이 한창인듯 붉게 불타고있었고 묘향산절경으로 손꼽히는 상원암머리우로는 질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인호대절벽밑으로는 계곡을 울리며 쏟아져내리는 구슬같은 룡연폭포의 물갈기가 마치 하늘에서 금방청룡이 소리치며 내려쫓히는듯 그 광경은 참으로 장쾌하고 황홀했다.

즐거운 야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철우는 영숙이에게 묘향산등산기념품이라고 하며 생당썩물주리를 준적이 있었다.

그후 철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리과대학에 입학했고 2년후에는 영숙이 역시 그 대학 학생이 되였

다. 대학과정을 마친 철우가 박사원을 거쳐 국가과학원 나노연구소에 배치되어간 후 영숙이 역시 철우와 똑같은 길을 걸어 마침내 나노연구소 연구사로 배치되어갔다. 마치도 천상배필인듯 한 그들은 영숙이가 연구사로 된 몇해후에는 약혼식을 했고 가을에 결혼식을 하기로 약조가 되었다.

그런데 철우의 부모님들이 재외에 장기간 파견되어가게 되어 신랑측에서 결혼식을 앞당겨 하자고 제기해왔다.

하지만 결혼식은 쉽게 이루어질수 없게 되었다. 신부의 아버지가 법정에 나서게 되었으니 어찌...

광철은 영숙이와 철우의 의향을 다 청취했다.

영숙의 목소리.

《저는 스스로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화재사건의 원인은 담배가 아닙니까. 아, 철부지시절 제가 아버지에게 생당쑥물주리를 드린것이 이렇게... 아버지는 가끔 우리 영숙이가 준 이 물주리로 담배를 피우면 그 맛이 꿀처럼 달단 말이야, 그래서 담배를 곱배기하게 되지 하시며 담배를 더욱 많이 피우셨어요. 그때 왜 철없이 그 물주리를 아버지에게 드렸던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막심합니다. 아버지에게 애연의 큰길을 열어준 이 딸이 따지고보면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게 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제가 어떻게 결혼식에 응할수 있겠습니까? 가슴만 아픕니다, 검사동지.》

철우의 목소리.

《검사동지, 사실상 생당쑥물주리의 장본인은 제 자신입니다. 영숙동무에게 생당쑥물주리를 주어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한것이 제가 아닙니까. 그 생당쑥물주리가 없었더라면 영숙동무의 아버지의 운명이 달리 될수도 있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부모님들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가시겠다니 세상에 이처럼 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한스럽습니다.》

두 청년은 백지처럼 깨끗한 심정들을 토로하며 피로와하였는데 이때 영숙이도, 철우의 눈에도 애절한 눈물이 소리없이 넘쳐내리고있었다.

장원철의 안해와 영숙이, 철우를 생각할수록 검사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했다. 장원철의 형사문제는 결혼식문제로 잇닿아져 광철검사의 마음을 괴롭히었다.

이 시각, 책상우에 놓여있는 재판에 기소할 장원철의 문건이 광철의 눈에 안겨왔다. 기소장에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검사의 수표란이 최광철의 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었다. 수표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가, 사건을 결속해야 할 마감날까지는 이제 하루밖에 없다.

사실 재판에 기소할 장원철의 문건을 공식적으로 넘겨주면 그것으로 검사의 일은 일단락지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최광철검사는 좀더 생각해보고싶었다. 결혼식문제를 놓고 그의 딸 영숙이와 철우가 하던 말이 귀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때 광철은 원철이를 재판장에 세우기 앞서 법일군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것은 원철에게 배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싶은것이었고 가족들에게 앞날에 대한 믿음을 새겨주고싶은것이였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5

집에 들어왔지만 최광철검사의 마음은 여전히 가법지 않았다.

피곤이 확 물려서인지 머리까지 지끈지끈 쑤서왔다. 장원철의 사건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며 사건의 경위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나날에 겪고있는 고심과 번뇌, 허기와 피로때문인가. 결코 그것만이 아닐것이다. 부언컨대 최검사는 이 시각 마음이 진정으로 편치않았다.

최광철이 법일군으로서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사건을 취급했지만 장원철의 사건처럼 다루기 딱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일군이라고 하면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존재로 여기고있다. 하지만 우리 법일군들에게 이런 큰 고충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많지 못할것이다.

장원철의 문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장원철이 재판에 회부되면 공민으로서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잃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협심증이 심한 그의 처는? 그리고 당장 결혼식을 해야 할 딸은 어떻게 되며 신랑이 될 철우와 결혼식을 해주지 못하고 해외로 파견되어가는 그의 부모들의 심중은 또 얼마나 무겁겠는가. 아, 정녕 재판기소장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수표란에 이 최광철의 이름을 써넣어야 한단 말인가. 정말 다른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으로 모대기는데 아래방에서 안해와 딸이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가 문사이로 들려왔다.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딸이 먼저 말한다.

《어머니, 아까 보셨지요.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안하시고 가방을 놓기 바쁘게 침대에 누우시는걸. 식사도 안하시고 꼭 무슨 일이 있는것 같어요.》

처의 대답.

《일이야 무슨 일, 아버지 하시는 일이란게 늘 많이 신경쓰는 일이여서 그러시겠지.》

《고민거리가 있는것 같아요. 말도 안하시지, 열굴이 꼭 병지낸 사람같이 축하했던데요.》

《엔 별소릴 다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겠지.》

《엄마, 아버지의 직업은 참... 세상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직업, 그래서 존경하고 우러르는 그런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검사직업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이 아니예요. 벌을 받은 사람들이야 제가 아무리 나쁜짓을 했다 해도 아버지 좋게 보겠어요? 후날 길가에서 만나도 인사는 고사하고 뒤에 대고 주먹질하지 않으면 다행일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보세요, 어머니. 학교선생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 하며 누구나 존경하지 않아요. 또 당일군들은 그들대로 〈우리 비서동지〉, 인민반장까지도 〈우리 인민반장〉 이라고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고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시는 검사일은...》

물론 딸자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다. 최광철은 자신을 거울앞에 세워놓고 질문해보았다.

거울속에 나타난 최광철이 묻는다.

《장원철이가 자기자신이거나 영숙이가 당신의 딸이라면 그때에도 형사소송법의 칼을 날카롭게 들 것인가?》

그에 대한 광철의 대답.

《물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이 사명이다. 때문에 법전에서 뒤걸음칠수 없다!》

또다시 울리는 거울속의 광철의 목소리.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자에 대해서는 용서할수 있다고 형법에 성문화되어있지 않는가.》...

대답하지 못하는 광철이.

또다시 따지듯 말하는 거울속의 광철이.

《범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것만이 아닌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이 숭고한 의미에서 우리 법일군들의 사업실적이 아닌가.》

광철은 장원철의 사건을 놓고 두 극단에서 오락가락했다.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도 장원철이를 화재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덮어버릴 공간은 보이지 않았다.

아, 정녕 다른 길은 없는가.

그는 계속 장원철의 형사문제를 놓고 몸부림을 치고있었다.

광철검사는 밤이 깊도록 사색에 사색을 거듭했지만 실통한 안을 찾아낼수 없었다. 백군데를 찢러보

았으나 해결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한치의 앞도 분간할수 없는 컴컴한 밤, 천고의 밀림속에서 길을 잃고 온밤 출구를 찾아헤매는 사람같이 여겨지었다.

새벽 2시, 벌써 새날이 시작되고있었다. 오늘중에 재판기소문건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담당검사수표란에 이름 석자를 써넣어 문건을 넘겨야 한다.

광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씻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그는 혼눈처럼 하얀 백지를 꺼내놓고 그우에 일사천리로 펜을 달려나갔다. 최광철이 글을 다 썼을 때 방송에서는 《애국가》의 선율이 숭엄하게 울려나오고있었다.

6

그때로부터 며칠후였다.

최광철검사는 검찰소일군들과 같이 도당회의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당에 내려보내주신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다.

도당의 책임일군이 연락에 나와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재사건으로 창고가 불타버린 손실도 큰데 거기에 량심적인 일군까지 형사책임을 지우는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당조직에 보고한 법일군의 립장을 당중앙은 지지한다고,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또다시 일으켜세워주는것이 우리 당의 품이라고 하시면서 99프로의 나쁜 점에 단 1프로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어주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상두정밀기계종합공장 화재사건을 심의한 일군과 같은 법일군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강위력한 일심단결의 조국으로 세상에 빛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전달이 끝났을 때 모임장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조선로동당 만세!》

《만세! 만세!》

이때 영숙이는 신금순의 품에 와락 안겨들며 《엄마, 엄마, 어머니! 어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꿈이에요? 꿈이 아니지요?》 하고 흑흑 어깨를 사정없이 떨었다. 그러자 신금순이 역시 《영숙아, 영숙아, 아!》 하며 딸을 더욱 꼭 껴안았다.

서로 꼭 그러안고 흐느껴우는 모녀의 모습을 보며 모임참가자들은 또다시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환호성을 터치었다. 삼시에 만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언제까지 울고난 영숙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광철이결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움켜잡고 《검사동지, 검사동지.》 하고 말할뿐 고맙고 고맙다는 말은 쏟아져내리는 눈물이 대신하는지 어깨를 떨며 여전히 흐느끼기만 했다. 그러는 영숙이의 손을 뜨겁게 잡고 진정하라고 거듭 말하는 최광철검사의 눈에도 맑은것이 가득 고이고있었다.

이 광철을 크나큰 걱정속에서 바라보고있는 사람들의 눈에 어린 물기가 해빛마냥 빛나고있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사람치고 울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눈물겨운 사실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눈물에는 소리가 없다. 하지만 그 눈물처럼 더 큰 웨침은 없을것이다. 사람들은 그 뜨거운것에서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웨치는 심장의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최광철검사에게 영숙이의 결혼식날자를 알려주며 장원철이 말했다.

《바쁘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십시오. 아이들이 검사동지를 꼭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검사동지가 안 오시면 결혼식상을 신랑신부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한 최광철은 트렁크 하나를 꺼내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 트렁크를 가지고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가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트렁크는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트렁크안에는 장원철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영숙이의 결혼식을 자신이 차려줄 결심으로 마련했던 신부에게 줄 레단품들이 가득 들어있었던것이다.

다음날 결혼식을 한 영숙의 부부가 검찰소에 찾아왔다.

거듭거듭 인사를 하고난 신혼부부는 깨끗하게 만든 봉투를 책상우에 놓고갔다.

무엇일가?

최검사는 물론 방안에 같이 있던 책임검사와 동무들이 일시에 봉투에로 눈길을 쏠렸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봉투를 뜯어보던 광철의 눈이 번쩍했다.

동시에 곁에 섰던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듯 입이 동시에 하— 벌어졌다.

봉투안에는 기쁨과 행복속에 밝게 웃고있는 신랑신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지 않는가?

사진뒤등에 또박또박 정성들여 쓴 글이 안겨왔다.

《이 사진을 우리 검사동지에게 드립니다.》

이때 부서동무들이 서로서로 사진을 돌려보며 정말 이번에 광철검사가 좋은 일 했다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언제인가 딸이 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우리 선생님, 우리 비서동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아, 우리 검사라는 이 고귀한 부름으로...)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는 최광철검사는 자기 직무를 두고 이때처럼 가슴흐뭇하게 생각해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때로부터 1년후 최광철검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장원철이 상두정밀기계종합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한다는 기사를 읽고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1프로의 긍정이 99프로의 부정을 이긴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신념의 철학을 더더욱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었던것이다....

최광철이 생각에서 깨어나니 방송에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우러르며 따르는 **김정은**원수님의 고마움에 대한 노래선율이 은은히 흘러나오고있었다.

아, 원수님 계시여 우리 인민모두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가. 장원철, 장영숙 그들의 가정도, 법일 군인 우리모두도!

가 사

내 한생 강철로 우리 당 받들리

심 재 훈

위대한 수령님들 높은 뜻 받들여
강철과 인연맺은 나는 쇠물집후손
쇠물빛노을로 원수님께 기쁨 드리며
내 한생 강철로 우리 당 받들리

사랑도 행복도 쇠물에서 찾았네
위훈도 영예도 쇠물에서 꽃피웠네

쇠물로 우리 삶 더욱더 불태워가며
내 한생 강철로 우리 당 받들리

번영하는 이 땅우에 증산의 불길 높이
선군조국 내 나라의 역센 기둥 세워가리
쇠물로 강성조선 그 위용 더욱 떨치며
내 한생 강철로 우리 당 받들리

시 조

고향과 어머니

김진주

산골소녀

너를 떠난지
이제는 스무해가 넘었구나
그 언제 하루도 잊고산적 없는
고향이어

나의 말씨
나의 걸음새
나의 성미까지도
고향이어 내 너를 닮아
오늘도 나에게선 산골티가 풍기거니

꿈에서라도
내 어찌 너를 잊으랴
맨발로 뛰어다녀도 부드러운
풀잎이 무성한 산골길을
금은화며 산나리꽃을 곱게 엮어
머리에 엮던 그 꽃잎 그 향기

공부가 끝난 뒤엔
토끼풀바구니를 안고
내 줄겨 뒤산에 올랐지
산비둘기 울어에는 그늘질은 산골짜기를
제 집뜨락처럼 무서움 모르고 다녔지

지금도
입안이 시여오도록 먹어보고싶다
어린 마음을 끝없이 유혹하던
개암이며 산딸기를
해저무는줄 모르고 따먹던
머루며 다래를

맑은 공기
깨끗한 풀잎과 키높은 나무
온갖 새 우짖는 숲은
나의 동심을 받아주던 푸른 궁전
소녀시절의 아름다운 꿈과 공상을 준
둘도 없는 나의 벗이었나니

너를 떠난지
이제는 스무해가 넘어
층높은 아파트 변화한 도시생활에 습관됐으련만
오늘까지도 나에게선
산골에서 몸이 익힌
그 생활 그 일습씨가 변하지 않았나니

내 어찌 달리 되랴
이슬 머금은 산천의 풀잎처럼
때묻지 않은 마음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산골길처럼
식을 모르는 걸음새
푸른 하늘을 향해 아지를 뻗친 이갈처럼
변심을 모르는 끝은 성미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나는 산골소녀
풍만한 숲이 준 열매를 먹으며
수려한 숲이 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꿈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고 마음을 자래워온
아, 순진한 그날의 산골소녀로
내 언제나 조국앞에 서고싶어라

우리 집

온 가족이 모여앉는 저녁이면
우리 집은 늘 웃음꽃이 피곤 했다
두 언니는 아버지등에 업히고
나와 남동생은 아버지 두팔에 매달려
좋아라 웃곤 했다

그 모습을 거울속에 보며
아버지도 웃고 우리 네형제도 웃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상한다고
걱정속에 또한 웃었다

아, 웃음이 많았던 우리 집
언니들의 가야금소리
동생의 피리소리로 흥겹던 집
유정한 달빛에 실어
재미나게 들려주던 할머니의 옛이야기로

밤새는줄 모르던 화목한 우리 집

참으로 행복했다

어머니는 탁아소에서 일숨씨가 깎진 취사원
아버지는 설계실에서 손꼽히는 기사
일욕심이 많은 할머니는
돼지도 여러 마리 길러
인민군대에 보내야 성차했거니

근심도 걱정도 없었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아침이면 우리 네형제는 학교로 갔다
학교로 가던 그 언덕길로

언니들도 나도 대학으로 떠나갔고
남동생은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갔다

아,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따뜻하고 화목한 우리 집의 웃음꽃을
우리 네형제는 저마다 생활의 보금자리로 떠올
겨갔다

더 밝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오늘은 자식들이 그 웃음꽃을 피워가는
이것이 정녕 이것이
목숨보다 더 귀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의 가장 큰 재부가 아닐까

토장국맛

어릴적부터

내 즐겨먹던 토장국

어머니 정성들여 끓여주던

고향집의 토장국맛

내 오늘도 잊을수 없구나

어머니가 쏜 메주장으로

후더분하게 끓인 시래기국은

오동지설탕에도 땀방울 돌게 하였지

그 냄새도 감미로운 호박장 감자장은

오뉴월의 더운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지

세상에 진수성찬 많다 해도

내 바꾸지 못하리

밥술을 뜨던 그때부터

내 입에 맞들인 메주장맛

어머니손맛이 폭 배인 그 토장국맛

그 어디서 산대도

내 즐겨 찾게 되더라

입맛을 잃었을 때조차

내 먼저 찾게 되더라

고향의 맛—토장국을

아, 뜬김서린 고향집부엌에서

구수히 풍겨나오는 토장국

내 언제나 물리지 않듯이

어머니정이 스며있는

고향에 대한 사랑도

내 한생토록 물리지 않으리라

고향과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찌릿한 정 불러내는

고향아 너를 그려볼 때면

제일먼저 어머니얼굴이 떠오른다

자그마한 몸매에 일손을 놓을줄 모르시던

근면하고 소박한 그 모습이

지도에도 올라있지 않은

자그마한 산골마을

내 어린시절이 흘러간 고향집엔

어머니 달여주던 들큰한 둥굴레엿냄새며

구수한 토장국냄새가 넘쳐있었거니

추운줄 몰랐고

배고픔도 부러움도 모르게 해준 곳

따스하고 훈훈한 온돌방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아, 그 고향집이

어머니가 있어 그리도 좋았던줄

그때엔 미처 몰랐구나

추억만으로도야

너를 다 노래할수 있으랴

산골의 음향으로 메아리치던

어머니 빨래방직질소리 유정 한 시내가

내 자식을 키우느라

언제한번 쉴 사이없었던

어머니발자국이 총총히 찍힌 오솔길

깊은 향수를 불러내는

낮익은 그 산골길을

오늘도 어머니 손목잡고 걸고싶구나

그날의 장난꾸러기가 되어

신천의 엄마들

원 영 옥

사백어머니 묘!
이 차디찬 땅속에
부풀은 젖가슴을 안고
아이들을 목메어부르다 숨이 진
어머니들이 누워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젖줄기에서부터 흐르건만
한평생 바쳐도 아낌없을 엄마의 사랑
다 쏟지 못한 사랑을 안고
오늘도 땅속에서 아이들을 찾고있는 엄마들이다

내 품에 잠든 아기를 보며
생각하노라
땅속에 묻혔어도 잠들지 못하고있는
사백엄마들을

태줄을 끊어 생명을 준 어머니
젖을 물려 행복에 겨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진정 자식의 죽음을 위한것이었던가
철부지 어린것들을 찾고 부르던
그날의 피의 절규가
이 비석으로 굳어진건 아니던가

목놓아 엄마를 부르며
물을 찾고 젖을 찾다
목이 타든 아이들
그 어린것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고 수류탄을 퍼붓고는
너털웃음치던 미국의 승냥이들

꿈에서라도 안아

젖품을 열고 젖을 물려주고싶은
그 자식들이 곁에 있건만
안아줄래야 안아줄수 없는
피호르는 가슴을 부여안은채
두눈을 감지 못한 엄마들이
지금 내앞에 있다

아이들의 봉분이 솟은 땅을 두고서는
두발가진 승냥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수 없는 엄마들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또 오는
계급의 후손들에게
사백엄마들은 당부하고당부하나니

내 아들들아 딸들아
이 엄마들의 비둘에 꽃대신 칼을 갈아다오
원쑤의 가슴팍을 꿰여지름 칼
미국놈의 씨종자를 남김없이 칼탕칠
복수의 칼을 갈고갈아다오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못한 젖줄기
오, 땅속에서도 엄마들의 사랑은 끊기지 않아
증오로 불타오른다
피가 되어 솟구친다

기어이 받아낼 신천의 원한
기어이 결산할 조선의 피값이기에
미제승냥이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땅속에 묻혀서도
자식들을 키워가는 녀인들이 내앞에 있다
신천의 엄마들이 여기에 있다!

어머니가 머리를 감겨주시던 그 시내가에서
물장구치며 뛰놀고싶구나

그 무엇과 바꿀수 있으랴
이 몸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의 그 숨결 그 정 그 체취가
고향의 공기로 흐르는 곳
나의 첫걸음 떼여주고 바른길로 떠밀어준
어머니의 그 헌신 그 수고가
고향의 사랑으로 가슴젖는 곳

오, 나에게 이 고향이 있었기에

인생의 땀땀길을
외로움 모르고 자부심에 넘쳐 갈수 있어라
천걸음 만걸음을 걸어도
어머니 익혀준 그 걸음으로
단 한자옥도 헛디딤없이 곧바로 갈수 있어라

한생토록 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내 마음과 정신을 키워주는 고향
별거숭이 그날에도 백발을 날리는 그날에도
고향과 어머니는 애국의 모습으로 새겨져있으리
아, 고향과 함께 영원한 나의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단상들

김 은 희

어머니에 대한 글은 정말 많다.

어머니들에게 바쳐진 시가와 노래 또한 많고도 많다.

다함을 모르는 샘마냥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그 어머니들의 노래에 오늘은 나의 소박한 목소리도 보태고 싶다.

바치고싶었던 어머니

아래의 이야기는 나의 어머니가 이야기해준 보지 못한 할머니의 초상이다.

나의 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벽성의 심심산골이었다.

나의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무척 예뻐다고 한다.

순산의 땀방울이 흥건한 얼굴로 고요한 잠에 든 어머니의 옆에 누워있는 애기를 들여다보며 두 오빠가 동시에 속삭였다.

《야, 곱구나.》

그 속삭임을 듣기라도 한듯 애기는 꿈지락거리더니 알팍한 눈시울을 가만히 울려뚝뚝. 파르스름한 눈자위에 박힌 까만 눈동자는 보석같이 신비롭게 반짝거렸다.

그날부터 두 오빠의 끔찍한 사랑속에 자라난 소녀는 오빠들을 따라 안 다니는데가 없었다.

하얀 박꽃을 지붕에 다복다복 이고선 자그마한 초가이영집을 나와 바위돌밑에 서둘러 몸뚱아리를 숨기는 가재들의 모양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새말간 시내물이 돌돌 흐르는 골짜길을 십리쯤 내려오면 십여호 남짓한 농가가 모여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중의 한집이 서당이었다.

소녀는 오빠들이 다니는 서당에도 들어가고싶었지만 그때만 해도 남존녀비사상이 우심하던 지난세기 20년대 초엽이라 늙은이들은 제집에가 무슨 서당출입이나 하며 아예 질색을 했다. 오빠들을 기다리며 마당가에서 공기돌놀이도 하고 반디벌레를 쫓아다니기도 하다가 때로는 서당집기둥에 기대어 줄기도 하며 소녀는 뜰개굴이나마 익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소녀는 배움을 남모르는 소원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나도 배웠으면. 내가 녀자가 아니었으면...)

그러나 무정한 세월, 각박한 세월은 그 소원엔 아랑곳 않고 그냥그냥 흘러만 갔다.

그후 산촌의 나리꽃은 배움의 소원을 종내 꽃피우지 못한채 꺾이우게 되었다.

품팔이군으로 떠돌아다니던 한 총각의 눈에 걸려든 것이었다. 처녀의 미모에 홀딱 반한 총각의 지꿎은 청혼과 단련에 임자에게 무어 볼것이 있느냐 하고 도리머리를 하던 처녀의 부모들은 총각의 집이 도회지, 해주라는 말에 마침내 승낙해버리고말았다.

산골에서 대처로 흘러나온 녀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품팔이군이라 남편은 집에 붙어있는 날이 드물었고 닥치는대로 일해먹던 나날의 뜨내기술버릇까지 붙어 주정뱅이가 되어버렸다. 돈이 몇일 생기면 곧장 술집에 갔다가 고등어 한손 쥘해들고 역병으로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실망한지 오랜 나의 할머니에게서는 이미 배움이란 농작안에 접어둔 갑사대기였다. 미련이란 덧없는것이라 할머니는 덧없는 그 꿈을 나의 어머니에게 다시 없었다.

배움이 소원이었던 제 엄마의 한이 그대로 막내딸의 피와 살로 빚어졌는지 그 딸애는 다행히도 글 읽기에 성수였다. 조발에 새 쫓으라고 내보내면 조발 한가운데 들어가배겨 사립학교에 다니는 옆집 오빠의 낡은 교과서를 들이쫓고 나무하러 가라면 뒤산에서 해지도록 내려올줄 모르고 공부에 여념이 없는 딸애였다. 할머니는 그 딸만은 꼭 공부시키고싶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머니가 11살나던 해에 젊음을 판속에 고이 넣고 세상을 떠나갔다. 가슴앓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위암이었던것 같다.

마지막림종의 순간에 남편에게 하였다는 할머니의 말.

《우리 애를 꼭 공부시켜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딸에게 없었던 자신의 소원마저 꽃이 피는 날을 보지 못하였다. 그 딸애를 공부시키려고 무엇이든 바치고싶었으나 육체가 그를 배반하였던것이다.

바치고싶었지만 할머니는 바치지 못하였다. 바칠수가 없었다.

세월탓이었다.

나의 할머니들의 운명은 해방전 왜놈들의 폭정아래 짓도 펴지 못하고 스러진 수많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운명의 축소판이라 해야 할것이다.

어머니가 부른 《어머니!》

사람들은 나의 어머니를 보고 박복하다고 말했다 한다.

왜 그렇지 않으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데다 녀성의 두번째 생이 시작된다는 결혼생활 10여년만에 오빠였고 지우였고 동지였던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날수 없는 곳으로 먼저 떠나보냈던것이다.

강좌장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지방의 현실체험지에 나갔던 아버지는 뜻밖의 사고로 그곳에서 순직하였다.

나는 그때 일곱살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어머니를 생생히 기억한다.

갓 파헤쳐진 봉분결에 시뻘건 진흙이 무저있던 자그마한 산기슭. 그 산자드락에 아카시아나무들이 핑창히 많이 우거져있던것이 인상적이였다.

한쪽에선 그 아카시아 하얀 꽃송이들이 무덕무덕 피며 세상에는 해가 있고 꽃이 있고 삶이 있는데... 하는듯이 꽃향기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녀인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조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철모르는 나는 이쪽저쪽 뛰어다니며 아카시아꽃들을 꺾어 기다란 풀피로 꼭 묶어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제상의 아버지사진앞에 갖다놓았다.

그것이 슬픔을 겨우 누르고있던 어머니를 크게 자극할줄이야.

그 철없는것이 가져다놓은 꽃다발이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생들을 의식케 했던것이다. 서로 손을 꼭 잡고 눈을 꼭 내리깔고 서있는 두 사내애며 유치원생인 딸애 그리고 집에 두고온 탁아소생 막내... 이들을 나 혼자 어찌하라고 남편은 저렇게 먼저 간단 말인가.

어머니는 혼절하여 쓰러져버렸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는 두번을 더 그렇게 까무러쳤다.

어머니에게는 것처럼 생이란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란것이 무섭게 심장을 압박하였고 눈앞을 캄캄하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어머니의 앞을 밝게 비쳐주었다.

어머니의 머리위에 드리운 먹장구름을 헤가르며 파스한 해살을 뿌려주었다.

해빛과도 같은 그 이름을 우리 인민은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 불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가슴아파하시다가 아이들이 넷이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당이 그 애들의 아버지를 대신해주자고 은정깊은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 말씀을 전달받으며 어머니는 또 울었다.

《엄마야!— 어머니!》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는 그때 자신의 꿈이어서 딸에게라도 기탁했던 그 배움의 소원마저 풀어주지 못하고 비명에 세상을 떠나간 자기의 어머니를 찾지는 않았을것이다.

바치고싶어도 바칠수 없었던 그 어머니를 목메여 부르지는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밖에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대변할 다른 말마디를 찾을래야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자신을 가장 비참한 운명이라 생각했던 한 어머니가 가닥가닥 어느 한곳도 빼놓지 않고 비쳐드는 해빛의 파사로움을 한몸에 다 받아안으며 부른 《어머니!》.

그것은 로동당시대의 우리 인민이 달리는 부를래야 부를수 없는 단 한마디의 강렬한 레찬이거늘 그 부름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울릴것이다.

어머니가 되어서 안 어머니사랑

너 기어이 가야만 한다면

어머니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똥까지

한해에 두살씩 먹으리

몇년전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오영재선생의 이 시구절이 문득 떠오른다.

그때야말로 내가 나이 마흔이 지난 어머니로서 칠순을 켜 넘긴 어머니의 《봉양》을 받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나는 그때 병원에 입원해있었던것이다.

녀자는 세번 태어난다고 말한다. 출생했을 때와 시집갈 때 그리고 어머니로 될 때. 이것이 꼭 맞는 말이겠는지는 모르나 나는 녀성은 어머니로 될 때만이 비로소 완벽해진다고 생각한다.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들에 대

한 효도, 사회앞에 지닌 공민적의무감, 이 모든 것을 마음과 어깨에 걸머지고가는것이 어머니인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 완벽성에 그들을 던지는 한 가지 허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되어서도 받아안는 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토록 마음속 빛으로 남게 되는것이다.

그때는 푸른 잎사귀들이 왕성한 여름계절이었다.

의사,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과 치료에 의해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던 나날끝에 나는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병원의 그 좋은 식사조건의속에서도 나의 어머니는 빈번히 남편의 손에 색다른 반찬이며 절제들을 들리워 보내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궤도전차로선이 수리중이었다. 오늘은 집에서 면회를 오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침대에 드러누워 책을 읽고있었는데 푹푹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너로하신 어머니가 문가에 서계셨다.

《아니?! 어머니! 그 몸에 어떻게? 궤도전차가 다니나요?》

두서없이 묻는 나의 앞에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보온통보자기를 풀어놓아주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회복에 좋다는 민물고기탕 한그릇을 먹이려고 그 먼길을 걸어서 오셨던것이다, 일흔이 썩 지난 그 나이에...

그때 내 입에 들어간것이 국물이였는지 눈물이였는지...

그 국 한그릇이 뭐라고 딸자식을 위해 그 먼길을 걸으신단 말인가.

나는 뽀뿌라나무가 키높이 우거진 가로수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아, 어머니의 사랑.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대가를 모르는것이고 자식이 없는것이고 변함이 없는것이다. 이 사랑은 자식이 다 자라 늙은이가 되어도 어머니 자신이 생을 마칠 때까지는 영원히 자식을 위해 바쳐질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느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세부이다.

위대한 어머니

어머니!

바치는것이 삶의 전부인 어머니!

그 이름 부를 때면 걱정의 물결기를 앞세우며 이

마음속에 우렁이 떠오르는 존귀하신 영상이 있다.

주체102(2013)년 11월.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은 뜨거운 걱정으로 뒤설레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이 군부대용사들의 묘를 찾으신것이다.

청춘의 애젊은 나이에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을 뒤에 두고 떠나간 해군용사들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그이께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묘를 돌고도시었다. 한바퀴, 두바퀴, 또 한바퀴...

소복한 묘의 잔디도 쓸어주시고 돌사진속의 애젊은 병사의 시뭇이 웃는 모양도 이윽도록 지켜보아주시고 엄격한 표정의 지휘관의 모습도 물기 번쩍이는 안광으로 쓰다듬어주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이 용사들과 영웅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병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회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용사묘를 하냥 떠나지 못하시었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용사들의 묘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지,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순간 숨죽은듯 고요하던 바다가 들쭉기 시작하고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해군용사들의 넋인양 파도의 물결기가 좌-좌 달려와 끊임없이 기슭을 쓸고 쓰다듬고는 그다음엔 정녕 못 떠나겠다는듯 대지를 품껏 그러안고 모래불에 스르시 찾아들었다.

수행했던 일군들과 지휘관들은 종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그리하여 해군용사묘에는 군건설사에 여직껏 있어본적 없는 새로운 전설이 깃들어 《묘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이라는 존귀하신 존함이 새겨지게 되었다.

나는 그 뜨거운 사연에 접하면서 또다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시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 하면 사람들은 사랑과 함께 헌신, 이 말을 나란히 떠올린다.

어머니를 규정짓는 많은 속성들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이 헌신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이어가시는 성스런 첫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러하신것처럼 자신께서도 인민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겠다는 초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때 인민이 눈물속에 받아안은 정의와 진리가 있었으니 이 말씀에는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것이다.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은 그야말로 헌신의 자욱자욱이다.

헌신, 이 말은 바친다는 의미이다. 타산없이, 사심없이, 모든것을 깡그리....

우리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하는 이 조선, 이 인민을 위해 사색을 바치신다. 정열을 바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대로 지켜주신 이 조국땅에 많고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바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제적인 문수물놀이장 건설형성안을 113건 보아주시였다. 이렇게 사색을 바치신데 이어 건설장에만도 5차례, 9월에는 며칠을 사이로 두차례씩이나 찾으시는 정열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렇게 바치신 사색과 정열, 로고에 의해 3~4년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땅을 뒤덮었던가. 이것이 과연 우리 원수님께서 빛나라 이 강산 사회주의조선, 충직한 인민을 위해 바치신 헌신의 산물이 아닌란 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병사들에게, 우리 인민들에게 사랑과 정을 바

치신다.

우리 인민은 너무도 많이, 너무도 익히 그이의 모습을 뵈워왔다.

눈물겹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민을 위해 정을 기울이시고 사랑을 바치시는 그이의 영상을.

설날 첫아침에 찾으신데 이어 국제아동절에도 평양애육원, 육아원의 원아들을 찾으시여 조금 있으면 식사시간인데 아이들이 밥먹는것을 보고 가시겠다며 귀하신 시간을 내어 기다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에는 아이들의 손이 얼겠다고 빨리 장갑을 끼라고 이르시며 눈물도 다정히 닦아주시던 그이의 정깊으신 영상을 세월이 흐르고흐른들 어이 잊을수 있으랴.

그때 인민이여!

이런 인민의 령도자를 우리 과연 위대한 어머니라고 부를수 없단 말인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헌신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토록 멸사복무하시는 우리의 원수님, 그이를 우리 정녕 어머니, 어머니라 부를수 없단 말인가.

나는 부르고싶다. 이 나라 사람들의 진정을 합쳐 부르고싶다.

아! 위대하신 어머니!

아!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처럼 살련다. 헌신을 락으로 여기시는 그이처럼, 그이처럼...

상 식

축구와 음악

축구와 음악사이에는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킨다는 의미에서 밀접한 호상협력관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시작전 경기장에 줄을 지어 입장할 때 음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들에서는 득점이 날 때마다 그것을 환호하는 곡조가 울려나오고있다. 국제경기들에서 어느 나라의 축구애호가들이나 경기에서 자기 팀 선수들이 국가를 들으며 서 있을 때 긍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르곤 한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축구감독 조반니 트라빠토니도 역시 음악이 선수들을 더 훌륭하게 만든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언제인가 《모짜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축구를 더 잘할수 있을것이다. 음악을 통해 음정, 박자, 리듬을 알게 되며 경기를 분

석하는데 필요한 론리적기술을 체득하게 된다.》고 말한적이 있다.

축구선수들자체가 열광적인 음악애호가들이다.

이미 한 과학연구사는 음악이 축구선수들의 조종능력을 얼마만큼 높여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축구》라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랑팀 선수들이 모두 무선레시바를 착용하고 특별한 음악을 들으면서 경기를 진행하게 하였다.

한 팀은 선수들이 특정한 음악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켜놓고 듣게 하였고 다른 팀은 동시에 듣게 하였다. 결과 동시에 같은 음악을 들은 팀 선수들 사이의 공력력이 보다 정확하였다.

연구결과를 축구세계와 음악세계의 밀접한 관계를 확증해주고있다.

어머니는 집을 나뉜다

리 명 학

해빛도 밝은 11월의 아침
오늘은 어머니들의 명절이어서
내 자식들을 앞세우고
어머니를 찾아오는데
어머니는 집을 나서렵니다
향기 그윽한 꽃묶음 정히 안고

반백의 머리를 쓸어올리며
조용히 웃음짓는 어머니
류달리 정깊은 그 눈빛으로
아들 며느리와 손자들을
별써 다 안은듯 싶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머니
자식위함이 온 생의 기쁨인듯
한생을 다 바쳐오신 어머니
오늘은 자식들이 안고온 꽃다발속에
한껏 묻혀야 할 어머니날입니다

바람 세찬 한겨울에도
어머니를 그리면 가슴 후터웁습니다
창공에 나는 새
어머니는 시련도 용감히 헤쳐가는
억센 힘이었습니다

부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윽한 그 눈빛속엔
다 썩여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
어머니 찾아가시려는 만수대언덕

아, 가슴뜨거워라
내 어머니를 찾듯
어머니 또한 못 잊어 찾는
어머니가 계시나니
어머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딸
오늘도 변함없는 당의 딸입니다

같이 갑시다 어머니
함께 갑시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의 날
어머니 가시는 길
그 길은 우리모두 가야 할 충정의 길

아, 어머니는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들 딸 며느리 다 따라섭니다
한생의 스승인 어머니를 따라
온 가정이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의 꽃다발에 자식들의 꽃다발도 합쳐...

가 사

전승기념탑 여기서는

김 명 성

거리와 마을마다 꽃물결이 흐르고
행복의 노래소리 강산에 넘치건만
50년대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가
전승기념탑 여기서는 아직도
그날의 포성이 멎지를 않았네

월미도의 해안포는 지금도 달아있고
떼목우의 중기는 지금도 불을 뿜네
50년대 전쟁은 과거만이 아니기에

전승기념탑 여기서는 오늘도
미제와의 격전이 끝나지 않았네

꽃들은 피고지고 세월은 흘러가도
영웅들의 그 당부 심장을 꿰어주네
락동강의 붉은 피 한시도 잊지 말라
전승기념탑 여기서는 우리를
미제와의 최후결전으로 부르네

영원히 잊지 않을 전쟁 3년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서평

—노래 《전쟁의 3년간》을 들으며—

김 학

60여년전 포화에 몸부림치던 강산이 전승의 예순두돌기를 맞아 뜨거운 열기로 끓어번지었다. 7월의 해별이 뜨거워서만이 아니다. 네번째를 기록하는 전국로병대회가 전승의 열병광장이 있는 영웅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열렸다.

력사의 그날 하얀 원수복을 입으시고 열병식의 높은 연단에서 세계를 향하여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전승을 축복하시던 수령님이시던가, 불비를 헤쳐온 전쟁세대들의 위훈을 다시금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주시며 우리 원수님 대회장에 올리신 축하연설의 열화가 대대로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이 나라의 심장심장들을 불덩어리로 달구어주어 전승절전야가 그리도 끓어번졌던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원한 승리의 7.27을 열망하여 때없이 부풀어오르는 전후세대들의 가슴을 더욱 격동시키며 조국해방전쟁 3년간의 의미를 심오한 서정으로 밝혀보인 사색깊은 시대의 명곡이 나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기적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고있다.

그것이 바로 노래 《전쟁의 3년간》(집체 작사, 설태성 작곡)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사람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진군을 고무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1. 력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

《전쟁의 3년세월 길었던가 짧았던가...》

노래는 첫구절을 이렇게 펴고있다. 시작부터 사람들을 사색의 세계에 깊숙이 끌어들이고있다. 정

녕 길었던가, 짧았던가...

길었다. 전쟁 3년간은 참으로 길었다. 길었다는 것은 지겨웠다는것이며 힘겨웠다는것이며 고통스러웠다는것이다.

인류전쟁사에는 수십년 지어 수백년을 살륙의 불속에서, 피바다속에서 허우적거린 실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수십년, 수백년과 맞먹을 정도로 치열했고 참혹했던 전쟁이 바로 3년간의 조선전쟁이었다. 방금 서있던 아바트가 콩크리트바닥에 꺼꾸로 처박히고 박우물바위도 폭격에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혁명시인 조기천이 격노하여 웨친것처럼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 피갈이 타버리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많은 침략전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행하였다고 한다. 그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도발되였는데 대표적인것은 조선침략전쟁, 월남침략전쟁, 중동전쟁이었다. 그가운데서 조선전쟁은 그 규모상으로는 격렬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었다.

조선전쟁에서 총포탄뿐아니라 폭탄들, 세균무기,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생명을 대량적으로 학살한 미제의 귀족같은 만행은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도 없는것이였다.

하기에 노래는 이 모든 참상을 《얼마나 많고많은 아까운 생들이 싸늘히 식어누웠》는가고, 《이 땅의 모든이들이 혈육없이 흘린 눈물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고 절절히 부르짖으면서 《불속에 고통속에 잠겼던 3년》을 《력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이라고 절규하고있다.

그렇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도전해나선 조선전쟁의 3년간은 그야말로 가장 아픈 력사의 상처가 아닐수 없었다.

노래는 전쟁 3년간에 겪었던 우리 인민의 고통과

슬픔을 결코 외면하려 하지 않았다. 분식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과장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산야엔 흙보다도 탄피가 더 밝히고
강들엔 눈물과 피가 흘렀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참혹한 전쟁이었네
거리와 마을들에선 애처로운 울음소리뿐
...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랴. 그래 전쟁 3년간의 참혹상을 《숨이 진 전우들을 묻지도 못했다》는 고백, 《덮어줄 기폭마저 총탄에 찢겼》다는 절규,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진격로 열어나갔》다는 열변보다 더 정확히 드러낼 언어, 더 절절하고 더 생동하게 그려보일 설명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것은 비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염전은 더 우기 아니다.

아픔이고 웨침이고 진실이고 전쟁 3년간에 대한 역사의 평가이다. 잊혀지지 않는, 잊어서는 안될, 영원히 기억하고 결산해야 할 역사의 빛에 대하여 노래는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이라는 단마디명구로 규정하고있다.

그러고보면 시간의 길이는 체험의 깊이이다. 고통은 순간도 긴 법이다. 자주적인간의 복된 삶을 맛본 인민에게 중세기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악몽의 3년은 백년, 천년맛잡이었다.

그러면 전쟁의 3년간은 길기만 했던가. 짧기도 했다.

불속에 고통속에 싸늘히 식어누운 아까운 생들의 원한을 생각하면, 혈육없고 흘린 눈물과 강들에 흐르는 피, 거리와 마을들에서 그칠줄 모르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묻지도 못한 숨이 진 전우들을 생각하면 복수의 3년세월이 너무도 짧았다.

눈도 감지 못하고 간 부모머자의 이름으로 잡아야 할 양키승냥이들은 그 얼마이며 이 땅에서 새들도 사라지게 하고 꽃들도 재로 만든 만고의 죄행을 피로 결산하자면 맞대고 속시원히 육박전이라도 벌릴 시간이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의 손길아래 어제날의 흙잠뱅이 농군들과 맨주먹의 노동자들, 책상물림의 남녀청년학생들이 어떻게 오만한 제국주의우두머리들의 상통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영웅들로 자라나가를 세상앞

에 똑똑히 보여줄수 있는 나날이 요구되었다.

짧았다. 조금만 더 목을 조이면 아예 숨통이 끊어지고말 제국주의괴수가 그만에야 너무도 질겁해서 《최강》의 체면마저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급기야 항복서에 도장을 찍어버린게 아쉬웠다.

노래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형상의 여운은 이렇게 질다.

그렇다. 《전쟁의 3년세월 길었던가 짧았던가》, 이 하나의 문장에 3년간 조국해방전쟁의 전모와 역사적의미가 다 상상된다.

상처는 아물어도 허물은 남는다. 전쟁 3년간의 참혹상을 통하여 우리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절감하게 한 여기에 이 노래의 형상적 건인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의 3년세월이 길었던가 짧았던가 하는 이 수사학적물음은 전쟁의 3년간이 시대, 역사앞에 제기한 물음인 동시에 작품이 제기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2. 귀한것 잃었지만 귀한것 얻었네

전쟁 3년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귀한것들을 잃었다. 아까운 생들을 잃었다. 혈육들을 잃었고 전우들을 잃었다. 해방후 피땀흘려 이룩해놓은 민주건설의 귀중한 재부들을 잃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미처 다 알수 없었던...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소중한가만 했던... 그것들을 잃었다. 전쟁, 전쟁만 아니었다면...

하거늘 잃기만 했던가. 잃기만 했다면 전쟁 3년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노래는 정당하게도 이 문제에 예민한 형상적관심을 돌리고 철학적으로 파고들으로써 심오한 인식교양적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전쟁의 3년세월 목숨과 맞바꾸어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네

귀한것 잃었지만 귀한것 얻었네

위대한 승리란 그것을

소중한 모든것을 시련에서 구원한 날들

영원히 잊지 않아 위대한 전승사를 전쟁의 3년간

목숨이 귀한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자주독립국가로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올라선 새세상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운명전환의 행운을 뼈에 사무치

게 절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어서 그들은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진격로 열어나갔》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맞바꾸어》 둘도 없는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다. 하기에 노래는 《멸적의 근위부대들 전투포화 헤친 그 길들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목메어 구가하면서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는것이다.

전쟁의 3년간이 영원히 잊지 않을 《위대한 전승사》로 빛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목숨과 맞바꾸어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으며 《소중한 모든것을 시련에서 구원》하고 《위대한 승리란 그것을》 얻었다.

무엇을 구원했든가, 령토? 명승고적? 문화재?... 그보다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전통을 구원했고 동방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구원하였다. 강성조선의 미래를 구원하였다.

《신화는 깨어졌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전 미국무장관 마샬)

《솔직히 말한다면 조선전쟁은 커다란 군사적재난이었으며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랫들리)

《개국 이래 미국의 위신이 지금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진적은 없었다.》(전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

그렇다, 우리는 전쟁 3년간에 세계평화에호력량의 전폭적인 지지와 편대성만 얻은것이 아니었다. 치면 꺼꾸러지는 미제의 내리막길의 수치스러운 전통을 기록한 패전력사의 시간표만 얻은것이 아니다.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 우리는 매 사람의 운명과 영예는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것, 진정한 조국이 있고서야 자신도 있고 가정도 있고 고향도 있는 법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얻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울 때 절령 못할 고지가 없고 타승 못할 적이 없으며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다는 담대한 배짱과 신심을 얻었다.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비할수 있는 풍부한 전투경험과 우리 식의 군사전법을 얻었으며 강철로 단련된 불패의 정규무력과 공고한 후방, 믿음직한

국방공업을 얻었다.

참으로 귀한것을 잃었지만 귀한것을 많이도 얻었다.

정녕 조국해방전쟁은 《참혹한 3년간》이었지만 《위대한 3년간》이었다. 력사의 이 진리를 풍만한 형상으로 펼쳐보인데 이 노래의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3. 사색, 탐구의 응당한 결실

집중과 집약이 가사형상의 생명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작품에서나 효과를 보는것은 아니다. 가사형상의 생리에 정통하고 그것을 내용의 깊이있고 뚜렷한 발현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때 명가사가 되는 것이다.

노래는 례외적으로 형상대상의 폭이 매우 크다. 전쟁 3년간... 한권의 장편소설에도 다 담기 힘든 력사적사변이 몇줄 안되는 가사에 충분히 실렸다.

우선 하나에서 열백을 헤아리게 하는 전형적이며 철학적인 세부들이 탐구되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상징하는 력사적인 사실, 생활적인 세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가사가 탐구, 선택한 세부는 그 전형성에 있어서나 생동성, 표현성에 있어서 그리고 진실성에 있어서 주옥같은것이다.

《불속에 고통속에 잠졌던 3년》, 《얼마나 많고많은 아까운 생들이 싸늘히 식어누웠나》, 《이 땅의 모든이들이 혈육없고 흘린 눈물》, 《산야엔 흙보다도 탄피가 더 밝히고》, 《강들엔 눈물과 피가 흘렀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거리와 마을들에선 애처로운 울음소리 뿐》, 《숨이 진 전우들 묻지도 못했다네》, 《덜어줄 기폭마저 총탄에 찢겼네》,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참혹한 전쟁》의 상황이 더 설명할 여지없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이러한 세부들이 《력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으로 집약되어 가사의 정교성과 함축미를 담보하고있다.

노래는 독특한 서정구조로서 효과적인 감정조직을 보여주고있다. 례외적으로 네개의 절로 된 가사는 3절까지 구체적인 생활세부로 전쟁의 참혹성과 준엄성을 강조하면서 감정을 한껏 축적, 승화시켰다가 4절에 가서 비교적 안정된 호흡을 주면서 사색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청춘언제는 어떻게 일떠서는가

—레성강청년발전소 돌격대원의 일기에서—

김 경 석

갑자기 불어난 장마철 큰물이
무섭게 사뭇쳐흐르던 날
《가물막이둑이 터진다!》
누군가의 다급한 웨침소리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침병... 침병...

사나운 소용돌이 덮쳐드는 물의 광란
모두를 삼켜버릴듯 날뛰는 퍼런 물갈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육박해가는
우리를 사정없이 밀어내칠 때
정— 우뢰보다 크게 울린 지휘관의 목소리
《서로 손을 붙잡으라—》

순간 억세계 마주잡은 손과 손
그렇게 이어진 《손바줄》
사전에도 없는 《사람바줄》이
하나의 소원을 엮으며 이어졌다

그 손과 손, 어깨와 어깨를 거쳐
흠마대가 흘러갔다 콘베아처럼
돌과 돌이 날아들었다 폭포처럼
마침내 물길의 숨통을 짓눌러놓았다

흐르는 분분초초 맥은 진해가도
결코 진해서는 아니될
더더욱 강해질 조국의 힘이
우리 그때 지켜선 가물막이둑과 함께
언제, 다름아닌 언제에도 채워지고있기에

아, 원수님 계시는 평양하늘 우리러
《불타는 소원》의 노래 부르며
레성강청춘들이 잇고이은
억척의 《강철띠》— 그날의 《바줄》이어
결사옹위 결사관철 한모습을 빛내이며
심장과 심장의 《바줄》들이
청춘언제를 받들었다

결국 처절한 감정과 함께 서서히 끓어오른 분노의 감정은 원썩격멸의 기상으로 양양을 보이다가 위대한 전승사의 의미를 자욱자욱 새겨보는 추억과 긍지의 감정으로 마무리를 짓고있다.

이것으로써 노래는 양상 또한 자기식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처절하기는 하지만 비애적인것이 아니며 어둡기보다는 무거운것이다. 하여 전반적으로 의지적이며 사색적인 색깔을 진하게 띠고있다. 이것이 력사의 진실을 정서적으로 인상 깊게 밝혀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가사 《전쟁의 3년간》에서 우리는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사에서는 표현으로 한몫 보려고 할것이 아니라 전체 시형상을 통하여 한덩어리의 생동한 화폭을 펼쳐놓으면서 많은것을 련상시키고 깊은 여운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깊이 절감하게 된다.

가사 《전쟁의 3년간》에서의 언어는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고 또 평범한 말 같지만 다 읽고나

면 전쟁 3년간의 전모가 생동한 화폭으로 떠오르고 위대한 승리의 피의 대가에 대하여 오래동안 생각할수 있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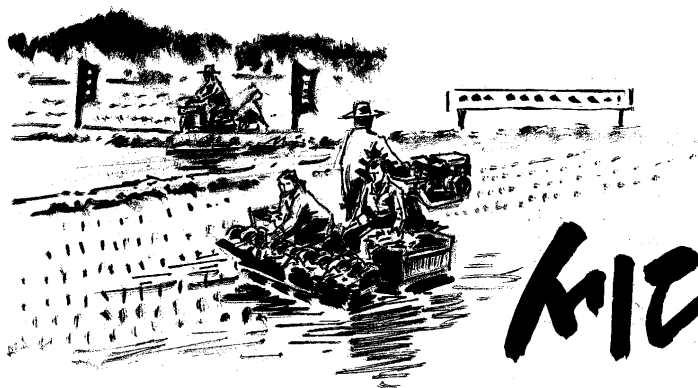
가사의 운율이 또한 특색있다. 고전적인 정형률에서 벗어난 가사의 운율은 내용의 정서적표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은 물론 선률조직에도 응당한 영향을 미쳐 곡 역시 자기의 얼굴을 가진 명곡이 되었다.

참혹한 전쟁의 나날을 아프게 추억하는 처절한 감정과 귀한것 잃었지만 귀한것 얻은 위대한 전승사를 긍지롭게 안아보는 다양한 감정의 본색에 맞게 8분, 16분소리표의 조화로운 배합과 전후렴음역의 상대적인 대조 등 탐구적인 선률조직은 가사의 운율, 어조를 잘 살리면서 노래의 사상정서적내용 표현에 매우 효과있게 기여하고있다.

잊지 말라, 력사의 상처 전쟁의 3년간.

잊지 말라, 위대한 전승사의 3년간.

가요 《전쟁의 3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우리 창작가들에게 자기의 시대적의무에 대해, 계급적자각에 대해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있다.



세대의 임무

홍 남 수

생활의 좌표

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아마 우리 농장사람들의 기억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이미 삭막해졌을것이다. 아버지는 농장에서도 별로 눈에 띄이지 않던, 이를테면 농사짓는것을 평생 락으로 여기던 평범한 농민에 불과했던것이다. 농사일은 아버지의 한생의 전부였고 그것은 어떤 다른것에 비길수 없는 더없는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아버지는 한생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남모르는 자기의 주견이 항상 맥박치고있었다.

《응일아,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하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건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채찍질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각해야 되는 일이다.》

아버지를 추억할 때면 언제나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곤 하는 해처럼 이 말이 먼저 생각나곤 한다.

바로 10년전...

내가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그날 우리 집은 마치도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아버지였다. 해빛에 까맣게 타 마치도 흙덩어리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공부를 잘했구나. 용타. 여보, 오늘 저녁에는 특식을 차려야겠소. 응일이가 좋아하는 설기떡도 하고.》

내가 받은 졸업증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번뜩이었다. 나는 별스레 마음이 찢르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내 기억에는 그 날처럼 아버지가 기뻐해본적은 없었던것 같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집안에서 상급학교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유독 나 혼자뿐인것이다.

나에게는 손우 누이가 둘 있었지만 농사일을 하다가 고스란히 출가를 해버렸다. 그런데 집안의 외아들인 내가 전문학교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돌아온것이였다. 내가 입학통지서를 받고 전문학교로 떠나는 날도 10리나마 따라나와 바래워준 아버지였다.

《응일아, 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농산반에 나가 일하겠어요.》

나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단마디로 대답하였다.

《?...》

한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며 내 얼굴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꼭 다물린 입귀에 깊은 주름살이 패이였다. 잠시후에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농산반에서 일하겠단 말이지. 응일아, 넌 전문학교에서 농기계를 전공하지 않았냐. 기계화작업반에 들어가지 않겠냐?》

아버지는 내가 전문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물어두

지 말고 써먹기를 바라는것이였다.

《아버지, 전 전공이 농기계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농산반에서 일하겠어요. 기계화작업반에는 저 말고도 기술자들이 많다던데요 뭐. 농산반에서 농사일을 좀 겪어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손에 기름칠을 하느라면 미립도 트고 제 뭇을 할수 있을텐데. 네 결심을 막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구태여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일단 결심을 한 이상 바꿀 생각은 없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협소하고 제한된 곳에서(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손에 기름칠을 하며 기계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쓰고싶지 않았다. 글썄 프락또르운전수라면 또 몰라도... 생활도 따분하고 단조로울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지금 나의 앞에는 잠들줄 모르는 다종다양한 생활이 맥박치고 호흡을 크게 할수 있는 드넓은 전야가 펼쳐져있지 않는가?

나는 그 모든것이 나에게 다소의 불만이나 의혹도 주지 않고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 환희만을 안겨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아버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그 숨소리가 무거운 돌맹이로 내 가슴에 들어앉았다. 무슨 까닭일까?

하지만 그 저녁은 인차 잊혀졌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학교졸업생이었지만 농장원으로부터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는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산작업반에 배치하였다.

나의 농장원생활은 시작되였다.

헤토무렵 들에서는 프락또르가 흙땀을 뒤에 달고 육중하게 전진한다.

눈부신 태양이 방금 갈아엎은 땅에 빛을 쏘는데 밭에서 땅김이 물물 피어오른다. 얼마나 장쾌한가! 봄빛이 완전한 연무어린 산기슭에는 하얀 구름떼가 내려앉은듯 엽소들이 햇풀을 뜯는다. 봄하늘에 높이 떠 우짖는 노고지리, 모내기철이면 농촌지원자들로 들끓는 논벌, 분조원들과 함께 실실이 아지를 드리운 버드나무아래에서 얼음을 띄운 오이랭국에 국수를 말아먹는 휴식의 한때... 이것이 농촌이었고 내가 한껏 맛보고 느낄수 있는 생활이였다.

나는 인차 이 생활이 몸에 배였고 그에 대한 만족감이 마음속에 항시 차있었다.

나는 흘러보낸 시간을 되새겨보지 않았고 내짚는 걸음이 어떤 흔적을 찍는지 더듬지 않았다.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 실망과 번민이 항상 엇바뀌는 법이다. 그럴전대 뒤를 돌아보며 번민하고 실망에 잠길

필요가 뭐란 말인가? 래일은 오늘보다 더 매혹적이고 벅찬 생활이 기다릴텐데...

어느 휴식일 나는 작업반의 한 처녀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 기타줄을 쏙스럽지 않게 튕길줄 알던 나는 오랜 시간을 즐기고나서 그 집에서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재봉기를 돌리고있었다.

《이제 오냐? 네가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소리가 예까지 들리더구나.》

《봉임누이네가 친척들이 많더군요. 자꾸 붙잡는걸 피곤해서 왔어요. 뭘 만들어요?》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자꾸 아파하는구나. 그래 허리띠를 만든다.》

《아버진 어데 갔어요?》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면서 논을 돌아보겠다고 나갔다.》

나는 까닭없이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어머니, 아버지보고 몸을 좀 돌보면서 일하고 말 좀 하세요. 인차 년로보장을 받겠는데.》

《아버지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나. 하루라도 흠뻘새를 못 말으면 고삿을 앓는다는데.》

하긴 어머니말이 옳았다. 30년나마 농사일을 하고있었지만 한본새로 살아오는 아버지였다.

《농사꾼이 되자면 땅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

언제인가 아버지가 한 말이였다.

나는 옷방으로 올라가 따뜻한 이불속에 몸을 물었다. 피곤으로 하여 온몸이 나른해졌다.

(다음 휴식날에 영천강에 천렵놀이를 나가자고 동무들과 약속했지. 낚시도구를 준비해야겠구나. 모내기도 끝났으니 지원자들이 돌아가면 마을이 조용하겠구나. 팬찮아. 그때 가선 또 다른 생활이 찾아오겠지....)

아래방의 재봉기소리가 나를 꿈속으로 끌어갔다.

나는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제 일어났는지 사이문이 닫긴 아래방에서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였다.

《젊은 애가 잔치집에 놀러갈수도 있지 뭘 그러시우. 제가 찾아간것도 아니고 데리러까지 왔는데.》

《갈수 있지. 내가 우려하는건 요즘 그 애 머리통이요. 사람이 산다는것이 그저 숨쉬고 행동하는것만이 아니지 않소. 당신 보기엔 웅얼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것 같소?》

《당신두 참.》

어머니는 어이없이 웃고나서 말했다.

《농사꾼이야 농사를 짓는 일밖에 더 있어요. 당신도 농사일 내놓고 아는게 뭐가 있어요?》

《난 웅일이야 지금처럼 무뎡하게 살다가 앞으로 뭐가 되겠는지 걱정이 되오.》

어머니는 부엌으로 나가는것 같았다. 아버지가 피우는 담배냄새가 사이문썸으로 올라왔다. 아버지의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내 머리속을 마구 휘저어 놓았다. 부지불식간 반발심이 머리를 들었다.

(내가 무뎡하게 산다구? 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은가? 사람은 주어진 생활을 외면할수 없는것이다. 결코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가? 생활을 외면하는 사람은 사막에 홀로 서있는 일없는 나무와 같다고.)

그렇다고 나는 두드러지게 살지는 못했지만 나쁜 평가는 받지 않았다.

사람들 호상판계에서도 (나는 이것을 생활에서 중시했다.) 의견대립이 없었고 농장속보판에도 이따금 내 이름이 오르곤 하였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얻어진것이 아니었다. 나의 생각과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혹시 아버지는 내가 기계화작업반에 들어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노엽게 생각하는것은 아닐가?)

다음날 농장적으로 휴식을 선포했다.

나는 오래간만에 늦잠을 잤다. 눈을 떠보니 오전 9시가 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제끼었다. 날씨는 류달리 쾌청했다.

어머니가 그릇에 빨강게 익은 딸기를 담아들고 부엌에서 올라왔다.

《맛보렴.》

《벌써 딸기가 이렇게 익었어요?》

그릇을 받아들고 런저퍼 몇알 집어먹으며 밖을 내다보던 나는 문득 한곳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창고옆에 늘 세워놓곤 하는 아버지의 삽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아버지는 오늘도 논에 나간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분조논물관리공이었다.

(하루 휴식을 한다고 벼가 크지 않을까?)

부지중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올해농사를 짓고나면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된다. 한해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결괏값이 있었고 행동도 민첩했었다.

《당신두, 그 나이에 축구가 뭐예요? 게다가 문지기를 선다구요? 소가 웃다가 꾸레미가 터지겠수다.》

《왜? 내가 작업반 문대썸 하나 막아 못낼것 같소?》

지난해 가을 농장에서는 휴식날을 잡아 작업반별 축구경기를 조직하였는데 아버지가 작업반 문지기로 선출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온 후부터 아버지의 허리가 갑자기 굽어들기 시작하면서 걸음걸이가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이 도질가봐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었다.

《웅일동무, 준비됐어?》

같은 분조에서 일하는 영철이가 낚시대를 들고 울타리밖에서 소리쳤다.

《웅, 기다려.》

《아침밥도 먹지 않고 어데 가냐?》

뒤트락에서 싱싱한 부루를 가득 뜬어가지고 나오던 어머니가 물었다.

《영천강에 놀러 나가요. 점심먹고 들어오겠어요.》

《애, 아직 물이 찬데 조심해라.》

《알겠어요, 어머니.》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설 때 장기관과 장기쪽주머니를 가지고나오는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장기놀이를 무척 좋아했다. 휴식날이나 명절때면 동무들과 장기를 두곤 하였는데 지루한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게다가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누를 때의 그 쾌감이란...

그날은 낚시에 고기도 잘 물려나왔다.

나와 영철이는 낚시로 고기를 낚아내고 다른 동무들은 강에 들어가 자맥질을 하여 손바닥보다 더 큰 넓죽넓죽한 조개를 척척 건져냈다. 누구는 두손도 모자라 입에까지 조개를 물고 물속에서 솟구치곤 하였다. 조개와 물고기를 섞어 쏜 뜨끈한 어죽을 훌훌 불며 맛있게 먹고난 우리는 모두가 물속에 퐁당퐁당 뛰어들었다.

순아, 들길을 걷지 않으면

밤이라도 좀 좋으나

거리의 가로등은 여기 없어도

너와 나 자래며 가꾸며

여태껏 익혀온 고향길이다

나는 어느 잡지에서 본 시의 한토막이 불현듯 떠올라 입에 들어간 물을 내뿜으며 이렇게 읊었다. 생활은 얼마나 즐겁고 환희로운가! 우리는 곳곳에서 맥박치는 이 생활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고 마음

것 향유해야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활의 주인이고 그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얼마후 우리는 장기를 두기 시작하였다.

거의 끝나갈무렵 나는 영철이에게 울렸다.

《이젠 마지막판이야. 이번까지 지면 손을 들라구.》

《응일동문 정말 머리가 좋아. 매일 장기를 연구하지 않아?》

영철이가 매번 놀리우자 벨이 풀리는지 시카스르트 말했다.

《장기라고 망탕 하면 되나. 무엇이나 다 리치가 있고 원리가 있거늘...》

손에 쥔 장기쪽을 간중그리며 희뻘뻘 말하던 나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푹 굳어졌다.

언제 왔는지 아버지가 내앞에 우뚝 서있었던것이다. 해별에 얼굴이 시꺼멓게 탄 아버지의 눈썹이 미간쪽으로 모아져있었다.

아버지의 출현으로 흥겹던 분위기는 삽시에 어성버성해졌다. 동무들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런데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재미들 있냐? 나도 한번 놀아보자.》

《?!》

《?》

모두가 어리둥절해졌다.

아버지는 동무들사이에 제잡담 끼워앉았다. 그제서야 동무들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렇게 하자요, 응일이 아버지.》

《응일이 아버지, 우리를 한번만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집까지 목마를 태워드리겠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두눈을 부릅뜨고라도 이겨야겠구나. 어디 한번 겨루어보자.》

나는 자리에서 물러나 흥심없이 놀음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주름잡힌 구불한 입술을 꼭 다물고 흥심없이 장기쪽을 옮겨놓았다. 나는 놀라왔다. 언제 한번 장기두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것이다.

자고깨면 논벌에 나가 살고있는 아버지였다.

나는 불시에 밀려드는 상념속에 잠기었다.

아버지는 여기에 왜 왔을까? 우연히 왔을까?

나는 아버지가 장기쪽을 기계적으로 옮긴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어느덧 해는 누엇누엇 저물어갔다.

아버지는 주먹으로 허리를 툭툭 치며 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그만 놀자. 난 아무래도 너희들 목마를

타지 못하겠다. 너희들 수준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응일동문 장기박사예요, 우린 유치원생이지만.》

《?》

나는 핵 얼굴을 돌려 영철이를 쏘아보았다. 어느때없이 영철의 말이 귀에 거슬리며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시킨것이었다.

《그래.》

아버지는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놀고나니 무슨 생각이 드냐? 후날에 오늘이 추억될것 같냐?》

누구에게라없이 묻고난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한토막의 추억은 될게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추억은 되지 못할게다. 난 너희들이 장기도 두고 천렵놀이를 하는게 싫어서가 아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활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너희들은 앞으로 농장의 주인이 될 사람들인데 더 많이 사색하고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는 별말을 다 하면서, 아무렴 동무들이 그걸 모르겠다구. 알고도 남겠는데.)

나는 아버지가 객적은 소리를 하는것 같아 동무들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동무들은 아버지의 말을 탓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생각깊은 얼굴들이었다.

어느결에 해는 서산너머로 사라지고 붉은 노을이 서쪽하늘에 장엄하게 펼쳐졌다.

몸을 돌려 저쯤 걸어가던 아버지는 한자리에 멈춰서며 어깨숨을 내쉬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마음속에 무엇이 웅어리져있을까? 도대체 아버지는 나의 무엇이 못마땅할까?...

《응일동무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는데...》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썩하고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영철이가 뇌이였다.

들판에는 실바람 한점없이 잠풍한 대기가 조을고있었다.

나는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었다. 즐겁게 보낸 하루의 기분이 졸지에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알수 없는 고독감이 찾아들었다. 난생처음 느끼는 고독감이였다.

물론 아버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절대적인것은 아니였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생활방식이 다르고 뒤에 남기는 흔적도 꼭 같을수는 없는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천충만충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누구든 사회와 인간을 위해 리롭게 복무하면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아버지도 한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아버지는 거의 30년동안 논물관리공을 해온다. 논물관리에서 아버지만큼 경험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농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박아바이야 실농군에 논물박사지요.》

언제인가 농장에 새로 온 리당비서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물었을 때 작업반장이 한 말이였다.

당에서는 아버지에게 훈장도 여러개 안겨주었다. 크게 소문을 내면서 일한것은 없었지만 한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대한 평가였다.

나는 다른것은 몰라도 아버지의 한생에 흠집을 남기는 자식이 되고싶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고있는가?

소중히 간직하라

사람은 어느때 무력해지는가?

나는 지금껏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고 추구하는 생활도 옳다고 여겼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정신적번민이 없었고 마음속의 공허도 몰랐었다.

천렵놀이가 있는 후 나는 때없이 침울해지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분명히 내가 옳다고 확신하던 그 모든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기 시작했던것이다. 그것은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산생된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내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긴것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물결은 폭이 점점 커지며 나를 더더욱 침울하게 만들었다.

어느날이였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서둘러 저녁상을 거두었다.

《응일아, 넌 구경을 가지 않겠니? 왜 그러고있냐?》

오늘 아침에 중앙예술단이 농장에 온것이였다.

아버지는 벌써 명절때나 입군 하는 옷을 갈아입고있었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허리가 펴졌고 낮에 리밭까지 해서인지 한결 젊어보였다.

《난 집에 있겠어요.》

나는 건승 대답하였다.

《아니, 왜? 희극배우들도 왔다던데.》

《그럼 좀 있다가 소꼴을 한번 쥐라.》 하고 아버지는 제 먼저 방안을 나서며 어머니한테 독촉했다.

《여보, 빨리 가지요, 늦겠소.》

《예. 응일아, 우린 간다.》

어머니는 잉그르르 아버지를 따라나갔다.

나는 침대에 벌렁 나가누웠다.

(참 모순적이다.

지금 보면 아버지도 생활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있다. 하긴 생활을 떠나서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오늘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할가?)

《당신은 응일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것 같소? 난 응일이가 저렇게 무뎡하게 살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가봐 걱정되오.》

불현듯 아버지의 말이 머리속에 되살아났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다.

(옳아. 아들이 결코 무뎡한 존재가 아니라는것을 아버지한테 보여줄테다. 그럼 아버지는 나를 새롭게 인식할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발전에도 필요할수 있다.)

다음날 나는 작업반탈곡장에서 일하게 되였다.

휴식참에 벼탈곡기를 여기저기 살펴보고있는데 누구인가 내 어깨를 툭 치는것이였다. 나는 나쁜 장난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와들 놀라며 고개를 돌리였다.

작업반장이 웃고있었다.

《놀라긴, 왁새 계구멍 들여다보듯 뭘 보고있나?》

나는 심드렁히 말했다.

《탈곡기가 구식이군요.》

《그래도 10년전에는 군적으로 손꼽히던 탈곡기였어.》

나는 쓰겁게 웃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나는 저도 모르게 반장을 눈여겨보았다. 농립모를 푹 눌러쓴 반장의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온통 주름살투성이였다. 반장도 아버지와 나이가 동갑이였다.

《아닌게아니라 탈곡기라도 새것으로 바꾸어놓고 반장사업을 인계해도 해야겠는데...》

반장은 농립모를 벗어 얼굴에 대고 활활 부채질을 하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어찌보면 내 마음을 중편 보는듯 했다.

미상불 나는 탈곡기를 새롭게 개조할 생각을 언제부터 하고있었다. 나는 사람들한테서 탈곡기의 부족점에 대해 이미 들었었다. 치명적인 결함은 탈곡기가 돌아갈 때 소리가 형편없이 크다는것이였다. 와서 탈곡기를 보니 십분 그럴수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부족점은 (이것은 방금 내가 찾은것이였다.) 탈곡기의 동체가 쓸데없이 큰것이였다. 지금

상태에서는 전력소비도 많을것은 명백했다.

《응일이가 탈곡기를 다시 개조해보지 않겠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번 손을 대보게. 전문학교 최우등졸업생이 이쯤한걸 하나 개조 못하겠나.》

작업반장은 줄곧 내 마음을 든장질했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있었다.

이튿날이었다.

앞그루로 심은 울감자를 캐다가 분조원들과 떨어져 혼자 앉아있는 나한테로 반장이 스적스적 걸어왔다. 반장은 내옆에 앉으며 농립모에 따라지고온 빨강게 익은 앵두를 내밀었다.

《맛보게, 첫물앵두세.》

반장은 자기가 먼저 몇알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그러더니 밀도끝도없이 불쑥 물었다.

《응일이,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예?》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탈곡기를 개조할 때까지 시간을 떼줄가?》

나는 그제서야 반장의 말뜻을 짐작할수 있었다. 반장은 무작정 나에게 탈곡기개조를 떠맡길 결심을 한듯싶었다. 한순간 나는 그에게 명백한 대답을 줄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반장동지, 전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탈곡기를 개조하겠는지는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 나한테서 중요한것은 탈곡기개조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무뎡한 인간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줄수 있는 일감이면 그만이었다.

《응일인 해낼거네. 난 믿겠네. 필요한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줄테니.》

반장은 묵직한 손으로 내 어깨를 힘껏 잡아주고 몸을 일으켰다.

이쯤 되고보니 나도 그가 나를 크게 믿고있다는 생각에 탈곡기를 개조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작업반에서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살림집건설에 쓸 통나무를 운반해오기 위해 채벌지로 보내기로 토론되었다. 군농촌건설대에서 우리 농장 살림집건설을 인차 시작하기로 되었던것이다.

《응일동무도 준비를 하고 매일 떠나오.》

하루작업총화를 끝내고 분조장이 지시를 주는것이었다.

《저도 명단에 있습니까?》

나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있구말구. 반장이 작성한 명단이요. 왜, 무슨 사정이 있소?》

《예?...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체, 반장은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니... 꿩먹은 자리야.)

작업반앞을 지나오는데 마침 반장이 집짐승우리 쪽에서 걸어왔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가 먼저 찾았다.

《응일이가 아닌가?》

나는 내키지 않았으나 한자리에 멈춰섰다.

《좀 생각해봤소?》

《...》

《가을전까지는 완성해야 한다.》

탈곡기개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제는 부탁이 아니었다.

《그렇게 바쁜데 내가 꼭 동원을 가야 하나요? 그런데 시간을 빼앗기면 언제 탈곡기를 개조하겠어요?》

나는 입안에서 뱅뱅 댄도는 이 말을 가까스로 삼키었다. 반장은 어느새 내 속마음을 들여다본듯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너한테 시간을 주자고 생각했는데... 나도 별수 없구나. 너의 아버지가 널 보내자고 하는데... 이번 동원을 갔다와서는 정말 통시간을 주겠다.》

(아버지가?...)

나는 건잡을수없이 밀려드는 의혹과 아픔을 느꼈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나는 아버지가 내가 개조하는 벼탈곡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한번 내가 그리느 도면을 들여다보며 꼬치꼬치 묻더니 이마에 주름살을 가로지르고 좀처럼 퍼지 않았었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무더워지며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튿날 나는 울적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아침부터 비가 추절추절 내렸다.

《나무를 끌어내릴 때 덤비지 말고 조심해라.》

어머니가 마당까지 따라나와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때였다.

방문을 열며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

《응일아, 너 장기쪽을 가지고가냐?》

나는 우물우물하며 아버지의 눈길을 피했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할듯 하더니 방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마음이 더욱 울적해졌다. 산속에 들어가면 장기라도 두어야지 무슨 재미로 있겠는가?

다음날 나는 아침부터 하루종일 통나무를 끌어내렸다. 저녁 늦게까지 나무를 끌어내려 차에 실어 보내고나서야 천막으로 돌아왔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언제 끊기겠는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나는 자리에 털썩 드러누웠다. 비물이 내뻘 천막천정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던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자 어릴적 한토막의 일이 되살아났다.

《오늘은 5점을 맞지 못했구나.》

하루는 어머니가 나의 수학학습장을 펼쳐보며 실망한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어떻게 매번 5점을 맞겠소, 최우등도 하고 우등도 할수 있지. 하지만 앞으로 5점만 맞을거요.》

그때의 아버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고 아들에 대한 티끌만 한 의혹도 없었었다. 그것은 꿈에서 본 아버지의 눈빛이었던가?... 오늘에 와서 아버지의 눈빛은 감정이 사라졌고 의혹만이 비껴있었다. 유년시절의 나를 감싸안던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눈빛은 영원히 사라졌는가?

고즈넉이 타오르던 가스등잔불이 확 피여오르더니 꺼져버렸다.

나는 닳새만에 집으로 내려왔다. 작업반장이 나를 데리러 온것이였다. 반장은 내가 시간을 받아 탈곡기를 개조하도록 관리위원회와 토론을 하였던 것이다.

《관리위원회에서는 한달동안 시간을 보장해주려다군. 그 시간이면 되겠지.》

《!》

나는 눈굽이 따가와났다.

불시에 아버지께 대한 원망이 살아났다. 혈육도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원심을 쓰며 믿어주고 도와나서는데 유독 아버지만은 그렇지 못했다.

그럴수록 나는 탈곡기를 무조건 개조하여 아버지와 사람들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결심을 더욱 굳히었다.

촉박한 한달이 지나갔다.

드디어 새롭게 개조한 벼탈곡기도면이 완성되었다. 관리위원장과 기계화작업반장이 도면이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작업반으로 내려왔다.

나는 가슴이 세게 죄여들고 어깨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속에서 그들이 도면에서 눈길을 떼기를 기다리었다. 그들은 도면을 오래동안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관리위원장이 먼저 도면에서 눈길을 들며 말은 않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응일동무!》 하고 관리위원장이 물었다.

《응일동무 금년에 스물한살이라지?》

(생똥같이 나이는 왜 물어볼까?)

《이런 큰 기계를 처음 만져보지? 좀더 연구해보라구.》

(실패로구나.)

나는 실망감이라는 돌맹이가 마음속에 툭 내려앉았다.

기계화작업반장이 도면의 부족점을 이야기하였으나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반장이 내 어깨를 잡아쥐며 위로하듯 말했다.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나.》

귀가 멍멍해지고 지친 나는 가슴이 텅 빈것 같은 슬픔을 느끼며 작업반실을 나섰다. 온몸이 어찌나 나른해지는지 최근에 겪은 힘겨움이 한꺼번에 다 들쭉뒤지는것만 같았다.

막 창피스러웠다. 이제 사람들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것인가? 사람들은 내가 전문학교 최우등졸업생이라고 다른 눈으로 보고있는데...

그날 저녁 작업반장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생일이었던것이다.

아버지와 반장은 젊은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였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명절날이나 생일때면 간소한 술상에 마주앉곤 하였다. 그들은 마주앉으면 가끔 흘러간 젊은 시절을 추억해볼 때도 있었는데 반장은 대체로 군사복무시절에 체험하고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반장의 이야기는 듣기가 재미있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껏 농사일밖에 해온것이 없는 아버지는 생활체험도 단순하였고 활동범위가 제한되어있어선지 이야기가 따분할 때가 많았다.

그날은 내가 화제거리가 되었다. 술을 몇잔 마시고난 작업반장은 첫마디부터 내 말을 꺼낸것이였다.

《임자 늦게 아들을 보았지만 제 구실을 하는구만. 우리 농장에도 아무 목적없이 거들거리며 사는 젊은이들이 없지 않거던. 그러나 응일인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알아. 관리위원장도 칭찬이 대단했네. 앞으로 응일인 단단히 한몫 할걸세.》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의 얼굴은 한껏 상기되어있었는데 걱정을 누르고있는것이 알렸다.

언제까지나 침묵을 지킬듯싶던 아버지는 드디어 웃방에 앉아있는 나한테로 얼굴을 돌리었다.

《응일아, 넌 남들이 해놓은것을 몇군데 뜯어고치고 평가를 바라겠거든 애당초 건어치워라.》

《예?》 나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반장이 필쩍 놀라 말했다.

《임자 무슨 말을 하나? 그만큼 하는것도 큰거지. 지금껏 나나 임자가 그런걸 업두나 내봤나? 응일아, 절대로 손땀을 놓지 말아. 첫술에 배가 부르겠나.》

어떻게 밖으로 나왔던지... 하늘에선 보름달이 성글게 널린 구름속을 헤엄쳐가고있었다.

아버지의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난 배운게 농사일밖에 없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지. 우리 응일이 경우는 우리와 다르네. 그 애는 웅당 우리보다 높이 올라서야 할 사람이네. 임자나 나보다 배운것이 많지 않나.》

《됐네. 너무 아들을 몰아대지 말게. 앞으로 크게 자라지 않으리. 자, 한잔 들자구.》

작업반장은 인차 돌아갔다.

대문밖까지 그를 바래워주고난 아버지는 그때까지 토방에 앉아있는 내옆에 꿈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줘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서는 한줄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둠속을 응시하던 아버지가 약간 석잡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응일아, 내 말이 싫냐? 마음에 걸리더라도 새겨둬라. 생각이 저속하면 목표도 높이 세울수 없고 래일도 내다보지 못한다. 사람을 알려면 그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목적과 하는 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

왜 그러겠니? 거기에는 그의 모든 녂과 마음이 비껴있기때문이다.》

나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었다.

(그럼 지금껏 내가 애쓰며 노력한 모든것이 인생에 상처로 남을 공백이었던 말인가? 허무하구나.)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중압감을 느끼자 입을 열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응일아, 너도 알겠지만 난 한생 농사일을 해오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더 배우지 않은것을 평생 후회하고있다. 네 나이적에는 묵묵히 팜을 바치는것을 값있게 사는 인생으로 생각했었지.》

물론 그것도 옳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난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지식을 지금이라도 가지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아무리 힘을 아끼지 않고 일

해도 머리속에 지식이 들어차있는 사람들보다야 낫겠나. 시대는 발전하고 현실은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응일아, 넌 나라에서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왜 너희들한테 변함없이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넌 한생에서 잃는것이 많게 될게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자문했다.

내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한생에 그런 고뇌가 있었던 말인가?

오늘 그리고 래일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버지의 병은 난치로 진단을 받았다.

급작스레 들이닥친 불행은 우리 집안의 웃음을 눈감박탈 사이에 걷어갔고 생활의 흐름을 정지시켰다.

나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까?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가 되면 살아온 한생을 더듬어보게 된다고 한다. 그럴 때면 살아온 인생에서 기쁘고 즐겁던 일보다도 가슴에 맺히고 괴롭던 일을 먼저 생각해보게 되는것이다.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슴에 맺히고 제일 괴로웠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나에 대한 원망이 아닐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후 나의 머리속에서는 계속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엿친데 덮친 격으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관리위원회에서 내가 하는 벼탈곡기개조를 중지시켰다는것이였다. 바로 이웃농장에서 새형의 벼탈곡기를 만들었는데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그 탈곡기를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 도입하기로 했다는것이였다.

《그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도 평가는 바로 해줄게다.》

반장이 어깨가 축 내리쳐져 앉아있는 내 어깨를 슬며시 잡아쥐며 무척 힘들게 하는 말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물론 그 농장의 탈곡기가 좋아 군적으로 도입하는것만은 죄다 사실일것이다. 좋은것은 웅당 앞에 서야 하는것이다. 어떻게 리성은 그것을 인정하고있었으나 감정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른것은 들췌치고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앞에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인식을 준것

이었다. 통두사미격이라 할가.

《응일아, 너 태일부터 금곡농장에 가 그 탈곡기도면을 그려와야겠다. 관리위원회에서 널 보내자고 하더구나.》

《관리위원회에서요? 난 그런데 신경을 쓸 정신적여유가 없어요. 반장아저씨도 우리 아버지가 앓는다는걸 알지 않아요.》

나는 남의 감정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져 내놓고 거절하였다. 그리고 한편 자존심이 그 농장에 가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군인민병원에 올라갔다.

《네가 왔구나.》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병색이 짙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는것만 같았다.

《그냥 누워있을게지. ...》 하며 어머니는 얼굴을 돌려 손등으로 눈곱을 훔치었다.

아버지는 그러는 어머니를 못 본척 하고 내 손을 잡아쥐었다.

순간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아버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찬것이였다. 아버지의 몸이 손처럼 식어지는것은 아닐가? 하는 생각이 언뜻 스치였다. 그러자 아버지를 막 부둥켜안고싶은 충동이 불쑥 솟구치였다.

내 얼굴을 잠시 여겨보던 아버지가 나직이 물었다.

《응일아, 너 왜 금곡농장에 가지 않았냐? 내 다들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그 일을 더 상기하고싶지 않았다. 쓰디쓴 모멸의 감정만 살아나는 그 일을 하루빨리 잊어버리고만싶은 나였던것이다.

아버지의 손에 점차 온기가 돌아왔다. 그 온기는 내 몸에 서서히 퍼져갔다. 나는 그제서야 마음이 안착되는듯싶었다.

아버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창문가까이에 가지를 뺀 단풍나무가 가을바람에 가볍게 설레였다. 햇빛을 받아 무시로 반짝이며 불타는 잎사귀들은 마치도 진할줄 모르는 열정으로 충만되어 자기의 생명력을 한껏 내뿜는듯싶었다.

한동안 단풍나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응일아, 이제 내려가면 그 농장에 가거라. 농장에 사람이 없어 널 보내자고 했겠냐. 그것자체가

너에 대한 집단의 믿음이 아니겠니. 래일은 너희들이 농촌의 주인이 되여야 하기때문에 더 배우라고 내세워주는거지. 배우는데는 학생이 따로 없다. 오늘 하나를 배우지 못하면 래일에는 열, 백을 잃는다는걸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지친듯 움푹 꺼져 들어간 두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유언을 남기는것은 아닐가?... 아니,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무슨 똥판지같은 생각을 하는가?

《우린 가겠수다.》

어머니가 말해서야 아버지는 눈을 떴다.

《한창 김매기철인데 자주 오느라고 그러지 마오.》

문앞까지 걸어간 나는 등뒤에 와닿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였다.

《?!...》

순간 나는 목구멍으로 뜯뜯한 덩어리가 치밀어올라 하마트면 눈물을 콧 쏟아낼뻔 하였다.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이 나를 아래위주고있었던것이다. 아, 아버지의 그 눈빛! 첫 고고성을 터치며 세상에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시름없이 웃던 눈빛이 아닐가? 나는 아버지의 그 눈빛에 싸여 오늘까지 성장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왜 아버지의 그 눈빛을 오늘에야 느끼는것만 같을가. ...

별, 하늘에는 못별들이 총총했다. 대기는 후더웠다.

나는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금곡농장에서 돌아오고있었다. 그 농장에서 뜻밖의 충격을 받은 나였다. 탈곡기도 새롭거니와 그것을 만들어낸 당사자한테서 더 큰 충격을 받았던것이다. 탈곡기를 연구한 청년은 나와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외형도 별로 특징적인데가 없어보였다.

나는 여러날 거기서 지내면서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모든 면에서 나와 확실히 달랐다. 뭐니뭐니해도 그는 자기라는 사고를 하지 않았다. 집단속에 자기를 세우고 사색했고 집단의 리익에서 자기의 일거리와 기쁨을 찾는 청년이였다. 그앞에서 나는 부끄러워졌다.

눈곱재기만 한 지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운운한 나자신이 동시대 인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떠나는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연구한 탈곡기가 군적으로는 물망에 올라 본보기가 되었지만 난 동무네 농장에서 우리것을 그대로 모방하는것을 바라지 않소. 오늘은 어

제와 다른 또 새로운 하루가 아니겠소. 그리고 동무와 난 오늘과 래일을 보는 눈이 엄연한 차이가 있거던.》

문득 언제인가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던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집이 가까와왔지만 나는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지금껏 나는 무엇을 모르고있었는가? 나의 모든 생각은 리기적이었고 천박했으며 지금 생각해 보면 스스로 타매할 일이 아닐수 없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관리위원회에서 벼탈곡기개조를 중지시켰을 때 다시는 쓰디쓴 모멸의 감정을 맛보지 않고 본래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리라 결심하였다. 그것은 도피였고 리기심이었다. 전세대들이 마련해놓은 밀천을 삶아먹는 별레가 되자는 것이었다. 그래 나같은 별레가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두달나마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했다. 전국 농기계전시회에 내놓을(나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인차 기계화작업반에 들어갔다.) 새형의 보습을 만드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던것이다.

나는 아버지앞에 새 모습으로 나설 결심을 다진 것이었다. 큰뜻에 대한 자각은 사람들을 새 모습으로 변모시킨다고 하지 않는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는 매번 얼굴이 어두워 돌아오곤 하였다.

나는 묻지 않아도 아버지의 병이 차도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럴수록 나는 하루라도 빨리 새 보습을 만들어낼 결심을 가다듬곤 하였다.

내가 만든 새 보습을 보면 아버지가 침상에서 일어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병을 고치는데는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집에 불쑥 들어서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나는 반가움보다도 놀라움이 먼저 앞서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저녁밥을 짓던 어머니도 눈을 치떴다.

《기별도 없이 어떻게 왔수? 그제 갔을 땐 아무 말도 없더니.》

《퇴원했소. 이젠 병원에서 주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일없다누만. 어서 저녁을 주오. 배가 출출하구만.》

《모르겠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아버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었고 말 몇마디 하지 않았는데

도 이마에 땀이 내뻘었다.

《참, 내가 잊을번 했구나.》

아버지는 비로소 생각난듯 메고온 배낭아구리를 끄르더니 두툼한 책을 꺼내는 것이었다.

《새로 나온 농기계편람이다.》

그 책의 가치를 잘 알고있던 나로서는 여느때라면 환성을 올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내미는 책을 기계적으로 받아들며 다시 물었다.

《아버지, 정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넌 뭐가 못미더워서 그러니? 그래 만든다는 보습은 잘되냐?》

나는 보습의 구조와 경제적효과성에 대해서 차근 차근 이야기하였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던 아버지는 이마의 주름살을 펴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우리 농촌에 그런 쓸모있는 기계들이 많아야 한다. 지금 우리 농장에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할 농기계들이 많다. 어제는 좋았지만 과학적인 영농 방법들이 도입되고 토지들이 변모되는 오늘에 와선 낡은것으로 되었지.》

그러니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래일에도 손색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과 래일?...

문득 나는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밖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그 리치가 새롭게 가슴에 마쳐왔다. 진리는 깨닫고나면 단순한 법이다. 그 단순한 법칙을 모르고 인생에서 굽이굽이 먼길을 에돌기도 하고 때로는 피로움과 고통속에서 헤매이기도 한다.

아버지는 다음날 삼을 들고 분조로 나갔다. 아버지는 장마비에 패인 논두렁을 보강하기도 하고 구부러든 물길도 바로 펴면서 종일 논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무렵에 비구름이 꾸역꾸역 몰려와 서로 덧쌓이며 하늘을 덮었다.

작업반장이 우리 집에 들어선것은 그때였다. 반장은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목소리를 높였다.

《뭘, 퇴원했다구? 자넌 죽는게 겁나지 않나?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진단 말일세.》

아버지는 어지간히 바빠하는 눈치였다. 반장의 기분을 눅갯히려는듯 얼른 그의 손을 잡아쥐었다.

《자네 뭘 그렇게 성난 황소처럼 씹씩거리니. 없게. 왔던김에 순두부나 한그릇 먹고가게.》

반장은 손을 뻗 뿌리치었다.

《두말 말구 래일 당장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게. 차를 가지고올테니.》

반장은 들어올 때처럼 요란하게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꿈을 꾸다 깨어난듯 뻥해가지고 방문과 아버지를 엿갈아보았다.

《허허허.》

아버지는 허거프게 웃기만 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농기계편람을 주고싶어 병원에 사정하고 하루동안 시간을 받았던것이다. 병원에서는 수술준비를 해놓고 아버지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아 농장으로 소식을 보낸것이였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우는지 흐느낌소리가 간간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저한테도 속여야 합니까?》

나는 눈물이 글썽해서 울먹울먹 말했다.

《됐다. 내 병은 내가 안다. 전사회날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넌 그 준비나 잘하거라. 응일아, 밖에 좀 나가자꾸나.》

《?...》

나는 엉거주춤 아버지를 따라섰다.

아버지는 마을앞으로 새로 낸 물길을 따라 한동안 걸어갔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들판에는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온 한해 정성을 바친 농장원들의 수고가 비낀 들판은 만족스레 조용히 누워있는듯싶었다. 들판은 풍요한 가을을 기다리고있었다.

아버지는 물길꼭 한곳에 꿈 주저앉았다. 나도 아버지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응일아, 난 한생 이 들판에서 살았다. 세상에 태어난 너에게 처음 보여준것도 이 들판이고 너의 첫걸음을 떼준것도 이 들판이다. 나는 늙었지만 들판은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구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로 더 바싹 다가앉았다. 갑자기 아버지한테 온몸을 의지하고싶었던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세대가 이 벌의 주인이 되였다. 세월이 흐르면 또 너희네 다음세대가 여기서 살며 주인이 될게다. 넌 그들에게 이 들판에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를 배워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또 다음세대의 인생길을 옳바로 잡아줄수 있다.》

《오늘과 래일! 세대의 임무!》

나는 메아리처럼 귀전에 울리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으로 새겨보며 어둠이 내려앉은 들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후 내가 농기계전람회에서는 받은 발명권을 보고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나는 가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보곤 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을 준 아버지이면서도 성장의 법칙을, 우리 세대들의 임무와 자각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준 스승이였고 동지였다고 생각한다.

자기를 오늘이 아니라 래일에 세우라.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이 말은 오늘날아니라 영원히 나를 앞으로 떠밀어줄것이다.

상 식

지뢰해제에 도움을 주는 꿀벌

개, 쥐, 돼지 등을 훈련시켜 지뢰를 탐지하는것은 이미 흔한 일로 되어버렸다.

호르바쓰까에서는 꿀벌도 훈련시키면 지뢰를 탐지할수 있다는 새로운 시험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지뢰해제 《전선》에 꼬마 《전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천성적으로 후각이 발달된 꿀벌이 지뢰탐지에 제일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꿀벌이 지뢰를 정확히 찾도록 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선 꿀벌한테 폭발물냄새가 나는 특별히 만든 사탕물을 먹이였다. 꿀벌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이 냄새에 익숙된다고 한다. 훈련을 받은 꿀벌은 지뢰발상공의 냄새에 매우 예민하였다.

훈련된 꿀벌을 놓아주면 공기속의 폭발물냄새를 맡고 지뢰가 매설된 곳에 모이게 된다. 동시에 열영상촬영기가 달린 비행물체가 꿀벌을 따라다니게 한다. 촬영기가 찍은 꿀벌의 비행행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뢰가 매설된 곳을 알수 있다.

이 방법은 아직 연구중에 있으나 일단 그 효과성이 증명되면 대대적으로 도입될수 있다.

발전소의 코스모스꽃길에서

변 영 옥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대명사이기도 하다.
나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허나 꽃의 아름다움을 논하기 앞서 꽃의 언어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싶은 이 마음속 충동은 무엇때
문인가.

아마도 그것은 내가 찾았던 어느 한 발전소건설
장에 피어난 코스모스꽃송이들속에서 울려나오던
목소리들이 너무도 깊은 여운을 남겨서일것이다.

지난 9월 중순 나는 작가들과 함께 레성강청년
5호발전소건설장을 찾게 되었다.

도시에서 수백여리 떨어진 레성강청년발전소, 그
곳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한껏 흥분에 젖어있
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으로 들끓는 중요전선으
로 달려간다는 자부심에서였다.

버스차창가에 비껴드는 산천의 가을풍경은 한폭
의 그림처럼 참으로 아름다웠다.

병풍처럼 둘러선 크고작은 산밀에 팔뚝같은 누런
이삭을 아기처럼 등에 업고 자랑스럽게 서있는 강
냉이바다, 봄내 여름내 땀흘린 농민들에게 큰결을
울리고있는듯싶은 머리를 숙여뜨린 벼이삭, 다치면
금시 터질듯 총총 여문 두렁콩들, 가지마다 휘도록
주렁진 감알들과 해빛에 반짝이는 대추알들...

푸른 하늘밑에 한껏 펼쳐진 가을풍경은 불수록
마음호뜻한 전경이었다.

허나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끈것은 버스에서 내려
5호발전소건설장으로 향하는 시오리길에 펼쳐진 코
스모스꽃길이었다.

연분홍, 진분홍색, 보라색의 청신하고 연연한 꽃
송이들...

반기듯 가을바람결에 하느적이다. 살래살래 흔들
리우는 그 자태는 참으로 매혹적이었다.

우리의 입에서는 연해연방 탄성이 터져올랐다.

감탄과 찬사가 끊길줄 몰랐다.

《야! 가을철의 코스모스가 이렇게 장관일줄 몰
랐군요.》

《정말! 아마 돌격대원들이 피웠겠지요? 그 마음
이 그대로 아름다운 꽃이 되었군요.》

참으로 감회깊었다. 1호발전소건설때부터 인연을
맺어오는 이 레성강청년발전소에서의 현실체험나날
이 마음속에 짙 안겨오며 더불어 못 잊을 추억들
이련상되었다. 더불어 나의 귀전에 들려오는 말소
리, 속삭임소리...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꽃들의 대화였다.

《우리들을 모르겠어요? 우린 장군님께서 다녀
가신 레성강청년1호발전소에 피어났던 코스모스들
이에요.》

《우린 2호발전소 전망대에서 돌격대원들이
장군님을 우러러 목격했 만세를 부를 때 함께 피었
던 그 코스모스예요.》

한쪽에서 울려나오는 다른 속삭임...

《우린 여기 5호청년발전소 돌격대원들이 심은
코스모스꽃송이들이예요. 우린 돌격대원들과 함께
10월을 맞았답니다.》

나는 그 꽃들처럼 아름다울 레성강청년5호발전소
청년돌격대원들을 만나고싶었다.

꽃은 언제나 그것을 심어가꾸는 주인을 닮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그 꽃들을 심어가꾼 도로관리원처녀
들을 좀처럼 만날수 없었다. 발전소건설장에서 제
일 어려운 3호발전소건설장으로 모두 달려가 전투
를 벌리고있다는것이였다.

속삭한 내 심정을 알아주는지 다행히도 압연공정
을 지원하고있는 한 처녀를 만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녀가 용접면을 쓰고있는것이다. 3호발전소
로 달려간 용접공을 대신한다며...

나는 키가 작으나 펍 당돌해보이는 처녀에게 물
었다.

《도로관리원이 어떻게 용접을 다?...》

처녀는 밝게 웃으며 스스럼없이 말하였다.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은 아버지원수님을 하루빨
리 완공된 발전소에 모시고싶어 세뿔, 네뿔도 성
차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이쭈한것에 놀라지 마
십시오.》

빠기듯 자랑스레 말하며 처녀는 밝게 웃고나서
뒤로 돌아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 처녀가 채 하지 않은 뒤말을 다 들
었다.

《우린 발전소를 빨리 완공하지 못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 못했던 아픔과 죄스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빛중에 가장
큰 빛을 지고 사는셈이지요. 우린 그저 하루빨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싶은 마음으로 일하고 또
일하고있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위대한 장군님을 못 잊
어하는 청년돌격대원들, 장군님의 유훈을 이 땅에
꽃피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온몸을

우리 집

배 선 복

앞뜰엔 부루 쑥갓 푸르르고
뒤뜰엔 빨간 앵두 무르익는 집
가을엔 탐스러운 감알들이
꽃처럼 그림처럼 주렁지는 집

우리 동네 문화주택 하나같아도
우리 집은 유별난 집이랍니다
오는 사람 하루종일 맑고맑아서
정말로 돌쩌귀에 불이 일겠습니까

어제는 이웃집 철이 엄마
남편생일 함께 쇠자 찾아오더니
오늘은 빨간 찻물도마도 맛보라며
《남새박사》 할아버지 찾아옵니다

분조장은 뽕감을 실어왔는데
방안에선 담당의사 체온을 잽니다
부엌에선 우리 부락당비서
가마뚜껑 살머시 열어봅니다

아들에 과외학습 지도나오며
우리 집을 제집처럼 돌보아주는
담임선생님은 글썄
오늘 또 새 지팡이를 만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새 가정을 이룬 제대군인부부

술 한잔 붓겠다고 찾아옵니다
색다른 음식을 안고
동네녀인들 웃으며 또 찾아옵니다

우리 집은 나라위해 공세운
영웅네 집도 아닌데
이 하루도 술한 사람 자꾸만
왜 이렇게 찾아오는것입니까

하반신마비로 불구가 된 이 몸
쌍지팡이에 의지한 로동능력상실자
차디찬 세상에서는 이미
막돌처럼 내버렸을 비참한 삶입니다

그럴 때면 눈굽은 자꾸만 젖어들어
나라앞에 짐박에 될것이 없는
나같은게 뭐라고 우리 집이 뭐라고
사랑과 정으로 겹겹이 감싸주는겁니까

고마움에 가슴젖어 우러르니
수령님들 초상화 또집게 안겨옵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영원한 어버이
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환히 웃으십니다

불태우는 청년들...

그들의 마음인양 러단의 대형속보판에도 가사구
절이 썩어져있었다.

바람에 나무잎이 날려도 그리워지고
저 하늘 흰구름을 보아도 더욱 그림네
구름아 나를 실어가주렴 아버지장군님 품으로
...

그것은 단순한 노래의 한구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로 그들의 심장에 흐르는, 정녕
령도자와 떨어져 살수 없고 순간이라도 떨어지면
뱀고싶고 달려가고싶은 그리움의 분출이었고 심장
의 박동이였다.

그 박동, 그 숨결이 이 발전소건설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꽃풍경을 펼쳐놓았다.
나는 보고있다.

청년장국의 주인들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자기
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거창하게 일떠선 3호, 4호, 5호청년발전
소에 모시게 될 그날을.

그리고 듣고있다.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서는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과 더불어 거리와 창가마다에서 넘쳐날 최
후의 승리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저물녘의 코스모스꽃들은 더욱 류다른 정취를 풍
기였다.

명예위병대처럼 도로 양쪽에 무덕무덕 줄지어 피
여있는 코스모스꽃송이들.

마치도 그 누구를 기다리는양 꽃송이들을 한
껏 빼어들고 나의 옷자락에 감기며 그냥그냥 속
삭인다.

《우리도 돌격대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을
기다린답니다.》



정에 대한 이야기

안 명 국

1

승용차는 청사마당에서 벗어났다.

차에서 내린 천성분탄광 지배인 김원룡은 사무실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서있었다.

금녀동무가 아직 퇴근하지 않은가보군...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을 밟고 오르며 지배인은 생각했다.

방에서 일을 보고있던 회계원 장금녀가 동심한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원룡을 맞았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소?》

《예, 밀린 일들이 좀 있다보니... 갓던 일은 잘 됐습니까?》

장금녀가 물었다.

원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습니까? 그거 정말 잘됐군요.》

장금녀는 제일처럼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도 그럴것이 탄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배인이 얼마나 마음쓰고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까닭에서였다.

...보름전이었다.

채탄막장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봉락사고가 있었다.

그때 박충복을 비롯한 채탄소대원들은 막장에 갇힌 속에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고 생산을 계속했다.

근 3시간에 걸치는 복구전투끝에 막장이 관통되었을 때 그들은 희박한 공기때문에 쓰러져있었다.

인차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얼마 안있어 완쾌되었으나 충복의 몸상태가 시원치 못했다.

원룡은 건강이 호전되기 전에는 막장에서 작업할 수 없다고 언명했다.

《지배인동지, 지배인동진 그들을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그때 장금녀는 물었었다.

《금녀동무, 난 그들모두를 료양소에 보낼수 없겠는가 해서 그러오.》

《예?》

《금녀동무, 생각 좀 해보오. 우린 그들에게 지시나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되오. 난 지금도 나라가 전쟁을 겪고난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 어느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생각하군 하오. 그날 폐허로 된 공장을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복구건설을 어떻게 할 결심인가고 물으시였다고요. 일군들이 올리는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었소. 그러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지배인에게 <지배인동무, 공장은 노동자들이 복구하게 하고 동무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복구하시오.>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요. 난 수령님의 이 교시를 전해듣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교시를 기준으로 삼고 일을 설

계하고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소.》

원룡의 목소리는 계속 방안을 울렸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결심입니다. 저기 경치 좋은 절골골안에 앞으로 탄부정양소를 크게 짓자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탄부들의 건강을 위해 잠정적인 조치부터 취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원룡은 천리길을 달려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료양소의 일군들을 만나보고 돌아온 길이었다....

《금녀동무, 밤도 깊었는데 이젠 집에 들어가보오.》

원룡은 작업복을 입고 사무실을 나서며 금녀에게 말했다.

《또 막장으로 가시렵니까?》

문건들을 거두던 금녀가 의아해서 물었다.

《지배인의 하루 마지막일과를 마저 집행해야 하지 않소.》

출장지에서 돌아오면 그것이 늦은 밤이든 이른 새벽이든 막장을 돌아보고서야 마음을 놓는 습관을 그는 룡조에 담아 말했다.

《그 습관도 이제는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진이 엄마도 자주 권고하는데 습관이란 이상하거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나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소.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니 같다. 그러니 너에게 있는 그 습관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는 그때 나에게 남다른 습관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소. 참, 내가 깜박 잊고 있었군. 내 오는 길에 은옥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길래 데리고 왔소. 그러니 은옥이가 엄마를 찾아나오지 않게 어서 들어가보오.》

순천은행일군학교에서 공부하는 딸이 왔다는 소리에 금녀는 서두르며 지배인을 따라나왔다.

이때 머리태를 함초롬히 기른 처녀가 원룡이 나오자 다가서며 인사를 했다.

《은별이구나. 집에는 아직 안 들어갔니? 오, 너 총복이 일이 걱정이 돼서 나온 게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일러라, 이틀 후에 료양소에 갈 준비나 착실히 하란다고... 알겠지?》

《저... 지배인동지! 전 총복동무가 자기는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매일부터 막장에 들어갈 수 있게 승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기업소의 결정을 위반하려 하면 안되지. 은별이도 총복이가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 것을 봐야 마음이 좋겠지, 안 그래?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료양

소로 떠날 준비나 잘해주려 무나.》

처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 난 원룡은 운전사를 불러 가는 길에 은별이를 총복의 집앞에서 내리워주라고 당부하고서야 처탄장으로 꺾어들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한겨울의 랭기가 서려돌며 오싹한 추위를 몰아왔다.

처탄장을 돌아보고 갭구로 가는 소로길에 접어들던 원룡은 뒤에서 나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가 처탄장에서 살금살금 나와 행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누구요?》

원룡이 안전등을 돌리며 느닷없이 물었다.

손에 바깥쪽을 든 그 사람은 무춤 멈춰서며 몸을 돌렸다.

원룡은 그리로 걸어갔다.

뜻밖에도 애된 처녀애가 바깥쪽에 골쭉하게 덩이탄을 담은 채 추위에 떨듯 몸을 웅크린 채 서 있었다.

《이건 뭘 하러 가지고 가니?》

원룡은 은근히 치밀어 오르는 동정심에 조용히 물었다.

《저... 집에 탄불이 죽어서...》

간신히 내뱉는 처녀애의 가냘픈 목소리...

《집에 어른들이 없는 게로구나?》

《어머니가 있는데 앓고 있어요. 엄마가 자꾸만 춥다고 해서 불구멍을 열어놓았다가 그만...》

처녀애는 탄불이 죽은 것이 제 불찰이기라도 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원룡은 탄바깥쪽을 들며 물었다.

《저기...》

처녀애의 손끝이 창가로 불빛이 흘러나오는 탄광 사택마을을 가리켰다.

원룡은 자기가 들고 가도록 해달라고 조르는 처녀애의 부탁을 웃음으로 거절하며 바깥쪽을 들고 그의 집으로 걸어갔다.

방안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던 녀인은 딸이 어떤 사람과 함께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다.

《누워계십시오.》

녀인을 안심시키고 난 원룡은 방바닥을 짚어보며 말했다.

《방이 랭돌바닥이군요. 이런데선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겠습니다.》

웃음섞인 원룡의 말에 녀인은 흑— 하며 어깨

를 떨었다.

《고맙습니다, 지배인동지!》

호느낌이 섞인 너인의 목소리에 원룡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너인의 말이였다.

그제서야 언뜻 머리속을 스치며 지나가는 추억의 토막이 있었다.

어느해 명절날 친선경기차로 어느 한 기업소와의 배구경기에 갔을 때 것처럼 열렬히 자기들을 응원해주던 너인...

그때 원룡은 그 기업소사람이 분명한 너인이 열을 올려 자기들을 응원해주는것이 이상하여 경기가 끝난 다음 조용히 만났었다.

그날도 이 너인은 《절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전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요.》

원룡은 손에 쥔 배구공을 굴리며 머리를 저었다.

한개 기관의 책임일군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온 그로서는 너인의 표상이 쉬이 떠오를리 없었다.

《세해전 어느날 밤 길거리에서 신음하는 한 너인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제야 생각났다.

그날은 결혼후 안해를 처음으로 올린 날이기도 했다.

송현중학교(당시)에서 단위원장을 하는 아들 일진이의 봄철운동회에 함께 가자고 안해와 약속을 하고서도 급하게 제기된 일때문에 안해의 노여움을 샀던 날이다.

저녁 늦어서야 안해를 안심시키고나니 그만 그날이 가시아버지생일이라는것도 잊고있었다는 생각이 불같이 들었다.

부랴부랴 차비를 해가지고 떠난 걸음이 이 너인때문에 지체되었었지...

바로 그 너인을 오늘 그의 집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될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애아버지는 일 나갔는가요?》

원룡은 어수선했던 방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애아버진 고난의 행군시기에 집이 실리는 막장을 살리다가 순직하고 제 혼자서 이 애를 키우다보니...》

《그렇게 되었군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쩍니까?》

《제 병이란게 워낙 이런거니 그제 이러다가 낫겠지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

원룡은 차를 부를 생각에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원룡의 행동에서 그것을 느낀 너인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안정치료를 하라고 해서, 이젠 다 나았습니다.》

처녀애가 탄볼을 살리는지 방안에 매캐한 연기가 떠돌았다.

《바쁘실텐데 저때문에... 어서 일을 보십시오.》

너인은 원룡의 등을 떠밀며 부탁했다.

하는수없이 집을 나서고말았다.

《이름이 뭐냐?》

그는 바래주러 나온 처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물었다.

《충효예요, 박충효.》

《박충효?! 이름이 참 좋구나, 몇살이지?》

《17살이에요.》

《저런, 그러니 중학교 졸업반이겠구나. 우리 친하자. 앞으로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때나 날 찾아와라. 누가 물으면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해라, 알겠지?》

처녀애는 눈을 깜박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원룡의 파업을 받고 충효네 집에 구명탄을 실어다주러 갔던 운전사가 충효의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왔다.

그러나 그날 아침 탄부들을 태우고 룡양소로 떠난 원룡은 그 소식을 며칠후에야 받을수 있었다.

그 소식을 받는 순간 원룡은 그날 밤으로 충효의 어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지 못한것을 두고 못내 후회하였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선 원룡의 기분은 침울했다.

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남편의 행동을 불안스레 지켜보던 정순이 조심히 물었다.

《일화 아버지, 기업소에서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니예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소.》

《그런데 왜 잠 못드시고 그래요?》

《동림에서 돌아오니 그 사이 충효의 어머니가 잘못됐다는 소식이 날 기다리고있질 않겠소. 일도 참...》

원룡은 팔베개를 한 머리를 저으며 긴숨을 내뿜었다.

《충효가 누구예요? 충복아저씨 동생인가요?》

《아니, 당신도 생각날거요. 우리 일진이의 봄철 운동회가 있던 날 밤 당신집에 건너가다가 길가에서 만났던 녀인 말이요.》

《당신이 병원으로 데리고갔던 그 녀인 말이예요?》

《그렇소.》

원룡은 안해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따스한 안해의 온기가 온몸에 마쳐왔다.

원룡은 이제부터 이런 가정적온기를 느껴보지 못하고 살게 될 충효의 가름한 얼굴을 그려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원룡은 자기가 그 애의 온기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줄순 없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해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여보, 내 당신과 한가지 의논할 일이 있는데 찬성해줄수 있겠지?》

정순은 고운 눈매를 깜박이며 묻는듯 한 시선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중해서 그래요?》

《글쎄 대답해보오.》

《제가 일진이 아버지의 말을 한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었나요?》

《그랬지. 그럼 말하기요. 충효를 우리 집에 데려오면 안될가?》

《어마나? 우리 집엔 시부모님들도 계시고 손님들도 자주 오는데...》

정순은 나직이 한숨을 내뿜며 대답했다.

《그러니 어렵다는 소리군...》

원룡은 머리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그럼 충효는 앞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살겠소? 난 빈집에 홀로 있을 그 애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소.》

《당신도 참... 그 애가 당신네 기업소 종업원이 남기고 간 자식이라도 되기에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런건 아니지. 하지만 오늘 우린 얼마후에 그 애를 우리 기업소 종업원으로 받기로 군로동부와 토론했소.》

《왜 하필이면 얼마후부터예요?》

김정순은 남편의 말이 재미있어 웃음을 머금으며 물었다.

《그건 충효가 며칠 있어야 중학교를 졸업하고 노력파견장을 받게 되니까 그런거지.》

정순은 그제야 깨도가 되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여보, 당신 지금도 잊지 않았겠지?》

《뭘 말이에요?》

《내가 체대되여와서 당신에게 해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옛이야기 말이요.》

《어마나! 당신도... 갑자기 그 말은 왜 꺼내면서 그러세요.》

《글쎄 대답해보오.》

《제가 어떻게 그걸 잊을수 있겠어요. 당신은 그때 저에게 말했지요. 우리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정을 떠나서는 못사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저 하늘의 해와 달이 되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싶은 가름한 심정에서 이런 전설도 창조한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랬지.》

《전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느끼곤 하는것 같애요.》

이렇게 뇌이는 정순의 눈앞에는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해주던 때의 일이며 어린시절부터 그와 함께 보낸 그 모든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들은 그 시절의 추억에 잠겨 말없이 누워있었다.

2

원룡의 유년시절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생활을 동심속에서 느끼던 그 시절 원룡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로 엮어진 끝없는 공상으로 가득차있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고 실감있게 했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들중에서 원룡의 마음속에 인상깊게 새겨진 잊지 못할 이야기들은 대체로 인간들의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원룡은 그런 이야기를 창조한 주인공들에 대한 동경의 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런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곤 하였다.

그러면 할머니는 《재물보다도 정으로 사는것이 인간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 사랑과 정으로 이어진 역사라고 하는거란다.》하고 아직은 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곱씹어 뇌이곤 하였다.

할머니네 집에서 돌아온 원룡은 자주 옛이야기마당을 펼치곤 했다.

그가 이야기마당을 펼칠 때면 트랙에는 동네 조무래기들이 병아리떼처럼 모여들곤 하였다.

그 병아리들속에 원룡의 누이동생 순정리와 딱친구인 정순리도 있었다.

정순리는 원룡이가 이야기를 펼치면 손바닥우에 턱을 올려놓고앉아 눈을 깜박이며 듣곤 하였다.

소녀는 원룡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세계속에 빠져 시간가는줄 몰랐고 나에게도 이런 오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늘 생각하곤 하였다.

그때 딱친구인 순정리에게 너희 오빠를 내게 달라고 조르기까지 하였다.

《우리 오빠네 너에게 어떻게 주니?》

순정리는 눈을 올롱해서 물었다.

《그럼 하루밤씩만 나누어가지자꾸나. 넌 나와 딱친구네 그렇게 하지?》

《너와 아무리 친한 사이래도 그것만은 안돼.》

순정리는 새침해서 머리를 저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순정리는 오빠를 만나자바람으로 그 말부터 하였다.

동생의 말을 들은 원룡은 《그럼 정순리가 저녁마다 우리 집에 건너와 함께 자자고 하려무나. 그럼 우리 순정리의 밤동무도 되고 좀 좋겠네.》 하고 말해서 정순리는 밤이면 순정리네 집으로 이야기를 들으러 건너오곤 하였다.

정순리는 자기가 것처럼 바라던 오빠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더없이 좋았다.

밤마다 순정리네 집으로 건너가는 딸을 두고 어머니가 너 이담에 순정리 오빠에게 시집을 가야겠구나 하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했다.

《엄마, 오빠한테도 시집을 갈수 있나? 그럼 난 오빠네 집에 안 갈래.》

그런 오빠가 군대로 떠나던 날 누구보다 서운해한것은 정순리였다.

《내가 가면 누가 우리 정순리의 이야기주머니를 채워줄가?》

정순리에게 원룡이 말했다.

정순리는 그때 군사복무를 마치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오는 오빠를 기다리겠노라고 웃으며 말했다.

원룡은 정순리의 부탁을 고향의 당부처럼 새겨안고 초소로 떠났다.

세월은 류수처럼 흘러갔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날 저녁 원룡은 퇴근해들어오는 동생에게 정순리가 잘있는가고 물었다.

《아니 오빠, 이 동생에게 잘있었는가고 묻기 전에 정순리 안부부터 물어요? 음, 안되겠어요. 그렇지요, 어머니!》

순정리는 눈을 할기죽거리며 내쫓듯 말했다.

《애, 네 소식이야 어머니에게서 먼저 들었으니 그런건데 뭘 그다지 성낼것까지야 있니.》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우리 오빠가 누구라고... 정순리도 방금 나와 같이 퇴근했으니 아마 집에 있을거예요. 오빠, 내 얼른 가서 데려올게.》

정순리와 탄광종합검탄실에서 함께 일하는 순정리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태세를 취했다.

《애 순정아, 그만되라. 그러다 정순리가 별나게 생각하지 않겠니.》

원룡은 얼굴이 불깃해지며 동생을 만류했다.

《오빠 별걱정...》

순정리는 그달음으로 정순리의 집으로 달려갔다.

정순리는 정말 기뻐다.

자기에게 오빠가 되어주고 옛이야기도 다정히 들려주던 순정리 오빠가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두 처녀는 손을 잡고 소녀시절처럼 깨꾸막질까지 하며 순정리의 집으로 향했다.

《한 옛날에...》 하고 이야기의 서두를 떼곤 하던 순정리 오빠의 초상을 상상으로 그려보느라니 장난기가 세차던 그 시절의 일들이 떠올라 정순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순정리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도 정순리는 원룡에게 그 시절처럼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면 군사복무시절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피어올랐다.

《오빠, 누가 왔나 봐요.》

순정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기 바쁘게 오빠에게 말했다.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책을 보고있던 원룡이 눈길을 들었다.

《어, 이거 우리 이야기떼군이 왔구나. 저런, 이젠 길거리에서 만나도 몰라보겠는걸.》

원룡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순리를 맞았다.

《태일모래 시집갈 나이의 다 큰 처녀를 보고 이야기떼군이 뭐예요? 이제부턴 정순동무라고 불러야 해요. 알겠지요?》

순정리가 오빠에게 고운 눈을 할기죽거리며 말했다.

《그래, 그렇지. 나라의 당당한 탄부를 보고 폐군이 라고 하면 안되지.》

원룡은 허리를 젖히고 꺾꺾 웃었다.

《오빠, 그새 앓지는 않았나요?》

정순은 소꿉시절처럼 어리광을 부리고싶었으나 어쩔지 쑥스러운 감정의 장애를 느끼며 물었다.

《군사복무의 나날 우리 정순이 부탁만 생각하다니 언제 앓을새도 없더구나. 정순인 앓지 않았겠지?》

원룡은 누이동생에게 눈길을 주며 물었다.

얼마동안 군사복무시절의 이야기들이 오가고나니 좀 서먹서먹하면서도 어련던 기분이 다소 해소되는 듯 한 공기가 흘렀다.

원룡의 어머니가 삶은 고구마를 다반에 담아들고 들어와 식기 전에 어서들 들라고 권해서야 그들은 다시금 소꿉시절의 세계로 돌아갔다.

《오빠, 언젠가 내게 약속한 생각이 나오요?》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며 정순이 물었다.

《뭘 말이니?》

《제대되어 오면 옛말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던 거...》

원룡은 자기가 군대로 떠나던 날 오빠가 가면 옛말은 누가 해주는가며 울던 소녀시절의 정순의 모습이 회억되어 미소를 지었다.

《오, 옛말... 우리 정순이와 한 약속인데 지켜야지. 그렇지, 순정아?》

원룡은 후후— 입김을 불며 맛나게 먹던 고구마를 놓고 손을 썩썩 비비고나서 이야기의 서두를 뺐다.

《한 옛날에 말이야, 오누이가 살았는데...》

앓음새를 편히 하며 원룡의 이야기 들을 차비를 하던 정순은 《오빠, 그건 이미전에 한게 아니에요? 새것을 해줘요.》 하고 말했다.

《그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이미 오래전에 한 이야기지.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것은 우리 중대정치지도원동지가 들려준 이야기여서 그런거야.》

정치지도원이 들려준 이야기라는데 력점을 찍은 원룡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렇게 되어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지. 누이는 밤이 무서워 해가 되고 오빠는 동생을 생각하여 달이 되었지.》

《응, 옛날에 다 들은거 재미없어요.》

정순이 소녀시절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다.

정순은 점차 원룡을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오빠라는 친근감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직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중대정치지도원동진 말했지. 세상에는 자기 나라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전설들과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자기의 전설로 해와 달을 창조한 민족은 없다. 그러니 군사복무를 마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말은 초소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자고 말이야. 그래 우리 정순인 그렇게 살수 있을가?》

《오빠 또... 정순이가 뭐예요, 어엿한 처녀보구.》

순정이 오빠의 옆구리를 찌르며 눈을 흘겼다.

《참, 그렇지. 내가 어릴적의 정순이로만 생각했구나.》

원룡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감정이 배여있었다.

정순이도 그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정순이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서니 원룡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오빠 왔어요.》

어느때처럼 원룡을 반기며 방안에 들어서던 정순은 방안공기가 전갈지 않다는것을 느꼈다.

원룡은 처음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후에 오마고 말하고는 총총히 자리를 피했다.

원룡이 떠나가자 어머니는 순정이 오빠가 왔단간 사연을 이야기했다.

《청혼?... 사랑...》

그날 밤 여러 집을 사이에 둔 두사람은 이불깃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앞에는 어린시절부터 이어진 가지가지의 사연 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언뜻언뜻 흘러갔다.

사랑이란 이런것일가?

환희와 고민에 찬 언덕을 넘어 인생의 노를 힘을 합쳐 함께 저어가자고 약속하던 날 밤 원룡은 정순에게 말했다.

《정순동무, 누군가가 말하기를 가정이란 정으로 꾸리고 정으로 행복을 가꾸는 집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재물보다 정으로 사는것이 인간이라는 말도 생긴거겠지. 우리 한생을 정치지도원동지가 부탁하던것처럼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되지요.》

정순은 수집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정이 오빠, 너자는 정을 떠나서는 순간도 못산다지 않아요. 전 꼭 오빠가 바라는 가정을 꾸리

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안해가 되겠어요.》

...

《일진이 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나봐요. 저야 그저 당신의 뜻만 따르는 안해가 아니예요.》

정순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고맙소. 내 당신에게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

《어마나, 부부간의 정에는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언젠가 당신이 말한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던가.》

원룡은 큰소리로 웃으며 안해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3

토끼골에 새로 일떠세운 염소목장을 돌아보는 원룡의 마음은 즐거웠다.

큰 기업소의 목장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수림속에 들어앉은 단층집은 아담한 정서가 느껴졌다.

아버지가 와보시면 만족해하실거야....

원룡이 여기에 염소목장을 건설하려고 결심하기까지는 탄부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진정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소일거리로 염소나 방목하던 아버지가 원룡을 가까이로 불러앉혔다.

원룡은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다리를 펴고 편안히 앉아라.》

아버지는 원룡이 자세를 고쳐앉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말이야, 난 말이야 이 아버지를 너희 기업소 종업원으로 받아주었으면 한다.》

원룡은 놀랐다.

아무리 아버지의 요구래도 환갑이 지난 로인을 기업소에 받는다는것이 아들로서는 찬성할수 없는 일이었던것이다.

《아버지, 혹시 집에 계시기 불편해서 그러는건 아닙니까?》

원룡은 늙으면 노여움이 많아진다는데 혹시 안해가 시부모공대를 잘하지 못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넌 일진이 어머니가 혹시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세상에 우리 며느리같이 마음씨 무뎠던 녀자는 아마 드물게다. 그저 이 아버진 늙었지만 로동자들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는 너에게 한가지라도

보탬을 주고싶어 그러는거다.》

원룡은 아들이 하는 일에 자그마한 진정이라도 고이고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며 물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싶어 그러니까?》

《내가 배운 일이라는게 축산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저기 토끼골에 자그마하게 염소목장이나 하나 지어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너희 탄부들에게 염소젖이랑 풍족히 먹일수 있지 않겠니.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다년간을 탄광부업농목장에서 부문당비서로 사업해온 아버지가 천성일관에서 축산에 밝은 사람으로 이름이 난것을 원룡은 알고있었다.

그러나 원룡은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아버지, 그건 제 혼자 결심으론 힘들것 같습니다. 제 일진이 어머니와 의논해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서라. 정순이 그 앤 쉽게는 찬성하자고 안할게다. 그러니 일진이 에미에겐 아직 말을 말아라. 그 대신 네 어머니 찬성했다. 어떠냐? 그렇게 하지? 그럼 난 그리 알고 이제부터 미리미리 좋은 품종의 염소들을 구해놓으마.》...

이렇게 건설이 시작된 염소목장이 햇풀이 돋기 시작하는 지금 드디어 완공된것이다.

《이번에 비서동무가 정말 수고했습니다.》

원룡은 염소목장을 책임지고 건설한 류광일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수고야 나보다 로동자들이 더 했지요.》

광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원룡은 마음이 즐거웠다.

우리 일꾼들이 언제나 로동자들에 대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을 결심하지 못하랴 하는 든든한 배심에서였다.

《그런데 지배인동무, 염소목장이 이렇게 일떠섰는데 이 목장을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류광일은 그것이 궁금한듯 물었다.

《허, 이건 아직 비밀인데...》

김원룡은 마음이 자못 흐뭇해서 눈을 감으며 머리를 저었다.

《실은 말이요.》...

한동안 공상에 잠겼던 원룡이 눈을 뜨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만 합니다.》

《어떻게 말이요?》

이번에는 원룡이 물었다.

《지배인동무의 얼굴에 다 찍여져있었는걸요. 내 단지 모르는척 했을뿐이지.》

《그렇다. ... 우리 비서동무가 심리학자가 될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가.》

《여기 천성일판에서 지배인동무 아버지만큼 측산에 밝고 판심이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탄부들에게 한점의 고기라도 더 먹이려고 마음써온 아버지이고 보면 능히 그럴만도 하지요, 어떻습니까? 제 추측이 틀렸습니까?》

할말이 없었다.

그러니 류비서는 이 모든것을 이미 알고있으면서도 지금껏 내색 한마디없이 건설을 내밀었던 말인가?

그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다.

《이제보니 비서동무와는 함께 일할 사람이 못되는가보군. 자기 지배인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그런 내색조차 없었으니 어디 함께 일할 재미가 있어야지.》

《지배인동진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이 비서와 토론해서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번 일은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보면 피차일반이군요. 어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하다보니 그렇게 된걸요.》

원룡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있습니다.》

《또요?...》

《예. 저도 얼마전에 장금녀동무에게서 들어서 알았는데 박충효문제 말입니다. 그 애를 지배인동무가 맡아 키우겠다고 했다면서요?》

류광일은 이것만은 정말로 노여운듯 말했다.

《그 일이 그렇게도 비서동무의 마음에 걸렸는가?》

《물론 지배인동무의 진정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배인동무가 독단을 부려도 너무 부리지 않는가 하는겁니다. 일진이 어머니를 만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금녀동무가 충효를 자기 집에 데리고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제기해왔습니다. 은옥이도 학교에 가고 있는데 딸처럼 데리고있다가 시집도 보내줬다면서...》

김원룡은 가슴이 뭉클해오는 감정을 체험하였다. 고마웠다.

지배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라서주는 그 마음들이 더없이 고마워 원룡은 눈시울이 뜨거워울랐다.

그러나 원룡은 류광일의 말을 막았다.

《비서동무, 우리 그 문제는 더 논의하지 맙시다. 아마 우리 일진이 엄마도 여기서는 양보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그야 그렇지만 박충효를 지배인동무 개인의 팔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탄광의 팔로 키우는것이 종업원들에게 주는 영향을 봐서도 옳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겁니다.》

그 말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비서는 선선히 웃으며 계속했다.

《제 생각엔 충효를 지금은 탄부들의 영양제식당에 배치해두었다가 차차로 봐가면서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자는겁니다. 그제 아마 어머니마저 옳은 충효의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원룡은 비서가 박충효의 일을 두고 많은 생각을 했다는것을 느꼈다.

비서동무의 말이 옳다.

말팔 일화나 일진이 잠자리에서 엄마의 품이라고 기여들 때 어머니가 없는 충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것인가?

그런 미세한 감정세계까지 생각하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사랑과 정에는 이성적인것보다 감성적인것이 먼저 깃들기마련이다. 정은 강요하며 줄수도 없고 또 강요로 받을수도 없는 인간의 고귀한 정신의 산물이다.

원룡은 그렇듯 스쳐버릴수 있는 세부에 이르기까지 생각 못한 자신의 사업방법을 다시금 돌이켜 보았다.

《고맙소, 비서동무!》

4

원룡의 너부죽한 얼굴에서는 싱글벙글한 웃음이 사라질줄 몰랐다.

언제 보나 입가에 웃음을 넘실거리며 집에 들어서고 다정한 미소를 남기고 출근길에 오르는 남편을 보는 정순의 마음은 즐거웠다.

《일화 아버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좀 함께 나누자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데...》

어느날 정순은 출근길에 나서는 남편의 옷매무시를 살피주며 말했다.

《그러기요. 오늘 아침 우리 탄광에 기쁜 일이 있으니 점심시간에 기업소로 오오. 내 당신이 만족

할만 한 기쁨을 줄테니…》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구… 내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점심때 당신을 찾으려 했소. 그런데 올 때 말이요…》

원룡은 무슨 큰 비밀을 말하듯 안해의 귀가에 입술을 대고 수군거렸다.

《당신이 나와 결혼할 때 입었던 치마저고리를 잊지 말고 가지고오오.》

《어마나, 그 치마저고리를 입고 어디에 나서라는거예요?》

정순은 남편이 첫날옷을 가지고오라는 바람에 얼굴이 발갛해서 애교어린 투정기를 섞으며 말했다.

《나서긴. 이 김원룡에게 시집올 때의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싶어서 그러오.》

《거짓말! 그때의 모습이 정 보고싶으면 집에서도 능히 볼수 있는데 하필이면 기업소에서 보겠다고 하는건 뭐예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난 안가겠어요. 정말이에요.》

정순은 얼굴에 웃음을 남실거리며 토달거렸다.

《허, 이거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지금도 양탈기가 세차던 어릴적 그 성미는 여전한걸… 생각지 못했다가 맛보는 기쁨이라야 그 진미가 더 크다지만 어찌겠소.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 말해주는 수밖에…》

원룡은 효성화향기가 감도는 마당가의 의자에 자리를 잡으며 너그럽게 웃었다.

《오늘 박충복동무네가 결혼식을 하오.》

《예, 충복아저씨가요?! 누구하고요? 은별이와?…》

원룡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 친구 고집이 여간 아니더구만. 료양을 끝내고와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오더했는데 못하겠다는게 아니겠나. 그래 비서동무랑 땀캐나 뿔았지. <저녀석이 그사이 속에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하고 말이야. 그 때 은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도 눈물을 찔끔 짜질 않겠소. 분명 사달이 났다 하고 전전궁궁 하는데 금녀동무가 은별이를 어떻게 구슬렸는지 실토를 했지. 충복이가 료양소에서 돌아온 이튿날 그들은 약속을 했다는만. 이번에 기업소에서 자기때문에 마음을 많이 썼는데 년간계획을 끝내기 전에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말이요. 며칠전에 년간계획도 끝냈겠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결혼식을 기업소영양제식당에서 차려주

기로 했소. 거기에 당신이 신부권 둘러리를 맡았으니 어찌겠소, 와주어야지?》

《어마나! 난 그런건 못해요. 당신도 제가 당신과 결혼식을 하는 날 얼마나 바빠했는지 잘 알면서도 그러세요.》

정순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버리고싶었던 그날을 추억하며 사정했다.

정순은 둘러리가 시키는대로 자기의 팔을 천연스럽게 끼고 병글거리던 남편이 미더우면서도 얼마나 땀팡스럽던지 몰랐다고 후날 웃으며 회고하였었다.

《여보, 내 그것만은 당신 결심에 맡길수 없구만. 그들이 이 지배인의 안해를 둘러리로 세워달라고 청을 하니 낸들 어찌겠소? 노동자들의 부탁인데 우리 첫사랑을 약속하던 그 시절을 다시금 추억하며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요.》

《그럼 일화 아버지지도?》

정순은 신랑의 둘러리역을 혹시 남편이 맡지 않았는가 해서 물었다.

원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사랑하는 안해동무, 그럼 시간을 지켜주길 바라오.》

유연한 안해의 손을 꼭 쥐어주고난 원룡은 후더운 웃음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5

푸름을 펼치던 나무잎들이 황이 들어 가을바람에 날리고있었다.

겨울이 오고있었다.

원룡은 이해 겨울부터는 어떻게 하나 탄부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먹여야겠다고 결심했으나 맞춤형 자리가 없어 마음이 피로왔다.

원룡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지난 겨울이었다.

영양제식당에 들어갔던 원룡은 탄부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우리 처가집이 있는 탄광에선 말이요, 이런 겨울에도 오이며 쭉갓을 비롯한 남새를 먹는다질 않소.》

굴진공의 말이였다.

《우린 온 여름내 염소젖을 먹지 않나. 그 탄광에선 염소젖을 매일 먹는대?》

그와 동년배인 채탄공이 굴진공의 말을 받으며

물었다.

《글쎄... 그런 소리 듣지 못했어.》

《그것 보라구. 자넨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게 탈이야.》

탄부들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 말이었지만 원룡의 마음은 번거로웠다.

시대는 부단히 발전하고 그만큼 탄부들의 생활상 요구도 높아지고있다.

그런데 나는 지난 기간의 성과에 만족해서 자만하고있지 않는가...

그때부터 적당한 온실위치를 확정해보려고 뛰어다녔으나 만족한 자리가 나지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겨울이 눈앞에 닥쳐오고있었다.

밤새 남새온실문제를 두고 착잡한 생각에 궁싹거리던 원룡은 아침 첫 일파로 정원의 파일나무주위를 거닐며 사색을 정리하고있었다.

애어린 복숭아며 살구나무들의 아지들을 매만지던 그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에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남새온실을 건설할수는 없을까?...

그러나 이내 머리를 짓고말았다.

이 파일나무들은 일진이와 일화가 안해와 함께 심은 나무들이었다.

그들이 인민군대로, 예술학원으로 떠난 지금 안해는 그 애들이 그리울 때마다 이 나무주위를 거닐며 추억에 잠기곤 한다는것을 원룡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일진이 아버지, 식사하자요.》

안해의 부름소리에 원룡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밥상에 마주앉았다.

수저를 들었으나 생각은 자꾸만 정원에서 맴돌았다.

《왜 그러세요? 혹시 기업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예요.》

정순이 근심스레 물었다.

《여보, 내 당신과 긴히 토론할게 있는데 들어주겠소?》

종시 수저를 놓으며 물고말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서 그래요?》

정순은 눈을 깜박이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심각해도 아주 심각한 문제요. 여보, 우리 당신이 가꾸는 저 정원에 온실을 건설하면 어떨것 같소?》

《어마나, 온실이요?! 아무렴 제가 당신에게 겨울철에 신선한 남새를 대접하지 못할가봐 그래

요?》

정순은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야 김치를 좋아하니 시원한 김치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될하오. 막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로동자들에게 겨울에도 부루나 쭉갯 같은 신선한 남새를 먹이면 좀 좋겠소.》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은 노여움에 가까운 생각이 북받쳐올랐다.

아무리 탄을 캐는 탄부들이 귀중하기로서니 자기 집 터맡까지 로동자들을 위한 온실로 쓰고싶어하는 남편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 온실관리원도 있어야겠지요?》

정순은 자기의 감정을 누르며 물었다.

《물론 있어야지.》

《그럼 온실관리원은 누가 하게 되나요?》

원룡은 미안스러워하는 멋적은 눈빛으로 안해를 쳐다보았다.

《누구를 따로 선정할게 있소?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겠다, 일전에 부업농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온실관리원까지 겸하면 되지 않겠소.》

《어마나, 사람들이 알면 웃겠어요. 지배인의 안해가 제 집 정원에 온실을 지어놓고 기업소 온실관리원까지 한다고 말이예요.》

정순은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속에 눈물이 어리는것을 원룡은 보았다.

그러나 지배인의 안해가 온실관리원을 하면 뭐가 잘못되오? 하는 불쾌한 심리가 작용하면서 원룡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어느덧 안해가 남편이라는 그늘 밑에서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고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다.

한참이나 눈물속에 웃고난 정순이 말했다.

《여보, 용서하세요.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전 그것만은 찬성하지 못하겠군요. 일진이 아버지, 생각 좀 해봐요. 저 복숭아랑 살구나무들이 저나 당신에겐 집떠난 자식들의 모습이 아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해의 말이 옳다.

원룡이도 자식들이 그리울 때면 이 나무밑을 거닐며 그 애들을 키우던 나날들을 추억했고 그 애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도 일을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다지지 않았던가.

《됐소, 그 말은 그만하고 어서 식사나 하가요. 출근시간이 늦겠소.》

그날 원룡은 온종일 다른 일을 전폐하고 온실 적지를 찾아다녔으나 종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말았다.

원룡은 그 위치로 보나, 부지면적으로 봐도 온실로서는 자기 집 정원이상 적합한 곳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원룡은 어떻게 하나 안해를 설복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퇴근길에 올랐다.

집앞에서 공기놀이에 여념이 없던 일신이가 《아버지!》하며 뽀르르 달려와 매여달린다.

《아버지, 엄마 오빠랑 언니랑 심은 과일나무들을 다 떠올렸다.》

《?!...》

원룡은 막내딸이 무슨 말을 조알거리는지 도무지 가늠할수가 없어 일신이를 앞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집앞에 생흙이 드러나있고 그 사이사이로 《이사》를 한 과일나무들이 보였다.

《어머닌 어디 있니?》

원룡은 몽클한것이 가슴을 치는것을 느끼며 물었다.

딸애의 손끝이 정원쪽을 가리켰다.

원룡은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온 사람처럼 그리로 걸어갔다.

어둠이 짙어가는 이 저녁 나무구렁이를 메꾸느라 얼굴을 홍건한 땀발로 적시며 걸싸게 삽질을 해대는 안해를 보는 원룡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는 말없이 안해가 쥐고있는 삽자루를 잡았다.

《오셨군요. 시장하시겠는데 어찌나. 인차 끝낼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정순은 방긋 웃었다.

《여보, 고맙소!》

원룡은 더이상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몸매작은 이 녀인의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서 그는 이보다 더 적중한 말을 찾을수 없는 자신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아침엔 제가 미웠지요?》

원룡은 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당신도 이젠 거짓말을 곧잘 하시는군요. 나도 내자신이 미웠는데 당신이야 더 말해 뭘 하겠어요.》

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문지르며 앉은 정순은 남편의 다부진 어깨를 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도 이런것까지는 미쳐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

게 이렇게 나무를 옮겨심을 생각까지 다 했소?》

원룡이 물었다.

《전 녀자가 아니나요.》

《?...》

《당신은 언제인가 저에게 말했지요. 남자는 응심깊고 녀자는 지혜롭다고. 그러니 제가 지혜를 좀 발휘해본거지요.》

해학조로 말하는 정순의 눈가엔 미소가 남실거렸다.

《실은 당신이 출근한 다음 빈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느라니 당신이 들려주었던 군사복무시절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게 아니겠어요.》

안해의 지곳은 청에 군사복무시절의 이야기는 자주 해주었지만 안해가 어느 이야기를 녀두에 두고 말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아 원룡은 눈만 슴벅거렸다.

《당신이 한생을 두고 잊을수 없다던 위대한 장군님을 중대에 모셨던 날의 그 이야기 말이예요.》

그제야 생각이 났다.

...진달래꽃이 산등선을 덮으며 류달리도 많이 피었던 어느해 이른 봄날.

원룡은 본대원들과 함께 고지뒤산에 있는 부업지에 거름을 내고있었다.

《분대장동지, 이제 여기서 팔독만 한 강냉이랑 오이며 호박들이 줄줄이 열리겠지요?》

원산에서 입대한 신입병사가 삼태기에 담은 거름을 발이랑에 뿌리며 물었다.

《그럼, 이제 동무가 심고가꾼 이 밭에서 팔독만 한 열매들이 맺히는것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거요.》

지계에 진거름을 그득 담아지고오던 정치지도원이 원룡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야, 그땐 정말 멋있겠는데요. 우리 어머니 손에 흙 한번 묻히지 않고 자란 내가 제일 걱정이라고 늘 외우군 했는데 이제 여기서 첫 열매를 수확하면 난 제일먼저 우리 어머니에게 보내겠습니다.》

《여 원산, 여기가 뭐 동무네 고향마을 동구밖이라구 어머니에게 첫물을 보내?》

원룡은 신입병사의 어깨를 툭 쳤다.

《못 보낸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신입병사가 불부는 소리를 했다.

《그래? 그럼 이 친구 어떤 수완이 있는지 좀 볼가?》

정치지도원이 웃으며 물었다.

《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꾼 첫물곡식을 안고 척 사진을 찍어보내면...》

와하— 웃음이 일었다.

《1분대장! 이 친구 걸작인데... 팬찮아, 어머니에게 보내는 심정으로 곡식을 가꾼다! 좋구만, 우리 고향의 어머니들에게 첫물곡식을 보내는 심정으로 올해 부업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보지요. 집을 떠나 초소에 사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이란 무엇이겠소. 자식들이 추워하지는 않는지, 어디 가서 배는 고프지 않는지 하고 늘 마음속에 근심을 안고사는것이 바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 꼬마는 이런 어머니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새겼으니 얼마나 좋소. 이것이 어머니와 자식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로 이어주는 정이 아니겠소.》

정치지도원의 말에 대원들은 머리를 끄덕였다.

바로 이때 중대가 자리잡고있는 고지뒤산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장군님께서 오시였다!)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하며 서로 얼굴들을 마주 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중대병영을 향해 달려갈 엄두를 못내었다.

대원들은 거름내가 풍기는 옷자락을 손바닥으로 어루쓸며 중대쪽만 바라보고있었다.

원룡은 정치지도원을 쳐다보며 굳어진듯 서만 있었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장군님을 중대에 모신 이 시각 진거름을 만지느라 어지러워진 자기들의 옷차림 때문에 선뜻 달려가지 못하는 병사들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뚒어올랐다.

차라리 훈련장에서 장군님을 모셨더라면 땀젖은 군복차림이래도 한달음에 달려갔으련만...

바로 이때 신입병사가 환희에 넘쳐 소리쳤다.

《정치지도원동지!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오십니다.》

원룡은 눈을 습벅이며 등성이를 올려다보았다.

다문다문 다박솔이 설레고있는 사이길을 따라 장군님께서 중대부업포전으로 성큼성큼 걸어내려 오고계시였다.

손을 어떻게 건사했으면 좋을지 몰라 주저주저하는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정치지도원의 손을 잡으시고 오래도록 놓으실줄 모르시였다.

《정치지도원동무의 손을 보니 이 중대병사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의 웃음을 위해 손에서 일감을 놓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의 손이 늘 이렇게 험했지. 고맙소. 정치지도원동무! 내 동무에게 고맙다는 말밖에는 더 해줄 말이 없구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포전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정이란 샘물과 같아서 퍼올릴수록 더 샘솟는다고 했소. 이 중대의 정치지도원동무처럼 병사들을 위해 정을 다 바치는 지휘관들이 있어 내 마음은 언제나 든든한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중대를 다녀가신 그날 원룡은 정치지도원에게서 어릴적부터 들어 뜬금으로 외우고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를 다시금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였으나 의미는 달랐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정치지도원은 말했다.

《우리 한생을 두고 오늘을 잊지 말고 저 하늘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자기의 열과 정을 다 바쳐 장군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하지요.》

...

《여보, 일진이 아버지, 전 지금껏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녀자는 사랑에서 항상 리기적인것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한것 같아요.》

정순은 남편의 듬직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사죄하듯 말했다.

《꼭 그런것만은 아니지. 내 기억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말도 남긴것 같은데...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언제나 현숙한 안해가 있다.〉 내가 지금처럼 마음놓고 자기 사업을 할수 있는데는 당신의 남모르는 수고가 크게 깃들어있지. 안 그렇소?》

《고마워요. 일진이 아버지! 제 온실농사를 잘해서 당신이 자신처럼 귀해하는 탄부들의 식탁을 푸 집하게 하겠어요.》

정순은 남편의 널찍한 가슴에 더 깊이 얼굴을 묻었다.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민들의 밥상에 한가지 식찬이라도 더 올려주려고 마음쓰시는 원수님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요.》

원룡은 안해의 어깨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어둠이 짙어가는 하늘에서는 별들이 웃고있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낳은 추억의 별무리들이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인간세계를 내려다보며 부러움에 겨워 웃고있었다....

예쁜이

리 득 하

부지런도 해라
잠실분조장 예쁜이쳐녀야
봄이면 첫물누에
가을이면 두벌누에
하얀 고치 따고따며
잠도 없이 사는구나

너라고 어찌
한창나이 좋은 때
통신대학 등교길에 앞서
즐거운 휴양길 걷고싶지 않았으랴
밤이면 고운 옷 끌라입고
달빛아래 강변길 걷고싶지 않았으랴

아침이면 뽕잎을 따내리느라
너의 치마자락 이슬에 함초롬히 젖고
저녁이면 뽕잎을 씨느라
네 고운 손 파란 물이 들었구나

일터가 정들어

밤이면 밤대로
잠박들을 보살피
사뿐사뿐 오고가며
방긋이 피우는 너의 그 미소
달이 반겨 웃는구나
별이 마주 반기누나

네 진정을 나는 안다
인민들에게 비단옷감 안겨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뜻을 받들어가는
가득한 그 마음을

아, 그 마음 그 진정이 아름다와
사람들은 정답아 사랑답아
부르누나 예쁜이라고
꽃비단 이 땅우에 늘어가는
우리 예쁜이라고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11호 (루계 제817호)

편 집 위 원 회

| | |
|-----|---------------------|
| 낸 곳 |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 인쇄소 |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 인 쇄 | 주체104(2015)년 11월 1일 |
| 발 행 | 주체104(2015)년 11월 5일 |

7-5628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